

연구보고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2023. 10.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 : 편삼범 의원)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공익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제 출 문

충남도의회 귀하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 편삼범 의원)의 의뢰로
이 보고서를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0.

연구기관명 : 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연구책임자 : 서혜승(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이사장
공동연구원 : 김영아(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 김나경(창의지식개발원)
연 구 원 : 최희선(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김현지(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한지아(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범위	3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3. 기대효과	3
4. 세부과업 내용	4
5. 과업수행 프로세스	5
6. 폐교를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논의과정	6
II.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117
1. 교육정책의 여건	119
가. 교육정책	119
나. 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공간 수요 전망	124
다. 인구구조의 변화	129
2. 이적지·폐교 발생 현황 조사	139
가. 개념 정리	139
나. 저이용 학교 부지 발생 추이	142
다. 기 부지 활용방안 분석	145
III. 국내·외 사례 검토 분석	153
1. 선행연구 조사·분석	155
2. 국내·외 사례 분석	160
가. 국내 사례	160
나. 해외 사례	174
3. 시사점 도출	181
가. 종합 시사점 도출	181

IV. 폐교 관련 법령검토 183

1. 폐교 관련 법령검토 185

가. 폐교 관련 법령검토 185

V.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197

1. 가이드라인 수립 199

가. 비전 및 목표 199

2. 활용모델 제시 209

가. 세부 지표의 설정 209

나. 미활용 폐교의 활용방안 211

다. 거버넌스 구축 방안 213

라. 재원확보 방안 219

마. 적정모델 제시 224

바. 학교 복합시설의 유형 및 종류 228

3. 종합 전망 233

가. 예상 문제점 233

나. 제도적 한계 233

다. 개발 잠재력 등 제반 현황 234

4.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제시 235

5. 종합 전망 238

6.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239

7. 자문 의견서 241

표 목 차

2-1. 대내외 정책환경의 급변	119
2-2. 우리 교육을 향한 사회적 요청	119
2-3.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120
2-4. OECD 미래학교 4가지 시나리오	125
2-5. 교육부 미래교육 정책	126
2-6. 미래를 위한 교육아젠다 10선	127
2-7. 유·초·중·고등학교 수 변화	130
2-8.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131
2-9. 시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132
2-10. 충청남도 연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133
2-11. 충청남도 시군 학생 수 변화	133
2-12. 시도별 유소년인구 및 구성비	135
2-13. 시도 학교급별 학령인구(6~21세)	136
2-14.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	137
2-15.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	137
2-16.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138
2-17. 충청남도 시군별 학령인구 및 증감률	138
2-18.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143
2-1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재산 연도별 발생 및 활용	144
2-20. 충청남도 시군별 폐교 현황	145
2-21. 폐교 활용유형 및 세부 사례	147
2-22. 기관설립 등으로 자체활용 처리 완료 폐교 현황	147
2-23. 지역별 폐교재산 활용 및 활용현황	148
3-1. 폐교 활용방안 선행연구 경향성	158

3-2. 폐교위기 극복방안 선행연구 경향성	159
3-3. 폐교위기 대응 국내 사례	171
3-4. 일본의 폐교활용 사례	178
3-5. 영국 그린웨이센터	180
3-6. 중국 중경시 폐교재산 재활용 현황	180
3-7. 중국 농촌폐교 활용사례	181
4-1. 폐교활용법의 주요 개정 내용	187
4-2. 폐교활용법시행령 중 조례 위임 조문	188
4-3. 20대 국회 계류 중인 폐교활용법 의원 개정 법률안	189
4-4. 일부 개정 법률안(1)	190
4-5. 일부 개정 법률안(2)	190
4-6. 일부 개정 법률안(3)	191
4-7. 일부 개정 법률안(4)	191
4-8. 경기도, 광주시, 부산시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교	194
4-9. 폐교재산 관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194
5-1. 폐교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203
5-2. 대부, 매각 시 수익계약 특례 적용 가능한 자	203
5-3.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대상	204
5-4. 대부 매각에 따른 수익계약 절차 비교	205
5-5.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지원 특례	207
5-6. 미활용 폐교 현황(보존관리)	210
5-7. 미활용 폐교 현황(활용계획)	211
5-8. 미활용 폐교 현황(매각추진)	212
5-9. 충남 및 15개 시군 민관협치 현황	214
5-10. 충남 민관협치 관련 검토 대상 조례 및 위원회	215
5-11.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	219

5-12.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	223
5-13. 복합화 시설 성격에 따른 유형	229
5-14. 학교 복합시설 종류 및 기능	230

그 림 목 차

2-1. 2030 중점 추진과제 20	122
2-2. 유·초·중·고등학교 수 변화	129
2-3.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130
2-4. 시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131
2-5. 시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2020년 대비 2050년)	134
2-6. 시도별 유소년인구 수 변화(2020년 대비 2050년)	134
2-7. 학교이적지 적용예시	141
2-8. 시도교육청 폐교 순위	143
2-9. 충청남도 연도별 폐교 발생 추이	144
2-10. 보존관리 중 폐교재산 분포	148
3-1. 전국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155
3-2. 웅진군 덕적고 야구단 사례	173
3-3.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179
3-4.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육행정 구조 차이	179
4-1. 폐교활용 관련 법령 체계	186
5-1. 요소별 폐교활용 핵심가치와 연계성	209
5-2. 미활용 폐교 보존관리 대상	210
5-3. 미활용 폐교 매각추진 대상	212

5-4. 충남 15개 시군 민관협치추진모델(안)	216
5-5.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216
5-6. 충남 민관협치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구축	217
5-7.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실행과제	218
5-8.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강화모델개발	218
5-9. 6-11세 인구 천 명당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	219
5-10. 교원 1인당 학생 수	220
5-11.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교	220
5-12. 학교 건물의 경과 년 수 구간별 규모 현황	221
5-13.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222
5-14.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본예산 대비 증가율	222
5-15. 폐교활용모델 구상안	236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기대효과
 4. 세부과업 내용
 5. 과업수행 프로세스
 6. 폐교를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논의과정
-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가. 과업명 : 2023년 의원정책개발(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나.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도내

다.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내용적 범위 :

- 학교이적(예정)지·폐교활용 사업 모델 구상
-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 마련(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방안, 관련 지원사업 연계방안, 기타 지역 인프라 연계방안 등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연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교 및 학교 통·폐합 등 이적지 및 저이용 부지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토지 활용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학교는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전·재배치 시 공공재 역할 담당을 위한 입체적·복합적 공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개별 학교 부지에 대한 지엽적 검토가 아닌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교육수요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요구 및 여건변화에 맞는 다양한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 마련

3. 기대효과

- 폐교활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과거 지역의 중심이었던 학교 본래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이 빈번하게 유입되는 충남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융복합적 시설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지역의 차별화된 미래상을 제시함
- 폐교의 지자체 매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역 정책실현 및 공적 기능수행을 위한 효율성을 증대함

4. 세부과업 내용

가.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1) 이적(예정)지·폐교 발생 현황 조사

- 저이용 학교 부지 발생 추이, 기 부지 활용 방안 분석

2) 향후 전망

- 인구구조, 교육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공간 수요 변화 전망

나.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분석

1) 선행(유사)연구 조사·분석

2) 국내·외(해외도시) 선진 사례 분석

- 개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과제 도출

3) 분석 내용을 종합한 시사점 도출

- 전체 이적지·폐교 시설의 장래 활용방안

다. 이적지·폐교·저이용 부지 유형 분석

1) 이적(예정)지·폐교 시설 현황 조사

- 상위계획, 관련법령 등 제반 기준 검토

2) 주요 이슈 도출 및 유형화 기준 마련

- 소유, 이해관계자(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 입장 등
- 규모, 부지형상, 입지특성, 개발제한사항 등

라.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1) 가이드라인 수립

-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 근거 확보
-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판단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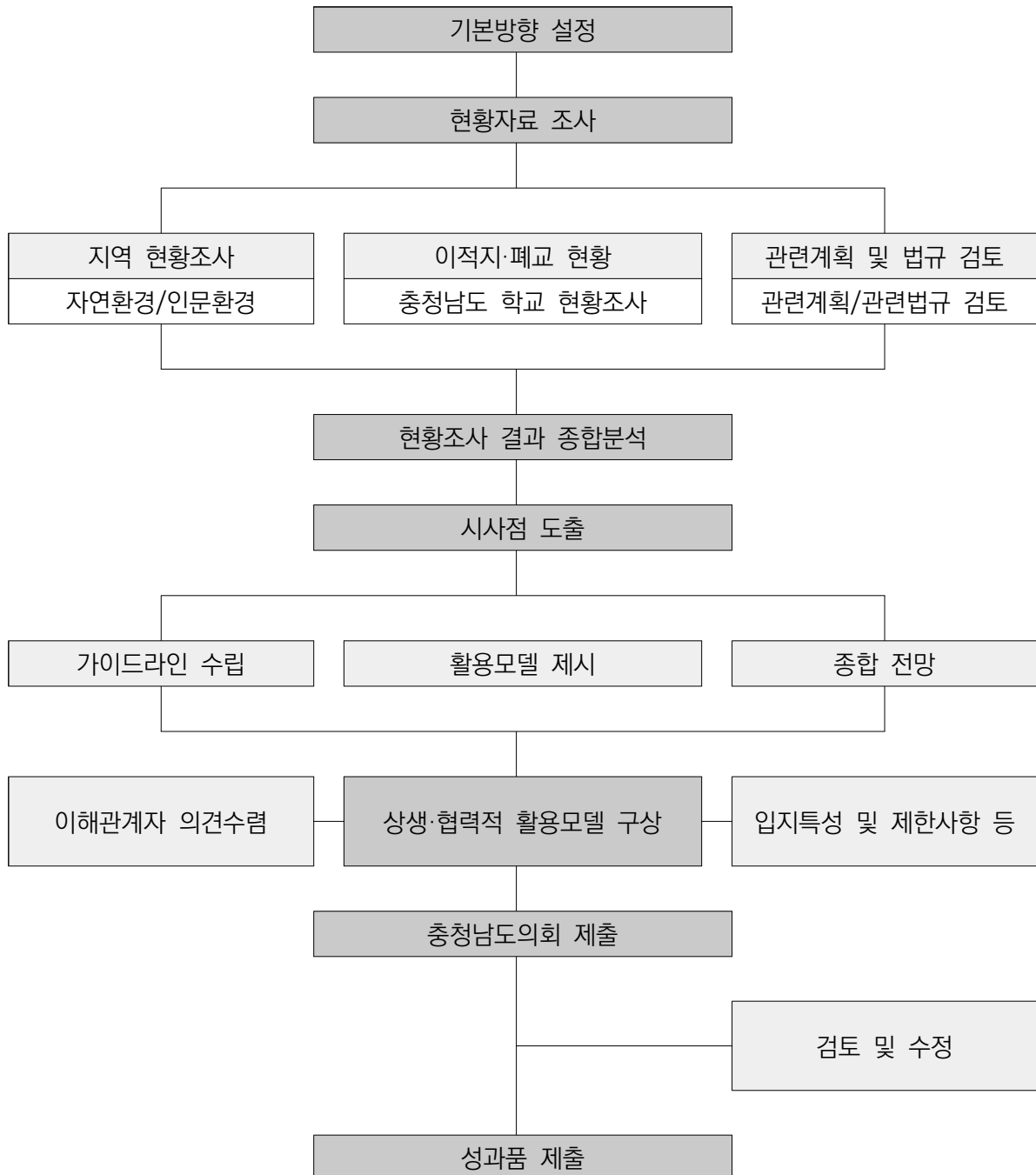
2) 활용모델 제시

-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방안 제시
- 거버넌스구축 방안, 자원확보 방안, 사업방식(주체) 등 적정모델 제시

3) 종합 전망

- 예상 문제점, 제도적 한계, 개발 잠재력 등 제반 현황 분석 및 전망
- 리스크 관리방안 및 향후 과제 제시

5. 과업수행 프로세스



6. 폐교를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논의과정

가.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안내

< 요약 >

- (일 시) 2023. 3. 21.(화) 11:00~12:30 (90분)
- (장 소) 충청남도의회 3층 세미나실(303호)
- (참석대상)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보유 폐교 재산 및 활용 현황
 - 연구모임 일정 논의 및 자유토론



충청남도의회
(교육 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안내

- ◆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
- ◆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정책제언

I 회의개요

- 일 시: 2023. 3. 21.(화) 11:00~12:30 (90분)
- 참석대상: 편삼범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충남교육청 보유 폐교 재산 활용 현황 설명
 - 연구 주제 제시 및 자유토론(질의응답)

II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 개회, 인사말 및 회원 소개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사회: 간사 양형우
11:10~11:40	30'	○ 충남교육청 보유 폐교 재산 및 활용 현황 설명	최현숙 주무관 (충남교육청 재무과)
11:40~11:50	10'	휴식	
11:50~12:20	30'	○ 연구주제 제시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연구모임 회원
12:20~12:30	10'	○ 마무리 및 폐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Ⅲ 회원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간 사	양형우	합덕여자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회 원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한상화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회 원	이영란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교수	
회 원	유장식	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회 원	박정만	보령시 호도 어촌계장	
회 원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회 원	이종우	당진 원당초등학교 행정실장	
회 원	최현숙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차기택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회 원	김윤경	청파초등학교 행정실장	

폐교재산 관리 · 활용 현황

1. 총괄

(1979년도 ~ 2023.3.1.현재)

폐교 총수	처리완료				관리현황					
	매각	교환 양여	자체 활용 (학교설립 등)	소계	활용		미활용			소계
					자체 활용	대부	보존 관리	지자체 매각 협의	일반 매각 추진	
271	209	7	16	232	8	13	9	5	4	39

2. 연도별 폐지 학교 현황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학교수	238	2	5	2	4	4	1	2	3	1	2	1	3	3	271

※ 2023. 3. 1.자 폐지 학교(3교)

(태안) 소원초 의항분교, (보령) 청파초 호도분교, (서산) 팔봉초 고파도분교

3. 폐교 활용 기본 방향

- 교육기관 설립 등 최우선적으로 자체활용 추진
- 접근성, 규모 등 교육용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는
장래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 관리
- 자체활용 및 보존 · 관리 계획이 없을 시 주민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매각 또는 대부 추진

붙임자료: 폐교 재산 현황(2023.3.1.기준) 1부.

[붙임]

폐교 재산 현황

1

지역별 폐교 총괄표

(2023.3.1.기준)

지역	총 폐교수	처리 완료				관리 현황					
		매각	교환 반환 인계	자체 활용	계	활용		미활용			계
						자체 활용	대부 중	보존 관리	지자체 매각의 협의	일반 매각 추진	
천안	7	5			5		1	1			2
공주	27	21		2	23	1	1		1	1	4
보령	22	18	1	2	21	1					1
아산	8	7		1	8						0
서산	22	16	2	1	19		1	2			3
논산	22	12		3	15		4	2	1		7
당진	14	10	1	2	13		1				1
금산	19	16		2	18				1		1
부여	29	26	1		27		1	1			2
서천	20	18		1	19	1					1
청양	21	20			20	1					1
홍성	17	7		2	9	2	3		1	2	8
예산	16	10	2		12	1	1		1	1	4
태안	27	23			23	1		3			4
계	271	209	7	16	232	8	13	9	5	4	39

2

처리 완료된 폐교 현황

가. 매각(교환 · 반환 등 포함): 216교

나. 자체활용 현황(16교)

지역	폐 교 명	폐교년도	자체활용 용도	활용연도
공주 (2)	반포초 마암분교	1991	충남과학고등학교	1994
	장기초 송선분교	1998	공주학생수영장	2000
보령 (2)	정곡초	1992	상상이룸교육센터	1992
	창미초	1999	창미특기적성센터 보령창미유치원	1999 2014
아산 (1)	백석포초	2007	아산흰돌유치원	2012
서산 (1)	명봉초	1998	서산성봉학교(특수학교)	1999
논산 (3)	시묘초	1997	충남학생롤러스케이트장	1997
	성광초	2011	성광온누리학교	2018
	동산초	2015	놀이종합체험학습장	2015
당진 (2)	면천초 죽동분교	1994	당진외국어교육센터	2005
	용연초	2000	당진용연유치원	2003
금산 (2)	금류초	1992	학생수영장	1994
	부리초 부동분교	1998	비단골체험학습장	2007
서천 (1)	월성초	1994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2022
홍성 (2)	산수초	2007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2010
	광천여중	2014	충남드론항공고(구광천제일고) 드론교육 및 실습장	2020
계	16교			

※ 부여 인세초 부지(8,022㎡) 부여교육가족체험장으로 자체활용(2020.09.~)-재산관리관 변경
현재 건물은 부여군 대부중(세도노인대학)

3

관리 중인 폐교 현황

가. 자체활용(8교)

지역	폐교명	폐교년도	구분	활용현황과 계획
공주 (1)	우성초 봉현분교	1999	교육시설 설립	공주교육가족체험장, 2023년~
보령 (1)	청파초 호도분교	2023	교육용 활용	청파초 외연도분교 호도학습장 활용, 2023~
서천 (1)	종천초	1998	교육시설 설립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2024년
청양 (1)	장평중	2020	교육시설 설립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2025년
홍성 (2)	학계초	1992	교육용 활용	홍남초 양궁연습장, 2009~
	덕명초	2019	교육용 활용	덕명학습장, 2020~
예산 (1)	대륜초	1999	교육시설 설립	기록원, 2025년
태안 (1)	원이중 이원분교	2022	교육용 활용	이원초 관동분교장 개축 교육활동공간 활용, 2022~
계	8교			

나. 대부(13교)

지역	폐 교 명	폐교년도	대부현황	대부기간
천안 (1)	은석초 천북분교	2000	창의인재양성자연체험시설	2021-01-01~2025-12-31
공주 (1)	대륜초	2007	소득증대시설(공주치즈스쿨)	2021-06-09~2023-03-07
서산 (1)	인정초 인정분교	2009	문화예술체험교육(도비스쿨)	2023-01-01~2023-12-31
논산 (4)	호암초 삼동분교	1994	도예체험학습장	2022-04-02~2023-04-01
	부적초 부남분교	2007	공예체험학습장, 게이트볼	2022-06-16~2023-06-15
	호암초	2012	문화예술체험시설	2022-09-16~2023-09-15
	함산초	2002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	2023-01-01~2023-12-31
당진 (1)	도성초	2014	교육시설(드론교육)	2022-06-07~2023-06-06
부여 (1)	인세초	2018	교육시설(세도노인대학)	2022-04-01~2023-03-31
홍성 (3)	광성초	2015	문화시설(역사박물관)	2020-07-31~2025-07-30
	광남초	2014	교육시설(재활용감정사교육원)	2021-09-10~2026-09-09
	결성중	2018	공공체육시설(야구장)	2021-11-23~2026-11-22
예산 (1)	만사초	1992	소득증대시설(농작물 경작)	2022-04-01~2023-03-31
계	13교			

다. 미활용(18교)

1) 보존관리(9교)

지역	폐 교 명	폐교년도	활용계획
천안 (1)	병천초 봉성분교	2007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서산 (2)	삼포초	1999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팔봉초 고파도분교	2023	섬지역 폐교 장래 학생유입 대비 보존 및 자체활용 추진 검토
논산 (2)	양촌초 장원분교	1997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대명초	2022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부여 (1)	임주초	1995	인근학교 임천초 문화재 발굴 시 이전 대비, 기숙형 학교 설립 검토
태안 (3)	고남초 영향분교	1999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원북초 방갈분교	2021	토지정화 후 매각 등 검토
	소원초 의항분교	2023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계	9교		

2) 매각추진(9교)

지역	폐 교 명	폐교년도	매각구분	매각계획
공주 (2)	탄천초 가척분교	1993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주봉초	2017	지자체	공주시 매각 협의(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논산 (1)	황화초	2022	지자체	논산시 매각 협의(농촌리브로 사업)
금산 (1)	복수초 용진분교	2011	지자체	금산군 매각 협의(농촌리브로 사업)
홍성 (3)	대평초	2014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장곡초 오서분교	2015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장곡초 반계분교	2017	지자체	홍성군 매각 협의(돌봄 마을 사업)
예산 (2)	장신초	1999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광시초	1999	지자체	예산군 매각 협의(농촌체험 캠핑장)
계	9교			

발족식 및 제1차 모임 회의록

★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과제: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 지역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마련)

□ 모임 개요

- ▶ 일시: 2023. 3. 21.(화) 11:00 ~ 12:30
- ▶ 장소: 충청남도의회 3층 의회 회의실(303호)
- ▶ 참석자: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1명(미참석 2명)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외 1명
- ▶ 회의내용: 충남교육청 보유 폐교 재산 활용현황 파악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 학생,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적용 콘텐츠 필요 등 자유토론



●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발제자)

1. 충남교육청의 폐교 정관에 대한 연구
2. 활용 방안 마련 등 의견 발언 및 자유토론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요즘 소규모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 학교, 체험활동을 하는 학교 등 구분을 해서 활용하여 폐교라는 용어보다 교육재산의 재활용, 공간 이동 활용 등 지역반발감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연구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란 교수(청운대): 폐교 현황 설명을 들어보니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 지역에 있는 폐교를 완전히 매각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또는 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 기존에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교의 폐교와 향후 발생 될 폐교에 대한 방향 설정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그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 사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지형에 특색에 맞춘 폐교의 활용 방향 설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네 저는 영어교육계 쪽에서 한 30여 년의 일을 하고 요즘은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을 하다 보니 폐교 관련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듣게 되었고 요즘에 전반적인 흐름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인구가 자꾸 감소 되니 자녀들도 줄어 들고, 예전의 노인정 이런 개념이 지금은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1~3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시켜 외부 물자를 유입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첫 번째가 교육이다 보니 미래교육형 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우 행정실장(원당초): 저는 일단 큰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실은 놀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시가지 속에서 혼잡한 교통으로 인한 위험 소재도 있고하여, 일단은 교육재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놀이공간, 체험학습장 등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서적인 교육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협의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최현숙 주무관(재무과): 폐교가 사실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나 또 주변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일반인의 활용 문의도 많지 않고 또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교 담당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주민들 복지, 공공 문화, 여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가장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도청에서도 농촌 보금자리주택 사업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학교가 예전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고 정말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는데 학교가 없어짐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생길텐데 그런 지역 주민의 감정도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 차기택 주무관(재무과): 최현숙 주무관님 의견처럼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교육 시설이 때문에 교육에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진행될 수 있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도청, 지자체와 같이 폐교 예상 시점부터 교육공간으로의 재활용 관련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같이 고민하고, 그후 교육공간으로의 활용 방향이 없다면 지자체 활용으로 지역민 발전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교육 문화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많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가 상실됩니다. 폐교가 되더라도 유휴기간이 없이 바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폐교를 관리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우리 당진의 폐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는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녔고, 아버지가 다녔고 내가 다닌 그런 학교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것, 내가 저 나무를 심었는데 저 나무 파헤치고 내가 저 유리창을 닦았는데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 광경을 접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희망이 꺾이게 됩니다. 당진 지역을 보면 지자체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또 개인이 매입한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교육 재정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게 되면 교육목적으로 재활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폐교가 된 학교는 시내권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어서 그곳에 가서 활용하기에는 교통편의가 도시지역 처럼 좋지 않습니다. 최현숙 주무관님 말씀 저도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기계 기술센터라든지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해 주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사례로 당진의 외국어교육센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대부 시 지역민들

도 대부분 내용을 보고 지역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보다는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지역민을 위한 소득증대 시설을 위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병숙 팀장(보령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업무를 하다 보니 학교 통폐합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한테 항상 죄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폐교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 주민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가 기부한 땅에 학교를 지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팔아먹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하든 지자체에 매각을 하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섬 지역에 대한 학교는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를 학습장으로 만들면서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보령 지역에서 보면 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폐교만 된다고 하면 언제 매각할 예정이냐고 벌써 문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각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며, 학습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매각하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요. 보령 지역의 섬 지역에 있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다 폐교가 될 예정입니다. 입학 예정 학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역 주민께서 될 수 있으면 학교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유지가 안 된다면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관광 사업과 섬 주민의 소득 증대를 하면 좋겠지만 이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목적의 사용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좀 특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접목하여 활용하는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폐교되는 학교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경 행정실장(청파초): 안녕하세요. 청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윤경입니다. 작년에 청파초등학교 운영을 하면서 저희 본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호도 학습장과 녹도 학습장을 함께 유지관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는데 호도와 녹도 상호 교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 배편이 개편에 따라서 활동에 제약이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여 활용한다면 성인 학습장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도교육청 섬 인식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울릉도나 독도 이런 다니는데 우리 충남에 섬이 34개의 유인도서가 있고 무인도서가 240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학습장 같은 것은 앞으로 이 조례에 맞추어 섬에 가서 아이들이 1박을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좋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의 제약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주간보호시설, 일명 노인 유치원으로 지자체가 활용 할수 있도록 생각해 볼수도 있고 농·산·어촌이라는 시골의 장점을 이용하여 주말에 와서 쉬고 또는 한 달 살고 하는 세컨하우스로의 활용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형식에 불과한 공문이 오고 가는 것은 깊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를 왜 없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땅도 내놓고 돌도 주워내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폐교가 예측되는 부분은 지역 주민한테 미리 1년이든 2년이든 동원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폐교를 한다고 하는 통보는 반발이 많고, 또한 폐교 활용하려면 관광 목적으로는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에 한 폐교를 제가 재활용 감정사 교육장으로 임대를 주선해 줬는데, 선진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 TV나 가전, 가구 등 버리는 것을 재활용 감정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런 사례를 통해 17개 시·도중에서 교육 재산을 가장 잘 활용하는 충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폐교가 한 사람이나 특정층이 아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 원거리의 각 지역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정말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대표자의 의견입니다. 모두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폐교가 진행되면 교육청에서는 이미 여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교육적인 방안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지자체 사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자체였냐면 그 지자체는 그걸 매입함으로써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니던 학교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지자체는 예산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해라 하는 그것도 좋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윤병숙 팀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외연도 청파 이제 분교로 되면서 기금이 5억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육지에서 섬 학습장 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운동장에 풀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큰 풀장이 아닌 필요시에 물을 채워 쓰고 하는 체험형 풀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시내에서 건물이 가장 좋은 것은 교회, 그리고 산속에는 나무가 많고 경치 좋은 곳은 절이고, 섬에서 가장 쓸만한 건물은 학교입니다. 저희 모임도 필요하면 언제 한번 견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김윤경 실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이 체험을 할 경우 콘텐츠는 자체 개발을 하는지요?
- ▷ 김윤경 행정실장(청파초): 콘텐츠를 개발하기 보다는 작년에 호도가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유지 해야되는 상황이었고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녹도 학습장 같은 경우 해변에 바로 나갈 수 있어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는데 호도는 바로 옆에 보면 해안도로와 해안가가 있는데 1분 거리에 있고 모래도 좋고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해변 놀이, 모래놀이 위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이번 모임에서의 내용은 교육을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담을 콘텐츠 내용도 필요하고, 폐교를 교육의 학습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가치와 철학이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폐교라는 공간과 인력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텐츠가 잘 구성이 되면 이 콘텐츠를 외부에다가 보급할 수 있고 이것이 미래기술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 노동자들의 현재 지원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폐교의 한 쪽에서 다문화 대상에 또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의 교육 콘텐츠가 운영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운영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있으면 우리 간사님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런 메일을 제시하면 일단 회의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족식 1차 연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제2차 회의 및 섬 폐교·분교 방문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 및 섬 폐교·분교 방문 안내

< 요약 >

- (일 시) 2023. 4. 24.(월) ~ 4. 25.(화) (1박 2일)
- (장 소) 보령 호도, 삽시도, 장고도
- (대 상) 편삼범(대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
- (내 용) 보령 지역 섬 폐교 및 분교 방문



충청남도의회
(교육 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 및 섬 폐교·분교 방문

I 방문목적

- 섬 폐교 및 분교 운영 현황 확인을 통한 폐교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 모색

II 방문개요

- 일 시: 2023. 4. 24.(월) ~ 4. 25.(화) (1박 2일)
- 장 소: 보령 호도, 삽시도, 장고도
- 대 상: 편삼범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 13명 및 담당 상임위원회 직원 2명(총 15명)
- 내 용: 보령 지역 섬 폐교 및 분교 방문

III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4.24.(월)	08:00~11:30	50'	○ 호도 이동 및 폐교 방문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폐교)
	11:30~13:00	60'	○ 삽시도 이동 및 중식	삽시횃집
	13:00~15:00	120'	○ 분교 방문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장
	15:00~17:00	120'	○ 장고도 이동 및 분교 방문	청룡초등학교 장고분교장
	17:00~19:00	120'	○ 간담회 및 석식	숙소
4.25.(화)	07:00~08:30	90'	○ 조식 및 정리	숙소
	08:30~09:40	70'	○ 대천항 이동 및 해산	

IV 대 상

순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1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대 표
2	양형우	합덕여자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간 사
3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4	한상화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회 원
5	이영란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교수	회 원
6	유장식	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회 원
7	박정만	보령시 호도 어촌계장	회 원
8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회 원
9	이종우	당진 원당초등학교 행정실장	회 원
10	최현숙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11	차기택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12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회 원
13	김윤경	청파초등학교 행정실장	회 원
14	안민호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5	정수정	교육위원회 주무관	

첨부1 방문 학교 현황

구)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일반 현황

I 학교 연혁

- ☐ 1961. 06. 11 오천국민학교 호도분교장 개교
- ☐ 1963. 03. 31 녹도국민학교 호도분교장 개칭
- ☐ 1992. 02. 11 청파국민학교 호도분교장 개칭
- ☐ 1996. 03. 01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장 개칭
- ☐ 2023. 03. 01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폐지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병설유치원호도학습장 개장

II 학급 편성 및 학생 현황

(단위:급, 명, 2023. 3. 5.자 기준)

구분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청파초	1(4)	1	9	1	4	1	7	1	11	1	11	1	7	1	3	7	49
외연도	-					1	1	1	3							2	4
녹도	1(2)		2						1				1				4
호도	1(1)																-
총계	3(7)	1	11	1	4	2	8	2	15	1	11	1	8	1	3	9	57

III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공무직	합계
청파초등학교	1	1	13	3	7	25
외연도분교장			2		3	5
녹도학습장			3			3
호도학습장			2		1	3
총계	1	1	20	3	11	36

IV 학교시설 현황

■ 면 적

[단위: m²]

학교용지		건물연면적	
위치	면적	동번호	연면적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3,342.86	4개동(교사2, 관사2)	517.79

■ 건 물

건물명	건축연도 (준공연도)	건물구조	층수	안전 등급	내진성능 확보	석면 여부	비고
교사동	1962	철근콘크리트조	1	정밀안전진단 D등급	미확보	석면	※ 40년 경과 관리대상시설
관사1	2003	철근콘크리트조	1	정기점검 B등급	비대상	미석면	
유치원동	2009	철근콘크리트조	1	정기점검 A등급	확보	미석면	
관사2	2012	철근콘크리트조	1	정기점검 A등급	비대상	미석면	

V 기타사항

■ 호도학습장(유치원) 건물 관련

- 호도학습장 설치 장소 검토를 위해 호도분교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 유치원동은 장기간 휴원으로 곰팡이 및 누수 문제 등 교육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교사동을 학습장으로 사용
- 현재 학습장으로 사용 중인 교사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 향후 유치원동을 보수하여 사용 예정임.

■ 학교 전경



〈구)호도분교장 교사동 전경〉



〈구)호도분교장 병설유치원 전경〉

오천초등학교삼시분교장 일반 현황

I 학교 연혁

- ☐ 1941. 06. 15 광명국민학교부설삼시간이학교로 개교(2개년 1학급)
- ☐ 1944. 04. 01 광명국민학교삼시분교장으로 교명 변경(2개년 1학급)
- ☐ 1948. 01. 01 오천국민학교삼시분교장으로 소속 변경(6개년 3학급)
- ☐ 1949. 09. 30 삼시국민학교로 인가 개교
- ☐ 1996. 03. 01 삼시초등학교로 개칭
- ☐ 2006. 09. 01 오천초등학교 삼시분교장으로 전환
- ☐ 2012. 02. 29 삼시분교장 병설유치원 교사 신축
- ☐ 2023. 03. 01 오천초등학교삼시분교장 2학급(유치원 1학급) 편성

II 학급 편성 및 학생 현황

(단위:급, 명, 2023. 3. 5.자 기준)

구분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오천초	1(4)	1	2	1	6	1	2	1	1	1	6	1	3	6	20
삼시분교장	1(1)		1	1	3							1	2	2	6
총계	2(5)	1	3	2	9	1	2	1	1	1	6	2	5	8	26

III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공무직	합계
오천초등학교	1	1	10	3	7	22
삼시분교장			4	1	2	7
총계	1	1	14	4	9	29

IV 학교시설 현황

교지

[단위: m²]

구분	교사대지	체육장	부속토지
오천초	7,434	1,800	.
삼시분교장	8,120	7,163	.

교실수

[단위: 실]

구분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학습지원 공간	교원지원 공간	기타시설	계
오천초등학교	7	2	4	8		1	22
삼시분교장	3	2	3	1	1		10

분교장 건물현황

건물명	건축연도 (준공연도)	건물구조	층수	안전 등급	내진성능 확보	석면 여부	비고
교사1동	2007	철근콘크리트	1층	정기점검 A등급	미확보	미석면	
교사2동	2013	철골조	1층	정기점검 B등급	미확보	미석면	
교사3동	2012	철근콘크리트	1층	정기점검 A등급	확보	미석면	
관사	2003	철근콘크리트	2층	정기점검 A등급	비대상	미석면	

V 학생배치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오천초	18	13	16	16
삼시분교장	6	6	6	6

■ 학교 전경



〈오천초등학교삼시분교장 전경〉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일반 현황

I 학교 연혁

- ☐ 1951. 09. 01 오천초등학교장고분교장 설립 인가
- ☐ 1963. 03. 01 고대국민학교장고분교장 변경
- ☐ 1969. 03. 01 장고초등학교 승격
- ☐ 1983. 03. 01 고대국민학교장고분교장 격하
- ☐ 1996. 03. 01 고대초등학교장고분교장 변경
- ☐ 2002. 03. 01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변경
- ☐ 2006. 03. 01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병설유치원 설립
- ☐ 2022. 03. 01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고대도학습장 설립
- ☐ 2023. 03. 01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1학급(유치원 1학급) 편성

II 학급 편성 및 학생 현황

(단위:급, 명, 2023. 3. 5.자 기준)

구분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청룡초	1(6)	1	4	1	7	1	9	1	11	1	6	1	14	1	2	7	51
장고	1(1)					1	1									1	1
고대도	-		1				1										2
총계	2(7)	1	5	1	7	2	11	1	11	1	6	1	14	1	2	8	54

III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공무직	합계
청룡초등학교	1	1	12	3	6	23
장고분교장			3	1	2	6
고대도학습장			1			1
총계	1	1	16	4	8	

IV 학교시설 현황

교지

[단위: m²]

구분	교사대지	체육장	부속토지
청룡초	19,309	8,126.68	.
장고분교장	5,257	1,080	.

교실수

[단위: 실]

구분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학습지원 공간	학생지원 공간	기타시설	계
청룡초등학교	8	2	4	4	2	1	21
장고분교장	2	3	2	3	1		11

분교장 건물현황

건물명	건축연도 (준공연도)	건물구조	층수	안전 등급	내진성능 확보	석면 여부	비고
교사동	1970	철근콘크리트	1층	정밀안전진단 D등급	미확보	석면	
다목적강당	2009	철근콘크리트	2층	정기점검 B등급	확보	미석면	
유치원	2015	철근콘크리트	1층	정기점검 A등급	확보	미석면	
관사	2003	조적조	1층	정기점검 B등급	비대상	석면	

V 학생배치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청룡초	46	48	47	42
장고분교장	6	5	7	5

VI 기타사항

장고분교장 건물 관련

- 장고분교장 교사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건물 개축이 필요

학교 전경



<장고분교장 전경>

제2차 모임 회의록

★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과제: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 지역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마련)

□ 모임 개요

- ▶ 일시: 2023. 4. 24.(월) ~ 4. 25.(화)
- ▶ 장소: 보령 호도, 삼시도, 장고도
- ▶ 참석자: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0명(미참석 3명)
교육위원회 안민원 수석전문위원, 정수정 주무관,
충남교육청 백원규 비서팀장, 맹수호 예산과
의회·대외협력팀장, 이권식 주무관
- ▶ 회의내용: 보령 섬 지역 폐교 및 분교 방문
폐교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 학생수 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방안 등 토론



-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발제자)
 1. 섬 지역 폐교 및 분교 현장 방문
 2. 폐교 위기의 학교 구제 방안 논의



호도 학습장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호도에 오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다행입니다. 폐교를 이용한 활성화 방안 2차 모임은 섬 지역 학교를 둘러보고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자리하였습니다. 2020년 폐교 활용을 위한 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 김윤경 행정실장(청파초): 호도 학습장 현황 설명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현재 학습장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지원청): 호도 학습장은 1년간 학생이 없어 폐교였지만 방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본교에서 수시적으로 제초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사용하는 학생이 없다보니 전지 작업이나 여러 부분에 많은 경비가 투입되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섬은 해풍의 영향 탓인지 육지와 다르게 습기로 인한 곰

광이 및 건물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듯합니다. 육지나 섬이나 폐교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재사용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나 새로 정비해야 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적은 인원으로 1천평 이상의 학교를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폐교를 장기가 방치하다 보면 ‘예산 잡아먹는 하마’ 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섬 출신이다 보니 매각보다는 지역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고심이 됩니다. 호도는 삼시도와 장고도 보다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호도는 녹도, 외연도와 한 권역으로 묶여있는데 백사장이 있는 곳은 이곳 호도뿐입니다. 그리고 해녀들도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섬의 실정에 맞게 해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원분들도 다른 섬들을 한번 쪽 둘러보고 또, 비교해 보시고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이 아니더라도 생각나시면 언제라도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지원청): 호도 분교를 폐교할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련장 활용으로도 고민해 보았는데 예전 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할 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방학 중 가족과 함께 해양 수련 활동을 진행해 보았으나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한창 성수기에 가족과 함께 수련 시설을 이용하면 지역 상인들의 시설 이용이 줄어들어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민원이 많았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섬 지역에 수련 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송 수단인 여객선의 승선 인원이 한계가 있기에 여객선 운행이 더 늘어나고 또, 숙박 수련에 따른 식사 및 간식 등 구입이 늘어나 지역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지원청): 또한 섬 지역 수련 시설이 운영될 경우 수영장에서의 수영과 바다 수영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생존수영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육지에서보다 많은 해양생물 경험과 어촌에 대해서 많은 학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원산도와 고대도의 학교를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은 수련 시설로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섬 지역의 해양 콘텐츠를 개발, 접목하여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오천초 삼시도 분교장



▷ 이광희 원로교사: 삼시 분교장 현황 설명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우리 연구모임은 폐교가 예상되거나 폐교가 생겼을 시 학생과 지역민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도중에서 충남이 폐교 활용에 대해 제일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광희 원로교사: 우천 시 학교 주위의 우수가 학교 쪽으로 병목되어 운동장 주위 배수로로 우수가 역류하여 학교보다 낮은 곳의 인접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배수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운동장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관로를 확인 및 보수를 통하여 지역민과 마찰이 해결되도록 학교와 지역청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지원청): 현재 운동장 주위의 배수로는 정비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평소 우천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집중호우때 문제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의 문제도 원인이 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학교 울타리 안쪽과 바깥쪽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학교측에서 정비해야할 부분에서는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섬 지역 종교시설인 교회의 목사님이 발령받으실 때 취학할 자녀가 있는 분의 발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어 폐교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박정만 호도 어촌계장: 위원장님이나 저나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섬에서 졸업하고 육지의 중학교에 입학하니 친구가 하나도 없어 적응 시기가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섬 지역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다니고 6학년에 육지학교로 전학하여 친구도 사귀고 육지에 적응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섬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되어 학생이 늘어나고 학교도 계속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담으로 예전에 제가 해경 시절 삼시도에서 근무할 때 5학년 3명의 학생 중 1명이 인천으로 전학을 갔는데 그 큰 학교에서도 3등을 할 정도로 육지의 학생들 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삼시도 분교장의 좋은 시설이 폐교로 바뀌지 않고 존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전에 파출소나 보건지소 등 조그만한 관공서라도 있는 섬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으로 발령을 요청하여 섬 지역 학생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섬으로 들어오려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폐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민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지금처럼 교회 목사님 발령 시 자녀 유입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 이광희 원로교사: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젊은 인구 유입이 없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지역 양식장 공동운영으로 발생하는 호당 배당금을 나누고 공통경비의 일부를 인구 유입을 위해 외부 인구 정착금으로 지원해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제가 호도 어촌계장님을 회원으로 모신 이유가 바로 귀촌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의 지원과 어폐류를 같이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 지원 등, 지역주민과 계장님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임에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으로 작용 될 것 같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육지의 어민보다 섬 지역의 종폐자원 지원금을 더 늘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외부 정착민에게 지원 형식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청룡초 장고도 분교장

- ▷ 김동환 교사: 장고도 분교장 현황 설명
- ▷ 윤병숙 행정팀장: 고대도 분교장 어촌계 사무실을 한 칸 사용중인데 내년에 1학년 생이 입학하게 되면 한 개의 학급이 늘어나게 되어 고대도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사용하게끔 해주셔서 2개 학급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장고도의 한 살과 세 살 유아는 여기 주민이신가요?
- ▷ 김동환 교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원래 사시던 주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네, 예전 발전소장 하시던 분의 자제분이신가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여기 분교장에 입학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 김동환 교사: 네, 휴원 문제로 여쭙봤는데 장고분교에 입학하신다고 합니다. 졸업생과 신입생과의 공백기간 동안인 1년간 휴원 예정입니다.
-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지원청): 장고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이 d 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건축 개축을 해야 하는지 구조 보강을 해야 하는지 심의에 들어간다고 시설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을 하던 구조변경을 하던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학생수가 얼마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관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 ▷ 김동환 교사: 관사는 구 관사와 신 관사 3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 관사를 2명과 신 관사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관사 위치는 어디인가요?
- ▷ 김동환 교사: 신 관사는 여기 급식실동 2층이고 구 관사는 교사동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학교를 둘러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 확인후 이동하여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음 -
(폐교활용방안 회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주무관, 충남교육청 교육감 비서팀장, 예산팀 의회·대외협팀장과 주무관, 장고도 지역주민 10여명)

“너희들이 장고도의 희망이란다!”

-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연구모임」, 섬 폐교 및 분교 방문
- 일정: 2023년 4월 24일(월)-25일(화) 1박 2일
- 방문 섬: 보령 호도, 삼시도, 장고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이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을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편 위원장은 이 학교(당시 장고국민학교) 졸업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국민의힘·보령2)을 대표로 하는 「폐교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연구모임」회원 13명이 24일(월)-25일(화) 1박 2일 일정으로 보령시에 예속된 호도, 삼시도, 장고도를 방문했다. 섬에 있는 폐교와 분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에 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섬지역 학교를 돌아보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연구모임」회원들이 섬 지역 폐교와 분교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행은 구,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병설유치원 호도학습장과 오천초등학교삼시분교장,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운영 중인 학급편성 및 학생과 교직원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며 '폐교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마지막 방문지인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은 연구모임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의 모교 장고초등학교(당시 장고국민학교)라는 점에서 편 위원장의 감회와 방문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연구모임」회원들이 호도, 삼시도, 장고도에 있는 폐교와 분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다.

연구모임 회원인 유장식 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섬지역 학교들을 둘러보며 폐교로 결정된 학교의 활용 방안부터 폐교 위기 학교의 대응 방안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천2)은, "이번 섬 지역 학교 방문을 계기로 '섬을 살리는 귀어귀촌 프로젝트'를 위한 서로의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편 위원장은, "'폐교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행정, 교육, 지역사회,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학생과청소년(<http://www.theyoungtimes.com>)

다. 제3차 회의 개최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3차 회의 개최 안내

< 요약 >

- (일 시) 2023. 5. 23.(화) 11:00~12:00 (60분)
- (장 소) 충청남도의회 3층 세미나실(303호)
- (참석대상)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충청남도의회
(교육 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3차 회의 개최 안내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I 회의개요

○ 일 시: 2023. 5. 23.(화) 11:00~12:00 (60분)

○ 참석대상: 편삼범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II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 개회, 인사말 및 회원 소개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사회: 간사 양형우
11:10~11:30	20'	○ 폐교 재산 활용 연구용역 착수 보고	서혜승 이사장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11:30~11:55	25'	○ 연구용역 제안사항 토론 (질의응답)	연구모임 회원
11:55~12:00	5'	○ 마무리 및 폐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Ⅲ 회원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간 사	양형우	합덕여자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회 원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한상화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회 원	이영란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교수	
회 원	유장식	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회 원	박정만	보령시 호도 어촌계장	
회 원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회 원	이종우	당진 원당초등학교 행정실장	
회 원	최현숙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차기택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회 원	김윤경	청파초등학교 행정실장	

연구용역 제안내용

용역명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목적 및 필요성	가. 학령연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교 및 학교 통·폐합 등 이적지 및 저이용 부지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토지 활용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나. 학교는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전·재배치 시 공공재 역할 담당을 위한 입체적·복합적 공간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개별 학교 부지에 대한 지엽적 검토가 아닌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 - 교육수요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는 다양한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 마련
주요내용	가. 학교이적(예정)지·폐교 활용 사업 모델 구상 나.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 마련(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방안, 관련 지원사업 연계방안, 기타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등)
결과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가. 폐교활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과거 지역의 중심이었던 학교 본래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이 빈번하게 유입되는 충남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융복합적 시설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지역의 차별화된 미래상을 제시함 다. 폐교의 지자체 매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역 정책 실현 및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성을 증대함

*** 연구기간 : 2023. 5. ~ 2023. 8.**

▶ 추진일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 간				5월			6월			7월		
세부내용				8월								
가.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나.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분석												
다. 이적지·폐교·저이용부지 유형 분석												
라.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 보고회 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2023. 05. 23.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1. 과업개요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 과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 시간적 범위 : 2023. 05. 19. ~ 2023. 09. 15.
-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도내
- ☒ 내용적 범위 : 학교 이적(예정)지·폐교 활용 사업 모델 구상,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 마련(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방안, 관련 지역사업 연계방안, 기타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등)
- ☒ 계약금액 : 금12,690,000원

과업배경 및 필요성

가.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교 및 학교 통·폐합 등 이적지 및 저이용 부지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토지 활용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나. 학교는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전·재배치 시 공공재 역할 담당을 위한 입체적·복합적 공간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개별 학교 부지에 대한 지엽적 검토가 아닌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

- 교육 수요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요구 및 여건변화에 맞는 다양한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 마련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재생 + 융복합 관광시설 + 정책실현 및 공적기능 수행”

2. 추진일정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예정공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세부내용	기간	5월	6월	7월	8월
가.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나.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분석					
다. 이적지·폐교·저이용부지 유형 분석					
라.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 보고회 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 ✓ 이적(예정)지 · 폐교 발생 현황 조사
 - 저이용 학교 부지 발생 추이, 기 부지 활용 방안 분석

✓ 향후 전망

- 인구 구조, 교육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 공간 수요 변화 전망

☑ 국내·외 선진 사례 검토 분석

- ✓ 선행(유사)연구 조사 · 분석
 - 개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분석 내용을 종합한 시사점 도출

- 전체 이적지 · 폐교 시설의 장래 활용 방안 도출

☑ 이적지·폐교 저이용부지 유형 분석

- ✓ 이적(예정)지 · 폐교 시설 현황 조사
 - 상위계획, 관련 법령 등 제반 기준 검토

✓ 주요 이슈 도출 및 유형화 기준 마련

- 소유, 이해관계자(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 입장 등 고려. 규모, 부지형상, 입지특성, 개발제한사항 등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 가이드라인 수립

-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 근거 확보
-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판단기준 마련

✓ 활용모델 제시

-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방안 제시
-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재원확보 방안, 사업방식(주체) 등 적정모델 제시

✓ 종합 전망

- 예상 문제점, 제도적 한계, 개발 잠재력 등 제반 현황 분석 및 전망
- 리스크 관리방안 및 향후 과제 제시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Learning Journey Platform, 충남형 폐교

학습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제3차 모임 회의록

★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과제: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 지역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마련)

□ 모임 개요

- ▶ 일시: 2023. 5. 23.(화) 11:00 ~ 12:00
- ▶ 장소: 충청남도의회 3층 의회 회의실(303호)
- ▶ 참석자: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7명(미참석 6명)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외 3명 참석
- ▶ 회의내용: 폐교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자유토론



●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발제자)

1. 충남교육청의 폐교 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2.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 ▷ 한지아 연구원: 안녕하세요 체험학습 연구개발협회 한지아 연구원입니다. 제가 과업에 대한 내용을 짚막하게 설명드리고 김영아 박사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업명은 충남형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보령시 폐교 활용 모델로 처음에 지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형으로 더 많이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착수를 진행해서 9월 15일까지의 과업 내용을 완수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폐교가 22년 기준으로 53개 폐교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의 모델을 가지고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학교 이전 예정지 그리고 폐교 활용 사업 모델 구상, 부지별 허용 기본구상 사업화 방안 마련 등 지역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 ▷ 과업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폐교 통폐합 이적지, 저유용 부지 증가 등에 따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이용 활용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공공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폐교 활용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융복합 관광 시설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 실현 및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니다.
- ▷ 예정 공정표입니다. 저희 과업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착수 보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그리고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분석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입니다. 폐교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정책 방향과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 공간 수요 변화를 전망하고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생 협력적 활용모델 구상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활용모델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예산 문제점이나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종합 전망을 도출하는 게 저희 과업의 내용입니다. 학습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하듯 러닝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라는 기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이상의 것들을 도출해내면서 지역 활성화의 여정으로 또 학습의 하나의 여정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공유하셨다고 말씀 주신 내용도 저희가 좀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아 박사님께서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앞서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회님들께서 어떤 중심의 대화가 나눠졌는 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는 과학으로 문화

재생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기존 폐교 활용에 관한 대개의 연구들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연구들의 대부분이 주거 환경 그리고 농촌 계획 관련되고 교육학이나 혹은 관광적 관점에서 접근해 온 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교육공학하고 관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기존 비교들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문화재생 내지는 지역사회에 환원을했을 경우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농촌종합개발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복합센터들을 활용한다거나 관광적인 곳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폐교를 잘 활용하는 방안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저희들이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영란 교수: 연구용역을 기관에 의뢰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착수 보고서를 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차 회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착수 보고서 날이거든요. 사실 보도 자료에 이미 우리 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 다는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심찬 연구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이 사업은 정책 개발 사업으로 의회에서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하기 전에 저희 연구진들에게 어떤 방향의 제안이 필요하겠냐 해서 심사를 거쳐서 2천만 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로 계약이 된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 2회를 몰랐던 것은 제가 이 모임에 대해 듣고 오기로는 착수 보고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 모임에 맞춰서 저희들도 착수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간단하게 착수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착수보고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나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와서 그것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1,200만원 짜리 사업인데 착수보고라고 해서 그냥 오셔서 데이터가 정말 없는 듯합니다.
- ▷ 김영아 박사: 이 사업이 확정된 지가 며칠 안 되고 착수 보고를 지난주에 우리가 냈나요? 네 지난주에 내고 오늘 이 행사에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착수가 진행된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제시를 하고 다음 우리가 과업 전체 기간중에 저희들이 오늘 회원님들의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고회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오늘 착수 보고는 착수했다는 걸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절차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더라도 사전 조사가 있어야지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착수 보고서 날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과업명은 어떻게 지정된 것인가요? 과업명을 정할 때 우리 연구 모임하고 상의가 된 것이지 궁금합니다.
- ▷ 김영아 박사: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폐교 활용 연구를 하니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원래 이 사업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최적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의 개념이 아니고 모임에서 제안하는 사업, 그러니까 회원님이 제안하는 사업에 심사를 받아서 이 조건으로 연구를 해도 좋겠다 하시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회원님들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일반적인 연구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발주하는 일반적인 연구 사업은 입찰을 한다거나 수의 계약을 하고 나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착수 보고만 하는 게 맞는데 이번 건은 세미나 형식의 다른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연구모임하고 전혀 연결이 안되고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상황이 이상합니다.
- ▷ 도의회 주무관: 연구용역은 정책 개발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원님 연구 모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며 연구용역 관리를 따로 공무원 2~3명 와서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연구 모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용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김영아 박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에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 저희들이 조금 인지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말씀에 따르면 연구모임에서 이 용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를 낼 때 네 우리한테 주지는 않았죠.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과업명을 이렇게 정한다고 회의가 이루어지진 아닌 것 같은데 과업명이 정해져서 이상할 따름입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저도 여기에 오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영란 교수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과정은 정리가 되어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좀 놓친 부분인 것 같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섬도 갔다 오고 해서 폐교의 활용 그리고 폐교가 되어도 2~3년이 있어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보다 우선으로 폐교 위기 극복 방안은 또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업명과 기본구상이 정해져서 보고회가 이루어지니 저와 모임의 생각이 과업에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그리고 폐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신념과 철학을 놓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모임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고 교육 장소로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용역에서 소득 증대 사업만 눈에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교육의 철학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기초 데이터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 ▷ 김영아 박사: 주신 말씀으로 우선 저희 연구진도 소득 증대 방안으로의 접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학교들의 원래 원 토지 소유주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 임의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원래 기부를 했을 당시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했던 그 목적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소속 사업으로 정의된다면 원래 기부 취지하고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청에서 폐교들을 입찰을 하거나 공매를 해서 일반 개인한테 소유가 가게 되면 나중에 이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비용으로 학교를 조성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되도록 이 시설이 지역 주민의 네트워크나 어떤 역할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나 지금 학령기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학교나 또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 향후에 이 학생이 다시 늘어났을 때 학교를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이 폐교가 유지돼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방안 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란 교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의회에서 우리한테 과업이 이렇게 정해져 왔지만 저희들이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내용을 수정도 하고 그리고 또 연구의 방향도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처음에 이 연구 모임을 할 때 폐교 활용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는데 폐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섬 지역 폐교와 분교를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이 학교를 폐교를 안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와 행정적인 지원으로 주민과 화합이 이루어져 인구가 유입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 김영아 박사: 말씀하신 사례들 중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성공 모델로 나오는 것은 통영에 한국 예술학교를 유치해서 학생들도 거기 많이 와 있고 또 지역사회에도 어느 정도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교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교수님 그게 제시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소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가 지역 소멸 위기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도 광명초등학교를 폐교로 몰고 가지 말고 폐교를 극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한다면 보령시에서 원산도의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딸린 사람들이 이주해 왔을 때 지원책과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구 유입에 따라 학교를 지어주고 학습 자료도 지원하고 해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를 하고 주민과 서로 융합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섬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 하면 애들을 데리고 우리 섬으로 가자. 이렇게 섬에 왔을 때의 그 학교는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30명 미만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 ▷ 김영아 박사: 현재 시골에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학교들의 예를 들면 이천 지역에서 농촌 학교는 유학 형태로 도시에서 학생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형태의 학교들을 만든 경우들도 있고 말씀하신 원산도 광명초등학교에 이런 고민은 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도시민 유치 지역으로의 인구 유치 정책과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광명초등학교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는 먼저 일자리 제공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한 지원이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지원해 주는 제도들은 여러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효과가 좀 부족합니다. 최근에 사회학 연구들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성의 일자리만큼이나 여성의 일자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활용할 방안은 조금 너무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여도 그들이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 2차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이미 다 고민을 했었던 내용들이고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제2의 제3의 프레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미 폐교만 아니라 위기 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심도있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방향의 착수보고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지금 우리 박사님이 하시는 그것은 큰 틀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주민이 왔을 때 바지락을 같이 공동 채취하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 또, 숙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학교 기숙사를 일부만 사용할 경우 이주민 숙소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협조가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보령시는 바지락을 10년간 매년 1억 원씩 종패 대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주민들과 같이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원산도 같은

곳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정식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리가 만들어 진다면 시내 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것입니다. 보령의 섬 폐교를 학생 충남 교육청이나 보령교육청이 이용해서 서울교육청이나 서울시하고 연계하여 연수원 자리라든가 캠프장이나 학생들이 해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은 큰 산업적으로 계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모임의 생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 ▷ 김영아 박사: 과업에 대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 복잡하겠지만 제 생각에 회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쳐 회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과업을 새로 정해서 방향으로 수정하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폐교 때문에 모임을 했는데 폐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폐교 위기 극복하는 방법도 이것도 하나의 큰 모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괜찮은 과업인 것 같습니다. 폐교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회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새로 과업 명을 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이걸 지금 이거부터 끝내고 다음번에 이걸 발표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의원님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첫째 주제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교를 위기 극복하는 거라든지 폐교를 시켰을 경우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지역사회 소득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릅니다. 저는 폐교를 시켰던 장본인 중에 한명 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여러 학생이 없어 폐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폐교를 시키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개인이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활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교육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교를 시켰을 경우에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무를 맡았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재활용에 어렵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 구제와 폐교의 활용이나 지역 소득 증대 방안 등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정말 죄송한데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 협회가 이 업무를 맡는다는 전제하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 인가 궁금합니다. 조금 실례될 수 있는 표현인데 저희들이 1~2차에 걸쳐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해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직접 못하시는 거고 이렇게 못하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우리 모임의 방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 연구용역에 우리가 거꾸로 보고하는 형태가 된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 ▷ 김영아 박사: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봐도 이 상황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듯 합니다. 1, 2차에 세미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있으신 것을 몰랐고 저희에게 의뢰가 올 때는 그냥 견적서와 제안서 제출 형태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원점에서 제 검토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고 그걸 검토하신 다음에 괜찮다고 하시면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업체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의회 사무처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고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회원님들한테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에 용역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은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 우리 모임 회원님들의 의견과 관련자료를 수집·보강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험학습 연구 개발 협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부분에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이유가 있어서 1대 1로 수의계약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모르고 오셨으니까 체험학습개발연구협회에서 우리 연구 모임의 방향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유사한 사례들이라든지 방향성을 조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김영아 박사: 저희는 교육부 산하의 공익법인입니다. 일반 사단법인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의 공익법인이라서 우선 지역 교육 격차의 문제 그리고 또 농촌 지역 혹은 교육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1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기존의 재량활동,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대한민국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를 11년간 진행했었고 작년에 우리가 당진의 솔뫼 성지에서 성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관광 지역

사회 교육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을 통해서 학교 부지들을 관광으로 활용한 사례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교육으로 진행한 부분들은 이천, 여주 지방에 협력해서 교육의 키워드였고 저희들이 애초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 내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계 쪽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역사회 교육을 살릴까 고민도 하고,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20여 년간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학교 살리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위한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사업들은 주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만 주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령에 3천평 규모의 연수원을 조성을 했어요. 지금 충남교육청하고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 무료로 모든 공간들을 빌려주고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서강대학교에 있는 정건영 교수님의 발달장애 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한울타기라는 프로그램을 충청도 45곳에서 하고계신데 저희가 2년을 해오던 관계라서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또 교육 격차를 느끼는 아이들에게 저희 시설이 충청도에 있으니까 좀 가까워서 협조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연구 의뢰가 들어왔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해주지 않겠냐라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는 4 ~ 5천 정도 들어도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정책 연구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다른 연구가 이 연구를 인용할 것이고 또 각 시군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이나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 한상화 의원(당진시의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장식 전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보충하자면 전국에 있는 폐교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충남에 맞게 충남에 있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먼저 받으시고 산지에 있는 학교 어촌이라든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남형, 지역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좀 늦게 오신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 이사장님과 도교육청 재무과 최현숙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서혜승 이사장: 제가 늦게 와서 앞에서 진행된 부분데 대하여 체크를 못했는데, 사실은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받았고 이 주제에 맞게 제안서를 드렸고 제안서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여 반영하였고, 저희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1, 2회 모임의 정보를 못들어서 이렇게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 주시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여 의미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한상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세밀한 연구용역이면 몇 천 만원을 해야하는데 1,200만원의 금액 가지고 어떤 효과를 도출해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합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거의 대한민국이든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꼭지만 따면 되겠지만 정말로 폐교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그건 진짜 그 지역의 큰 하나의 제안이 되고 정책 제안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과 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산도 같은 곳은 지금 폐교를 안시키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명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저런 방법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이주민들이 왔을 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은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영아 박사님이 참고를 해야 되는게 단순한 정책이나 연구용역 등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진하고 태안하고 보령호 서천은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발전소에 30% 이상의 유형 사업이라는 게 법률에 있어요. 그런 발전소도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활성화 방안 이런 것 한 부분을 다루어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폐교 위기 극복도 되고 폐교 활용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과업명을 수정했을 때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과제는 지금것으로 하되 소과제로 정해서 좀 어려워도 당진형, 보령형, 서천형, 태안형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폐기와 폐기 의무 위기 극복 발전소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법률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인구 유입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것과 맞물려 가지고 학생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충북의 교육위원회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서울 교육위원회와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있는데 그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해서 시골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겨줘야 되고 우선적으로 기본 소득이 보장이 되어 하기에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보령시, 당진시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임정은 주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큰 과제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연구를 진행하실 때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우리 회원님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연구원들이 회원님들을 좀 수시로 뵙고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여쭙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폴더를 하나 공유를 해서 회원님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어떤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감사하고도 이 유기적으로 연락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령 섬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는 다녀왔고 폐교 위기의 학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장식 전 교육장님이 폐교 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셨으니까 다음에 당진, 태안 쪽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둘러보는 일정을 잡았으면 하고 그때 참여할 때는 연구용역에서 같이 참여하여 실질적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진에서 폐교를 시켜봤고 또 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활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진에 초락초등학교라고 아이들이 1 몇 명밖에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공모제로 하여 받았어요.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폐교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 교장 그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 첫 번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피아노 바이올린 등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굉장히 멀지만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연구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우리 주무관님한테 요청을 하셔서 참고하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좋은 방향 정책도 마련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오늘 자료를 검토 하고 챙겨보고 했어야 하는데 간사님이 보내신 자료가 문제가 없을 거라 믿고 진행하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오늘을 되새겨 더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 ▷ 양형우 간사: 처음에 연구용역 발주 제안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한사항이 협의가 됐고 그래서 제안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 등 연구용역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섬 지역에서 폐교 전에 위기를 먼저 극복하는 방향이 더 필요하다거나 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활용하는 방법 등 회원님들의 생각을 더 반영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의회와 우리 연구모임과 용역업체간 소통이 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리를 마련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저도 이 연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충남형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맞춤형 모델화만 만들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형, 당진, 보령 이런 지역별 모델을 만들면 이게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들었던 바가 없어 좀 의문스러웠던 거 여쭙보았던 것입니다. 해오신 일이 많으니까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저희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우리 회원님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이 연구 잘 되면 시군의 인구 정책 방향의 틀이 될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연구용역의 완료가 9월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모여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6월 10일부터 의회 일정이 있어서 회원님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그 전에 한 번 더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3차 연구 모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및 제4차 회의 안내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및 제4차 회의 안내

< 요약 >

- (일 시) 2023. 6. 5.(월) 10:30~14:00 (210분)
- (장 소)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아미미술관
- (참석대상)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재보고
 -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충청남도의회
(교육 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및 제4차 회의 안내

- ◆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재보고
- ◆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I 회의개요

- 일 시: 2023. 6. 5.(월) 10:30~14:00 (210분)
- 참석대상: 편삼범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재보고
 -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II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1:00	30'	○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당진외국어교육센터(자체활용)	연구모임 회원
11:00~11:10	10'	○ 개회, 인사말 및 회원 소개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사회: 간사 양형우
11:10~11:40	30'	○ 폐교 재산 활용 연구용역 착수 재보고	김영아 박사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11:40~12:00	20'	○ 연구용역 제안사항 토론 (질의응답)	연구모임 회원
12:00~12:05	5'	○ 폐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12:05~13:30	85'	○ 이동 및 점심 식사	연구모임 회원
13:30~14:00	30'	○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아미미술관(개인매각)	연구모임 회원
14:00~		○ 해산	

회원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간 사	양형우	합덕여자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회 원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한상화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회 원	이영란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교수	
회 원	유장식	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회 원	박정만	보령시 호도 어촌계장	
회 원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회 원	이종우	당진 원당초등학교 행정실장	
회 원	최현숙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차기택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회 원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회 원	김윤경	청파초등학교 행정실장	

첨부1 방문 폐교 현황

당진외국어교육센터(면천초 죽동분교) 현황

I 학교 연혁

- ☐ 1958. 04. 28 면천국민학교 죽동분교장 개교
- ☐ 1994. 03. 01 면천국민학교 죽동분교장 통·폐합
- ☐ 2005. 07. 27 당진외국어교육센터 개원

II 교직원 현황

구분	교사(초,중)	교사(원어민)	급식업무	시설담당	공무직	합계
당진외국어교육센터	2	3	2	1	1	9
총계	2	3	2	1	1	9

III 시설 현황

■ 면 적

[단위: m²]

위치	면적	동번호	연면적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347-1	11,397	6개동 (교사, 숙직실, 급식실 등)	1,946.76

■ 건 물

건물명	건축연도 (준공연도)	건물구조	층수	안전 등급	내진성능 확보	석면 여부	비고
교사동	2002	철근콘크리트	1	정기점검 B등급	미확보	미석면	
숙직실	1958	벽돌구조	1	정기점검 B등급	비대상	미석면	※ 40년 경과 관리대상시설
예절실	1989	시멘트블록	1	정기점검 B등급	비대상	미석면	
샤워장	1994	벽돌구조	1	정기점검 B등급	비대상	미석면	
급식실	2004	경량철골구조	1	정기점검 A등급	비대상	미석면	
체험학습장	2009	철근콘크리트	2	정기점검 A등급	비대상	미석면	

 운영 유지 등 사례

- 당진외국어교육센터는 당진교육력신장협의회 당진교육과정 의견 수렴과 당진군청지방자치단체이전보조금 지원으로 개원
- 외국어 체험 학습장을 활용한 실용 외국어 사용 능력 향상
-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및 우수 학생 육성으로 지역 발전 도모
-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통한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 영어, 중국어 초등 일일캠프 운영(약 25명 내외, 관내 초등학교 대상)
 - 실용영어 및 중국어 활용 능력향상 및 해외 문화 이해
 - 상황 및 주제별 외국어 회화 능력 향상(영어 및 중국어)
 - 외국 소설 읽기 및 스킴 향상 프로그램(문화 다양성 및 상대성 존중)
- 시청 직원 및 학부모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 중등 영어 독서캠프 운영

첨부2 방문 폐교 현황

아미미술관(구 순성초 유동분교) 현황

I 학교 연혁

- ☐ 1967. 03. 01 성북 분실, 유동 국민학교 승격
- ☐ 1992. 03. 01 유동국민학교가 순성국민학교 유동분교장으로 개편
- ☐ 1993. 03. 01 순성국민학교유도분교장 폐지(순성국민학교 통합)
- ☐ 2000. 09. 05 폐교재산 매각(박○○)

II 시설 현황

■ 면 적

[단위: m²]

학교용지		건물연면적	
위치	면적	동번호	연면적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15,430	8개동	957.48

■ 건 물

건물명	건축연도 (준공연도)	건물구조	층수	안전 등급	내진성능 확보	석면 여부	비고
1동(전시장)	1966	철근콘크리트	1	-	-	-	
2동(사무실)	1971	조적조	1	-	-	-	
3동(사무실)	1974	조적조	1	-	-	-	
4동(화장실)	1972	조적조	1	-	-	-	
5동(전시장)	1967	일반목구조	1	-	-	-	
6동(일반)	1969	조적조	1	-	-	-	
7동(작업장)	2014	경량철골조	1	-	-	-	
8동(창고)	2014	컨테이너	1	-	-	-	

Ⅲ 기타사항

■ 운영 유지 등 사례

- 2011년 개관한 아미미술관은,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사라져가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건축, 문화, 풍속, 생활상 등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개방하는 생태미술관을 지향
- 작가 박기호, 설치미술가 구현숙이 가꾸어왔으며 평소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기획적을 유치하며, 작업실은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품활동실과 전시 및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주관
- 약 40여회의 기획적 및 다수의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20년 복합문화 공간 메종 드 아미 개관 및 한옥프로젝트 운영
- 한옥은 전통가옥을 복원하여 선조의 생활도구 및 생활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연구실은 2000여권의 일반 교양, 미술, 철학, 종교 서적을 비치하며 200여점의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장중
- 전시실은 총 6실로 구성(야외전시장, 한옥, 실내전시실, 카페, 복합문화공간, 산책로)

제4차 모임 회의록

★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과제: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 지역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마련)

□ 모임 개요

- ▶ 일시: 2023. 6. 5.(월) 10:30 ~ 14:00
- ▶ 장소: 당진외국어교육센터(아미행복교육원), 아미미술관
- ▶ 참석자: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1명(미참석 2명)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외 3명, 당진교육지원청
김경하 경리팀장, 당진교육지원청 류근탁 주무관 참석
- ▶ 회의내용: 당진지역 폐교 활용 현장 방문,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재보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시행계획

2023. 06. 05.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1. 과업개요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 과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 시간적 범위 : 2023. 05. 19. ~ 2023. 09. 15.
-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도내
- ☑ 내용적 범위 : 학교 이적(예정)지·폐교 활용 사업 모델 구상,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 마련(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방안, 관련 지역사업 연계방안, 기타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등)
- ☑ 계약금액 : 금12,690,000원

과업배경 및 필요성

가. 학령연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교 및 학교 통·폐합 등 이적지 및 저이용 부지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토지 활용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교육수요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요구 및 여건변화에 맞는 다양한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 마련

나. 폐교 위기 극복 요인을 탐색·진단하여 사전에 폐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통합적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공동체 및 학교·민·관·기업의 유기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제시 필요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학교역할) 재생 + 정책실현 및 공적기능 수행 + 유기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2. 추진일정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예정공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세부내용	기간		5월	6월	7월	8월			
가.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나.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 분석									
다. 이적지·폐교·저이용부지 유형 분석 및 폐교 극복 사례 유형 분석									
라.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 보고회 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국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193개 폐교...89%가 비수도권 집중

기사일련: 2022-10-13 13:13

2018~2022년 4월까지 193개 폐교...수도권 22개
선정학교 54%는 수도권...교육격차 심화
강득구 "폐교 말고 지원 늘려야"

최근 5년간 수도권·비수도권 폐교 현황



1. 서론

- 가. 충청남도 폐교현황
- 나.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등의 폐교현황
- 다. 폐교발생과 지역사회의 패러다임
- 라. 지역맞춤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2. 이론적 고찰(배경)

가. 국내 폐교활용 사례

나. 해외 폐교활용 사례

다. 패러다임의 변화_폐교활용에서 폐교위기 해결방안

라. 폐교위기 해결 사례



출처 : wegive(위기브) 2023.03.17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전남교육청, 2022년도 '폐교를 지역민에게' 8곳 추진

주 문장영 기자 | © 송민 2022.01.11. 08:08 | @ 닷글 0



#폐교를_지역민에게

#공감센터

#체험공간

#복지시설

#공공시설지역발전거점

‘폐교를 지역민에게’는 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와 협력해 폐교를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해 개방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매각 또는 대부’ 위주로 진행됐던 폐교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폐교 활용모델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은 △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감센터 △ 온가족이 함께하는 학생 체험 공간 △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 복지시설 △ 마을공동체 공공시설 지역발전 거점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추진된다.

출처 : NDK남도경제신문(<http://www.ndknews.com>)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해남군 '폐교 위기' 복일초중 살리기 성공

가시인력 2022-02-23 01:00:06
가시수정 2022-02-22 11:02:06

가시



폐교 위기인 복일초·복일중 학생모집 캠페인을 펼친 결과 새 학기를 앞두고 22가구 97명이 이주를 완료했다. 이들은 리모델링한 빈집에 터를 잡고 해남군민이 됐다.

복일면에서는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학생 모집 캠페인을 했다.

특히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연계해 전교생 해외연수와 함께 공부방 꾸미기 비용지원, 온종일 무료 돌봄 등 '복두칠약'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학교 살리기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00여명에 가까운 도시민들이 해남에 정착하게 됐다"

- #민관학 협력
- #빈집 리모델링
- #지역일자리 연계
- #전교생 해외연수
- #공부방 꾸미기 비용지원
- #온종일 무료 돌봄 '복두칠약'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포착! 현장기] 폐교 위기 시골 학교 '도시유학생으로 활기' / KBS 2023.03.27.



- #도시유학생
- #산촌살이
- #산골유학
- #산골생태유학지원센터

강남엄마, 학원 대신 시골 선택한 1년후 속마음은? | KBS 다큐 인사이트 - 그들이 유학 왔다! 곡성 침공 I 230202 KBS1 방송



전라남도 곡성은 군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2021년 곡성을 통틀어 태어난 아이는 44명에 불과하다. 자연스레 초등학교도, 초등학교가 다닐 학교도 점점 사라지는 상황.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힘을 모아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유학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를 한 학기 이상 다니는 조건으로 서울 유학생을 모집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 수업만 받던 유학생들이 곡성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만끽하게 됐다. 학령인구가 늘어나며, 곡성의 기존 재학생들 역시 다니던 초등학교를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환경

옛 반여초 폐교, 지역 환경교육 거점 '에코스쿨'로 활용

환경부·부산시·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청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업무협약 체결

총사업비 429억 원 투입...2024년 개관

이수형 기자 입력 2022.01.03 15:17 수정 2022.01.03 15:18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고(교)부서

영남+ |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

폐교 위기 살린 '농촌 유토피아' 성공 모델...일자리·주거 결합

경남CBS 최호영 기자 ☎ | 2021-02-27 17:00

 뉴스듣기

0 0 가 0

주거·일자리·생활 편의시설(SOC)이 결합된 단계별 사업

주택임대과 청년창업공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마련한다. 그다음으로 SOC연계형 공모와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 6차 산단 조성, 일차의 연계형 전원주택 조성, 은퇴자 등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을 진행한다.

#국가환경체험교육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에코스쿨

#환경교육도시

#농촌유토피아

#SOC연계형

#지역수요맞춤형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농어촌 폐교위가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유류교실을 통해 노인주관보호 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 하고 이용노인이 그들의 가족 및 지역관계를 긴밀히 유지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고립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여러세대와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축적 장치와 연구가 필요하다.”

고혜경, 임영환. (2011) 어촌마을 연계를 통한 폐교위기 초등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복합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2: 113-114.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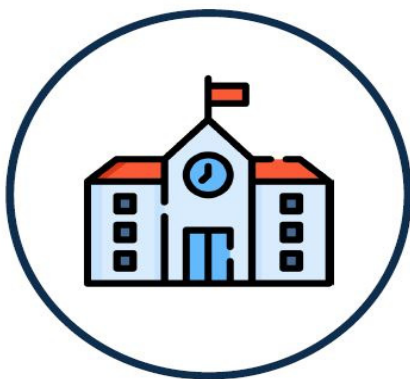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8개 마을의 임대주택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첫째, 마을공동체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폐교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마을공동체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비용이나 주거환경, 지역 리더의 역량과 주민의식의 차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더 머물기도 하며 중도에 떠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과의 연계나 지역사회에서 학부모의 일자리 알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셋째, 폐교위기 극복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향상, 마을공동체와 학교와의 협력,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의 융화, 마을 출신 학생과 외부학생과의 교류와 융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소통의 장애와 갈등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와해 등 부정적 효과들도 있다.”

노화동, 정석. (2015) 농촌마을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3: 45-54.

3. 세부 과업내용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3. 연구방법 및 분석

- 가. 폐교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고찰
- 나. 폐교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대응
- 다. 국내외 폐교 위기 대처 사례와 방향
- 라. 충남형 폐교활용 연구에 관한 방안
- 마. 폐교 위기 대응과 폐교 활용
- 바. 폐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의 대응

4. 결과도출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협력 MODEL 예시(안)



출처: 전라남도 자율형미래교육선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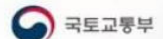
- ①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판단기준 마련
- ②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방안 제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자원 확보 방안, 사업방식(주체) 등 적정모델 제시
- ③ 예상 문제점, 제도적 한계, 개발 잠재력 등 제반 현황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 및 향후 과제 제시

사례 조사

폐교위기 대응 사례

2023 의원정책개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부터 협동연구과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금으로 75%를 부담
함양군이 25%를 부담
25억9천만원을 투입
주거플랫폼 사업
12가구 공공주택제공
거창군 2개소
남원시, 무주군 진행 중

함양 서하초등학교와 같은

**주거플랫폼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국토부-농림부 MOU를 통해 연내 10곳 내외 시범사업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범부처 협업사업으로 확대

함양 서하초등학교 사례

1단계
20

- 서하초 전입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2호) 공급
- 학생 수 약 3배 증가



2단계
21~

-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 공급



3단계
22~

- 6차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주택(100호) 공급

출처:국토교통부

함양군

소멸위기에 처한 읍면단위에

일자리+주거+생활soc+돌봄+휴양을 패키지사업

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

학생모심위원회 구성

서하초와 신 교장은 장원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하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 함양군청 ▲함양교육지원청 ▲함양군의회 ▲향우회 ▲동창회 ▲이장협의회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

자체 모금을 통해 1년만에 1억1,000만원 기금조성

지역 **전기차완성업체 에디슨모터스**

서하면 공공근로 일자리 연계

갈등요소

- ▲기존 학생 수보다 많은 전학생으로 인한 갈등 ▲도시 교육을 받은 전학생과 교사와의 갈등
- ▲지역적 문화 차이에 따른 학부모 간 갈등 ▲LH 입주주민과 비입주민 갈등
- ▲전입 주민과 원주민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 또 ▲재정과 프로그램 지속성 문제
- ▲신입생 및 전입생의 지속적 확보 문제 ▲주택과 일자리 공급 문제
- ▲문화, 의료,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 ▲초등 이후 중고등 연계 교육문제 등도 큰 과제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경북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 육성(2020~)

공모 대상은 도서벽지 및 먼지역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이며, 공모 내용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우수사례로 △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 사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 구현 사례 등

조마초등학교(김천)는 우수한 자연친화적 환경속에서 작은 학교의 특색을 살린 ‘조마공 LDW 역량 키우기 프로젝트’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조마교육을 실천해 2018년 5학급 규모의 학교에서 2022년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6학급 규모의 학교로 성장했다.

당포초등학교(문경)는 골프, 도예, 국궁 등 특성화된 11개의 방과후프로그램 운영과 모두가 V·I·P 되는 꿈키움 끼돌음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결과, 2021학년도 학생 수 24명에서 2022학년도 38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공감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 하는 운동회 등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육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청하중학교(포항)는 음악적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으로 1인 1악기교육과 연계한 관송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 조화로운 인성 함양과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STEAM 프로그램과 관송과학탐구반 활동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충남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 육성(2020~)

공모 대상은 도서벽지 및 면지역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이며, 공모 내용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우수사례로 △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 사례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 구현 사례 등

아산 쌍용초등학교, 부여 내산초등학교

● 학급 및 학생현황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유치원
학생수	남 5 여 2 계 7	남 5 여 3 계 8	남 9 여 1 계 10	남 6 여 4 계 10	남 4 여 3 계 7	남 6 여 3 계 9	남 35 여 16 계 51	남 3 여 4 계 7

● 교직원 현황

교직원	교장	교감	보조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행정실장	행정계장	공무직	계
남	1	-	2	1	-	-	1	1	6
여	-	1	-	4	2	1	-	7	15
계	1	1	2	5	2	1	1	8	21

● 학생수 및 학급 편제(2023.3.1.)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1)
학생수	남 1 여 3 계 4	남 4 여 0 계 4	남 7 여 2 계 9	남 3 여 1 계 4	남 2 여 4 계 6	남 7 여 3 계 10	남 24 여 13 계 37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내서중학교

학력 향상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승부

방과후 교육과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는 밴드, 주제학습반, 목공반, 도예반, 클래식기타반 등이 있는데 강사는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학부모들이다. 또 동아리 활동으로는 밴드반, 영화토론반, UCC제작반, 클래식기타반, 만화반, 댄스반 등이 있다. 이 학교 상당 수의 학생들이 바로 이같은 활동을 보고 전학을 온 학생들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

는 감골제(학교 축제)를 열고, 사제동행의 날을 만들어 학생과 교사가 수시로 웃놀이 나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한다. 인근학교와 통합 체육대회도 개최한다.

□ 학생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고
외급수	1	1	1	3	
학생수	남 9 여 6 계 15	남 12 여 4 계 16	남 11 여 0 계 11	남 32 여 10 계 42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초등학교

학부모 혜택

1. 정착을 위한 빈집 무상 수리 제공 및 저렴한 임대 (월 10만 내외)
2. 정착을 위한 지역 사업 지원
- 지역민 수요에 바탕을 둔 저렴한 가게 터 확보.
3. 정착을 위한 100% 일자리 알선(고용 플러스센터 후원)
4. 재학생 전원 1:1 재능 교육 (인성을 최우선으로 둔 교육 진행)
5. 귀농/귀촌/귀어 성공을 위한 멘토링 사업단 지원
6. 청년일자리(만 49세 이하) 100% 보장
7. 향토 김장김치 / 향토미 제공
8. 귀농자 연간 60만원 지원
9. 장기 LH 임대주택 및 농촌유토피아 단지 입주

학생 혜택

1. 재학생 전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2. 입학생/졸업생 장학금(100만원) 지원
3. 읽고 싶은 도서 무한 지원
4. 갯벌 체험 등 4계절 생태 체험 활동
5.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
6. 지역 연계 마을교사 채용
7. 텃밭에서 키우는 '초딩 상추', '중딩 고구마' 등 로컬푸드 참여
8.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최우선 배치
9. 머물고 싶은 가정 홈스테이 년중 진행

이 모든 활동은 꾸밈없는 지역민들의 꿈이 담긴 제안입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땅끝 해남 북일은 두륜산과 주작산 아래에 자리 잡은 알려지지 않은 변방이지만 무공해 청정지역으로서 풍광이 아름답고, 인심 좋고 농수산물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초등학교

학교동문의 동문 후원금 4억 5천 모금

전국에서 입학 문의가 230여건 들어오더니 서울·경기·강원·충청 등에서 22가구가 지난해 12월 이곳으로 이사왔다. 그 덕에 북일초 학생 수는 54명(할머니 학생 제외)으로 훌쩍 늘었고 두륜중도 현재 학생 24명이 다니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가구가 전입하기로 했고 30가구는 대기 중이다. 자치회는 조만간 학생 수가 100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해남군은 북일초 사례를 현산면, 계곡면의 3개 초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항희 해남군 자치분권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예산 6억2천만원을 투입해 30가구 분량 빈집 수리비를 마련하고 학부모 일자리 알선, 유학 경비 등을 지원해 나머지 작은 학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자라분교

신안군은 인구 290여명의 작은 섬 안좌면 자라도의 자라분교가 올해 3월 학생 수 '0명'의 폐교위기에서 폐교 이행 기한이 연장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

군은 2021년 4월부터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 등 4개 섬에 첫 햇빛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는 임자도도 지급 대상이다. 자라도 주민들의 경우, 지금까지 **매 분기 1인당 최고 51만원까지 지급**

신안군 관계자는 "2024년이면 비금, 증도, 신의도에도 **햇빛연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전체 군민 4만여명 중 45%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햇빛연금 가중치 2배 지급, 만 18세 미만은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중학교

제천 송학면의 유일한 중학교인 송학중은 전교생 2명이 올해 모두 졸업을 하며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충북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최소 재학생 2명 요건을 충족해야만 학교 존립이 가능

지역주민 중심의 송학학교발전위원회 조직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학교를 홍보하거나 발전기금을 모으는 등 활동을 했고 선생님들과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송학초 6학년 학생들의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해 설득하는 등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그 결과 송학중은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3년 만에 신입생 6명을 유치

송학학교발전위원회(발전위)의 폐교살리기 계획을 보면 매년 10명씩의 입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올 해 1억5천만원, 내년 3억원, 후년 4억5천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동안 꾸준히 10명씩의 입학생을 확보하려면 최소 9억원의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

충청북도 옥천군 대정분교

대정분교와 함께 연합교육과정(꿈프데이)을 운영하는 증악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육과정을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플룻,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을 포함한 14개 수업을 방과 후 지원사업 예산으로 운영해 전교생이 전액 무료로 배우고 있다.

주민들도 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지역 기관·단체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올해 증악초 입학생 13명 전원에게 계좌당 5만원이 든 '새 싹통장'을 만들어 선물했다.

해마다 졸업·입학식 때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2층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크고 작은 후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도시 소멸 위기 속에서 도서벽지에 있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이 지역 특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으로 '꿈의 학교'를 실현하고 있다. **작지만 큰 행복 배움터를 목표로 학교와 마을 등 교육공동체가 노력해 폐교 위기를 극복**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자연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독서·영어 특화 교육 등을 도입했다. 농촌과 어촌을 배후에 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나무 클라이밍과 서핑, 바닷가 자전거 라이딩 등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정규 교과 시간에는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 자연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활용해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고 방과 후 코딩수업, 전교생 영상 영어교육 등을 마련했다. 그 결과 현북초 재학생은 2020년 16명, 2021년 27명, 2022년 4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경상남도 남해군 섬(신수도) 삼천포초등학교 신수분교

남해군과 교육청 등이 협력해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최신 시설을 갖춘 고급 주택을 싸게 임대

자연 생태학습 등 양질의 커리큘럼을 도입



충청남도 청양 수정초등학교

인성교육·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의 힘으로
2017년에는 전교생이 62명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71명으로 늘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전국 100대 방과후학교 우수학교에 선정
소규모 시골학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십분 살린
무학년 형제자매 활동,
학부모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 캠프 활동,
하루 1시간 씬(,)이 있는 행복놀이 등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이 이어지는

수정초등학교에서는 지난 3년간 학교폭력 발생이 한 건도 없다

신용섭 교장은 “수정초등학교가 이렇게 주목받는 학교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그 중심에 국악 프로그램인 ‘예술꽃 씨앗학교’가 있다.

수정초등학교의 예술꽃 씨앗학교는 7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은 장구·가야금·난타·민요·판소리·출사위·해금 등 다양한 국악을 통해 전통문화를 새롭게 알아가며 저절로 국악 사랑과 자신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는 설명

충청남도 청양 가남초등학교

2009년 전원학교로 지정되면서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전원학교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교실을 황토방과 편백나무로 꾸미고 운동장도 천연잔디로 교체했다. 농촌에서 보기힘든 골프연습장에 첨단 기자재를 갖춘 영어 교실과 역사관 건립, 가람교육센터 신축, 야외 학습장 등 교육환경을 일신했다.

가남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를 잘 활용해 2018년에는 충남다우리 이중언어학교를 운영

수년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특수학생 맞춤형 체력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배드민턴은 지난해 충남대회에서 우승했고, 2년 연속 전국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에서 3연속 수상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중앙초등학교

전남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시·읍 지역 학생이 먼 지역 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한 제도다. 먼 지역의 작은 학교와 시·읍 지역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되 먼 학생이 시·읍 학교로는 가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 대신 먼 지역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스쿨버스를 운영하게 했다

학부모들이 묘량중앙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

첫째는 학교까지 아이를 직접 데려다주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피아노, 바이올린, 가야금, 컴퓨터 등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

제주도 애월읍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

제주 이주 열풍과 함께 마을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취학아동 가족을 모집하는 등 **‘학교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성공한 케이스

제주도 애월읍 금악초등학교

금악초등학교는 지난 2017학년도부터 4년간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이며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보·물·섬(보전하자 자연과 환경, 물려주자 소중한 제주어, 섬기자 향토문화)를 통해 그리고 현이 만드는 아름다운 울림 ‘악기여행’, 색채로 그리는 감성 ‘그림여행’, 들엄시민 고람시민 ‘톡톡영어’ 등 다채로운 교과과정을 운영

소통과 공감의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인 학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힘써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고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제주도 조천읍 선흘초등학교

도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으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실험했으며, 이후 마을,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흘분교장을 **‘건강생태학교’**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중학교

2004년 후반기에는 전자도서실을 확충하여 독서 및 논술 능력을 향상

2005년에는 과학실을 현대화했으며, 과학교육연구학교를 운영

2006년 기본학력 정착을 위하여 모둠별 상호 협력학습을 실시

2008년 성취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학력을 한 단계 올리려고 노력

첫째,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기금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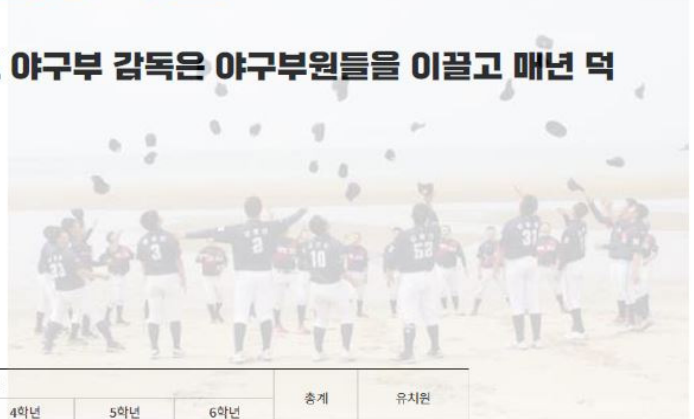
둘째, 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전학년 학비에 상응하는 장학금 지급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 옹진군 덕적고등학교

인천 출신의 김학용(72) 전 동산고 야구부 감독은 야구부원들을 이끌고 매년 덕적도로 전지훈련을 왔다.

체육특성화학교 추진

1. 야구부 창단 섬주민 서명운동
2. 건설업체 1억 후원, 주민 협조



학생현황

구분		초등학교						총계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인원	남		5		1	2	5	15	2
	여	2		2	2	2	1	13	4
계		2	5	2	3	4	6	22	6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인원	남	4(1)	7	1	12(1)	13	12	10(1)	35(1)	47(2)
	여	2	1	1(1)	4(1)	0	2	0	2	6(1)
계		6(1)	8	2(1)	16(2)	13	14	10(1)	37(1)	53(3)

감사합니다.

●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발제자)

1.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 재보고
2. 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 김영아 박사: 착수 재보고(중점 요약)

○ 충남형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 구상 수립

- 충남형 활용 모델 및 기본 구상 수립으로 진행함
- 지역사회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함
- 폐교 위기에 해결할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농산어촌에 적절한 그리고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로 인한 비교 사례를 충남의 어떤 지역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가이드라인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게 최종 도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 폐교 위기 대응 모델

- 경상북도 교육청이 만든 농어촌 참 좋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폐교로 가기 전에 바꾼 학교
- 충청남도교육청은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오게 하는 형태로 특화를 시킴
- 전라남도의 경우는 해남군 북일초등학교가 폐교 위기 대응의 또 하나의 모델인데 학부모와 학생의 각각 혜택을 분리해서 제공함
- 충북 제천시 송학중학교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접근을 먼저 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 임
- 제주도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제공함
- 옹진군 덕적고등학교는 스포츠의 특징으로 동산고등학교 야구 감독님이 나오셔서 야구부를 만드심
- 폐교의 위기에 변화를 줘서 지역사회로부터 거버넌스를 구축해내고 다양한 자금 지원과 협력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해줌

▷ 이영란 교수(청운대): 일단은 자료는 지난번보다 관심 있게 작성하셔서 감사드리고 한 두장 페이퍼로 요약본을 만들어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놓친 부분들을 피드백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사례들 중에 두 사례 빼고는 인구사회학적 분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환경 분석을 분명히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에 매각이 우리 충남에서는 힘듭니다. 3가지 옵션은 민간 매각이나 민간의 임대 또는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방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도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들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식은 어떻게 되는지, 지자체의 관심도를 거기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돈 많이 들이는 학교가 현존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주장의 내용입니다. 돈을 많이 들인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다른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서 학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훨씬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발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매각이나 임대라든지 지자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거와 같이 충남 같은 경우는 지역형 모델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도·농 복합지대기 때문에 예산 다르고 흥성 다르고 서천 다르고 천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연구용역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페이퍼만 만드는 걸로 끝내면 안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우리 체험학습 연구개발협회 김영아 박사님께 좋은 사례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불참을 해서 3차 회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주신 말씀 중에 좀 관심 있었던 거는 우리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님께서 지난번 도서 방문할 때 주신 아이디어랑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함양의 에디슨 자동차가 주거와 경제적 활동이 함께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충남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도서가 많다 보니까 도서 지역 폐교 문제도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필요한데 도서로 오시면 어촌계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촌계에 들어오시면 소득은 충분히 보장이 되지만 어촌계에서 받아 주시는게 쉽지 않기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도서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 어촌계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충남형 모델의 기본 구상이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어촌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오기가 힘든 지역이 이다 보니까 어촌계와 함께하여 고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디슨 자동차의 일자리와 주거 제공이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충남형으로 사례가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었지만 학교 공간을 닫혀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당진 아미산에 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기도 좋고 외국어 학습도 좋은데 더불어서 이 자연 속에서, 숲속에서 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교라는 닫혀 있는 공간의 틀에 있지 말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저는 이번 보고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보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월에 중간 보고와 9월에 완수보고인데 어떤 모델을 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 나아갈지 예시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업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지역별 위기 학교나 폐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연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사례가 우리 모임에서 보기에 너무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영호 위원님께서 충남형을 말씀한 것처럼 지역에 맞는 데이터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섬 지역 한 두명이 다니는 학교를 빨리 폐교 시키는게 좋은지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의 토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산도의 광명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인데 그 학교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나 그러면 아까 우리 이영란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행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하나의 충남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예를 들어보면 광명초등학교를 지금 12명에서 30명까지 늘려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해결을 위해 어촌계에 들어올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이주민들이 와서 바지락을 캔다던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방법을 만들어주는 행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도와줘야 하는 것 입니다. 주거시설은 학교에 관사가 여분이 있으면 이 주민의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원산도 같은 데 새로운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자리를 이주민들한테 제공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폐교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회 모임에 우리 회원님들이 장고도를 함께 가셨었는데, 저희 동네 장고도는 학생이 2명입니다. 과연 2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 D등급의 학교에 30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유지하는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네들이 육지로 나가서 육지의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 학교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떠난 학교를 지역과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서울교육청이라든가 충북교육청의 도심권에 있는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학습장이나 수련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답을 찾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두 명 학생이 섬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육지의 중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학업과 교우관계도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계속 6년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민과 지자체가 함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당진은 시청하고 또 서천은 군청하고 보령은 보령 시청하고 관계되는 자들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뭐를 하나 도출해내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실천이 가능한 폐교 활용이라든가 폐교

위기 극복이라든가 사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는 이런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을 모아 실천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폐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곳을 살리고 폐교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이주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주는 자녀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연 그런 시골 산촌, 어촌, 농촌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실제로 유입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이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 무거운 일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아이들이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주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은 충북하고도 연계를 하였고 서울과도 결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서울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 유학 이런 콘텐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적인 그런 것을 ‘오세요’보다는 ‘한번 체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유입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 아이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고 충남 내부적으로도 보면 모르는 아이들은 여전히 모르거든요. 여기 당진만 해도 지금 체험형 외국어 마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당일 무박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숙박형으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자연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 산업을 예상해 보면 우리나라 해양 콘텐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쿠아 라든가 아니면 해양 바이오 쪽의 산업,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갔었을 때 이 젊은이들은 육체 노동 같은 것을 많이 기피 하니까 가서 바지락 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체험으로는 부담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그걸 생업으로 한다고 하면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 보다 즐기면서 생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연동하는 유형의 모델이 제시가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거 관찰했네’라고 체험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래산업의 한 분야를 이끌어 소멸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영어마을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영어마을 콘텐츠가 거의 똑같으니까 매력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장학사님과 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영어마을이든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 공항 체험이었거든요. 도대체 아이들이 1년에 도대체 몇 번 해외를 나간다고 이 부스를 만듭니까? 이 지역에 맞는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섬이면 섬만이 갖고있는 유니크한 콘텐츠를 가지고 도시 아이들이 왔었을 때 ‘우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색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산촌은 산촌 농촌은 농촌대로 그런 특

징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면 각 지역의 콘텐츠로 인구 유입 또는 학교 공간의 활용에 도움이 되어 좋은 활용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폐교 활용 사례가 많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교육청 회원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 최현숙 주무관(재무과): 저는 처음에 기존의 폐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알았는데 위기를 극복해 대응 방안이 중점이 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교가 된다는 거는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소멸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또 지자체, 교육기관이 서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예산적인 부분의 반영도 가능한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지속성이 있는지 등 모든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기대반 우려반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모델이 나와서 폐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런 연구용역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었기에 기존의 연구용역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염려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지역의 그런 특색에 맞춰서 농촌, 어촌 등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행이 가능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충남교육청의 폐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신게 있어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기택 주무관(재무과): 회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자체하고 교육청, 기업체, 지역 주민들하고 폐교가 되기 전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협의회나 의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폐교가 발생했을 때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폐교가 발생한 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실은 그건 늦은 조치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서 부터 폐교 단계까지 체계를 갖춘 위원회나 의결기구에서의 협의와 각 단계에 따른 기업, 지자체, 교육청의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우 행정실장(당진원당초):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까 경주, 김천지역의 폐교 활용의 우수한 사례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청하다 다 보지 못하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진에도 폐교를 극복한 당산초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동 학구를 하는 학교가 이제 두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아까 여기 주무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그때가 돼서 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한다

는 건 상당히 늦다는 것입니다. 공동학군 개념으로 해서 통학차량을 운영을 하는 학교들은 그나마 폐교가 되고 협의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방안을 모색하고 통학차량 운영 방안과 특수한 프로그램 등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초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협의체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여가 된다면 사전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tv에서 본 내용으로 보서는 폐교 활용 방안들이 과연 댈 지자체나 교육기관 등 예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는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필사적인 대책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이미 졸업을 했고 폐교에 다니는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관심을 덜 갖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체가 구성되어 협력한다면 폐교 위기 극복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지원청): 저는 좀 느꼈던 게 특성화된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정되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한다 그러면 A 학교에 갈 애들은 여기에 있는 학교로 오는것입니다. 그럼 이런 특성화 교육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 유입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다 살릴 수가 없다면 예상 수순대로 대부분이 폐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령화를 얘기하셨지만 보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30명 40명 대에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100명이 넘어가는 건 예술 숲속 씨앗 학교로 방과 후 학교에서 무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지금 중학교에 차량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 학교는 공장에서 돈을 모아서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어서 통폐합 학교니까 또 지원을 해주어서 아이들이 몰리는데 특별하게 예산이나 프로그램 등 무언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폐교활성화 방안도 지원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어야 하고 단순히 예산을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어도 주변에 좋은 여건의 학교가 있으면 학생 유입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폐교를 한다면, 아주 특성화 되지 않는다면 학교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폐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위해서 지역민과 대화를 하면 학생들이 늘 것이라고 말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교에서 분교로 운영되고 분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을 교육과정에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책에서 우리는 제도상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역 주민한테 조금씩 개방한다면 폐교가 된다고 해도 지역사회가 한번에 무너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윤병숙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학생이 끌어오고 이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 ▷ 우리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지에서 서울이나 외부의 학생과 학부모가 소멸위기 지역에 와서 공존하며 정착할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농어촌 지역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많이 꾸려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소개를 해서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성 있게 연결해 주어 농어촌의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 인을 고향에 보내기 이런 사업을 일시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농어촌에 외국인 가정 보내기, 다문화 가정 만들기 지원이 지속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초등 1학년짜리 2학년 짜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온다고 하면 중학교까지는 거의 10년을 학교의 운영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의 지원을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되도록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국제결혼이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가보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정서적 차이 등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점 보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소득이 6,486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데 비용이 교육비가 얼마나 하면 2,218만원 지출됩니다. 그래서 35% 교육비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누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려고 할까요. 농어촌 총각도 살리고 하려면 외국인이 유입되어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지자체와 지역민, 우리 모두 공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연구모임이 페이퍼의 결과로 끝날게 아니고 뭔가 하나 실천하고 지자체도 그 모델에 대하여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좋다.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생각을 다 오픈하시고 연구용역 업체 실무진 이메일 주소 하나 공개를 하셔서 각자 의견도 보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님이 회원님들께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각자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양형우: 연구용역업체에서 작업하시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회원님들 단체 채팅방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연구 개발하는 진행 상태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원님들 의견을 거기다가 또 올리실 수도 있기때문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 주무관님께 현재 위기의 학교 명단 몇 개를 받고 당진, 서천, 보령, 서산 등 4개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위기 극복 방법, 폐교 활용 방안을 연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 제5차 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안내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5차 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안내

< 요약 >

- (일 시) 2023. 8. 18.(금) 10:00~12:00 (120분)
- (장 소) 충청남도의회 1층 세미나실(101호)
- (참석대상)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
 - 연구용역 추진사항 대한 토론(질의응답)



충청남도의회
(교육 위원회)

제5차 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안내

-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 ◆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

I 회의개요

- 일 시: 2023. 8. 18.(금) 10:00~12:00 (120분)
- 참석대상: 편삼범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
 -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II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개회, 인사말 및 회원 소개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사회: 간사 양형우
10:10~10:50	40'	○ 폐교재산 활용 연구용역 중간 보고	김영아 박사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10:50~11:00	10'	휴식	
11:00~11:55	55'	○ 연구용역 추진사항 토론 (질의응답)	연구모임 회원
11:55~12:00	5'	○ 마무리 및 폐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제5차 모임 회의록

★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과제: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 지역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마련)

□ 모임 개요

- ▶ 일시: 2023. 8. 18.(금) 10:00 ~ 12:00
- ▶ 장소: 충청남도의회 1층 회의실(101호)
- ▶ 참석자: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9명(미참석 4명)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외 2명,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안민호 수석 전문의원 외 1명
- ▶ 회의내용: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발제자)

1.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2.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질의응답)

● 김영아 박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중점 요약)

○ 충남 폐교 활용 공간 운영

- 충남의 미래 세대와 충남 도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 활용
- 폐교 활용 공간들이 상시 그리고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운영되게 하는 데 목적을 둠

○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 공공성을 중심으로 폐교를 개발하는 활용 방안을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눔

○ 사회복지적 공간의 필요성

- 사회복지 및 지역복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향후에 사회복지적 공간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혹은 고령화 추세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야 함

○ 폐교 재산의 활성화

- 폐교재산 활용 관련 법령은 크게 6가지 형태의 시설 운영이 가능함
- 미활용 폐교 재산을 활성화하는 추진 절차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음
- 폐교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도움을 필요로 함
- 충남 지역은 4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임

○ 충남형 폐교위기 활용 방안

- 충남형 폐교위기 활용 방안은 일자리와 거주 공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화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함
- 충남형 폐교위기 활용 방안의 최종적인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통 요소를 도출함
- 충남형 폐교위기 활용 방안의 기본 구상 안에 9개 학교가 폐교활용 방안이 필요한 학교로 제시되어 있음

■ 천안 병천 초등학교 동성분교

- ▶ 천안 병천 초등학교 동성분교로 2007년도에 폐교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 ▶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보면 대부분 공공성이 있는 수련원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달라 하는 게 이 학교의 현황임

■ 서산 산포초등학교 매각

- ▶ 폐교를 매각이나 위탁의 운영보다는 직접적인 운영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 서산 산포초등학교는 수련원으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나 수련 시설을 운영하는 측이 교육청이 제시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를 인수할 역량이 안 돼서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주민들도 동의를 함
- ▶ 수련 시설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잘 돼 있음. 기존의 수련 시설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추가적인 다른 공공성을 가져올 것인가의 부분에서 유형 분류의 모델은 공공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용으로 분류해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려고 함

■ 논산시, 상월초등학교통폐합 매각 추진

- ▶ 상월초등학교 통폐합된 데는 기존의 학부모들이 마을이 소득사업을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통폐합이 이루어짐
- ▶ 마을 주민들과 지도 리더들은 농산물 가공 및 체험 전시장 활용을 되게 간절히 원하고 추진하고 있음
- ▶ 지역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의 모델로 구분해서 논산시가 매입하는 형태의 추진이 필요함

■ 부여 임주 초등학교의 문화적 공간

- ▶ 부여 임주 초등학교는 과거 동원의 객사 자리라는 문화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음
- ▶ 주변에 관련 이미 있기 때문에 근현대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해서 중학교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태안의 고남초 군의 매입이 이루어져야 함

- ▶ 유채꽃 단지를 학교에 설치할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음
- ▶ 향후에는 주민 공동체가 대부할 수 있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주민공동체에게 대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 태안군이 매입을 해서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 소득 증대하고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음

○ 지역 정체성을 위한 개발

- 지역 정체성, 소득과 관계된 방향의 개발 사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함
- 폐교 위기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섬에 있는 폐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공유함

▷ 이영란 교수(청운대): 다각적으로 조사를 너무 잘해주셨고 그동안의 회의를 다 참고해서 자료를 조사해 주셔서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과 오늘 또 발표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외사례에서 보면 일본하고 영국 사례를 주셨거든요. 둘 다 좋은 사례들이예요. 그리고 국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 사업 때문에 참여했던 주민이지 지역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교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지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자기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폐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의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고 나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조직 공동체를 만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교에 대한 준비,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요즘에 학교들은 시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다닐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정말 놓고 싶은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공간을 폐교가 되기 전에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면서 폐교를 미리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지역에 어울리는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한상화 의원(당진시의원): 자료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영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 방향으로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간 이외에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최근에 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를 보면 담장 오픈형이라 그래서 낮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도 활용을 하고 학교의 텃밭 같은 것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교가 되기 전이지만 공간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활용 사례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소통의 방식으로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유형별로 독특한 어떤 콘텐츠를 심어서 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방식이나 일자리 부분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연구모임 오기 전에 농촌이 고향이고 농촌에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이 미래 농촌형 콘텐츠 같을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미래 농촌형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의 농업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스마트 팜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현상에서 뭔가 혁신을 해야되는 그런 현상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서 폐교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자기 마을에 가까이에 있는 폐교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폐교인데 일반인에게 매각이 돼서 좀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어서 많이 안타깝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폐교 연구모임을 언급하지도 않고 연구모임 일원인 것을 모르시는분 말씀을 듣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는 농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농촌에 어울리는 미래 농업형 콘텐츠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어제까지 자료를 보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우리 연구모임에서 섬의 폐교(분교)도 가보고 당진의 폐교활용도 확인해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님과 섬을 방문했을 때 폐교(분교)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나 교육청에서 지원방향도 있지만 우선 어촌계의 장벽을 허물고 이주민에게 포용적으로 문을 열어 주자는 의견이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귀농은 그래도 방향 설정이 좀 쉬운데 귀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에게 어촌계의 포용은 큰 도움이 됩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귀어에 관련해서 제주도에 아주 젊은 해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우수 사례로 서울의 지하철에도 제주도 귀어 모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예, 저도 보았습니다. 귀어는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폐교활용을 연계하여 좋은 사례로 개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제가 아는 분이 아나운서인데 노인과 바다 책의 영향을 받아 전라도에 귀어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고기잡이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그 지역에서 스피치 가르키는 걸 하자 그래서 지금 학원을 냈거든요. 이런 것도 연결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귀어는 낭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돈이 돼야 되니까, 젊은 분들도 어촌계에만 들어가시면 돈은 되거든요. 이렇게 어촌계에서 포용을 해주면 귀어하

는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조건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두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보령 같은 경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시범 사업이라도 해주셔서 잘 진행되면 서로 같이 상생할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교 통폐합 기금을 권역별로 묶어줘서 그 권역 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폐교나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이 생겨나니까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는 통합하고 나머지는 농촌체험, 생명 교육, 해양 안전 교육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학습원으로 또는 체험학습원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의원님 말씀하시는 권역별 활이용이라는 것을 캠퍼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지자체별 권역을 의미합니다.

▷ 이영란 교수(청운대):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이렇게 지역별로 브랜드를 만들어 모델이 되는 것이죠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그렇죠 그리고 폐교가 되고 방치하다 활용하여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몇 개의 학교를 교과서 학습학교로 만들고 농·어촌과 인접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체험학습형 학교로 만들어 통학버스를 활용하여 이동을 지원하면서 어느날은 교과서적 학습을 하고 또 어느날은 농촌체험 학습, 해양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여 폐교가 되기전 선제적 대응 모델로 개발하고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유장식 전 교육장: 보고서를 보는 사람은 어떤 전문가 또는 이런 분들이 보겠지만 교육기관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또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종우 행정실장(당진원당초): 이영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교가 돼서 활용도를 찾는 거는 상당히 좀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미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강하고 앞으로도 폐교가 발생될 텐데 그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해당 면이라든지 그 마을 이장들 이렇게 사전에 tf팀이 아

니면 협의회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폐교 활용 방안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새로 생기는 학교는 운동장도 작고 면적이 크지 않지만 예전의 농·어촌 학교중에 산림이나 숲, 해안가를 끼고 면적이 큰 학교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학생들이 수련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혼합형 수련원 플러스 캠핑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충남도내에 학생 수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규모가 있고 많은 숙박시설에 여유가 있는 사립 사설 수련원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이런 특색을 활용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개발하고 활성화가 되면 학생들이 굳이 타 지역의 사설 수련원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학교시설을 평생교육 방향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 ▷ 한상화 의원(당진시의원): 폐교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평생교육으로 활용할 경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보면서 되게 놀란 것이 폐교 활용이 딱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저희 대학에서도 평생교육관련 시설활용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 이종우 행정실장(당진원당초):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은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하지만 교육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긴 하지만 평생교육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주민들의 반발감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랑 같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아니니까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네요.
- ▷ 차기택 주무관(재무과): 생활SOC 사업이라고 학교 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폐교도 학교 복합화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니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할 듯합니다.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차기택 주무관님 좋은 의견입니다. 김영아 박사님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고, 학교 복합시설이 그 법이 2021년도 3월달에 제정됐는데 금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매년 40개 학교씩 200개를 5년간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기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학교 용지에 해당 되니까, 그 사업은 충남에서 기본에 30% 지원하는데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을 받는 곳이 9개 시군에 10% 추가로 지원하고,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서 자립도가 20% 미만인 곳에 10%추가, 거기에 돌봄사업을 넣으면 또 10%를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보고서 내용에는 접근성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본교에 뭐가 있고 거리 얼마나 되고 그 학교 주변의 학령인구 이동 수단 등이 파악이 되어야 시설 활용의 적합성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가 유형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 전남 해남군 북일초등학교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충남의 부여 00 초등학교 폐교를 조사한 결과로 유사한 접근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도 언급되었으면 좋겠고, 3회 연구모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섬지역의 1-2명 학생을 위해 몇억, 몇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시내권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어울려 학교 및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섬 지역의 학생들을 시내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들도 하숙비가 5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이나 기업체에서 보육비를 지원하게끔 규정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빠져나간 학교에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나 체험학습장 등 섬 특유의 시설로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형, 어촌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학교 주변의 학령인구, 거주민 인구, 교통 접근성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당일 체험을 하는데 이동 시간이 두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가용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면 시설 활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삼시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해수욕장을 만들어 보려고 구상중입니다. 해수욕장에 오기전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주변 인구 및 교통 여건과 전국 폐교 활용 학교를 충남지역 위기 학교의 ab 학교와 유사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최종 보고서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촌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교육청에서는 섬 학교 미사용 숙소를 이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협조해야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1천명을 이주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 섬 지역에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좀 안타까운 것이 서천이 고려인들 이주를 위해 LH 아파트를 지었는데 고려인 1세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 공간에 재유치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제천에서 먼저 진행하여 상당히 아쉽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요즘 주변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듭니다. 보령의 경우에도 작년 출생이 326명인가 그렇습니다. 명천초등학교의 한 개 학년 학생수 밖에 되지 않을 만큼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태안군 이원면이 2년 만에 출생 신고했다는 플랭카드가 붙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귀촌해서 펜션을 하는데 21년도에 첫째 애를 낳고 다시 또 둘째를 낳으니까 홍보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예전 80-90년대에는 외국인들 보면 신기했는데 요즘 충남에는 세 사람 건너 한 사람 꼴로 외국인입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이번에 생각했는데 다문화라는 단어는 이질감이 있으니까 이주민으로 바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령으로 와도 이주민, 베트남에서 여기로 와서 살아도 이주민, 그래서 이주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시험이 어려워 귀화를 못 합니다. 시험문제 중에는 국민교육헌장과 애국가 4절을 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서 귀화를 못해서 혼인 신고도 못하고 농업인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 ▷ 신영호 의원(충남도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많이 열어주려고 하니까 차츰 바뀔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문화도 아마 배려했던 용어일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실패했던 용어중에 장애우란 것도 있습니다. 배려를 했을 것 같은데 시대에 맞지 않아 다듬어지고 바뀌면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네, 다문화 센터도 지금은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인구절벽 현상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지방 농어촌 인구도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 활성화와 폐교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이주민들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우리 연구모임 회의가 몇 번 더 남았는지요?

- ▷ 정수정 주무관: 연구용역 결과인 최종 보고서를 9월 15일까지 계약부서에 납품하여야 하면 연구모임은 최종 보고회 일정만 남았습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좋지만 너무 방대하게 범위를 설정하면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과업의 범위 내에서 잘 정리되어 좋은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김영아 박사(연구용역): 각각의 폐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구나 접근성등을 조사하여 조금 더 적합한 콘텐츠 제안이나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다시 세분화하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폐교활용 사례를 비교하여 충남 도내 어느 학교가 abcd 타입인데 알고 봤더니 해남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고 적용방안은 b나 d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두 시간 가까이 우리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여 최종 보고회 날을 잡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 모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제6차 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6차 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내

< 요약 >

- (일 시) 2023. 10. 5.(목) 11:00~12:00 (60분)
- (장 소)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별관 세미나실
- (참석대상)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 연구모임 자유토론(질의응답)



충청남도의회
(교육 위원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6차 회의[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 자유토론

I 회의개요

- 일 시: 2023. 10. 05.(목) 11:00 ~
- 참석대상: 편삼범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13명
- 회의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 연구모임 자유토론(질의응답)

II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 개회, 인사말 및 회원 소개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사회: 간사 양형우
11:10~11:40	30'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연구위원
11:40~11:55	15'	○ 자유토론(질의응답)	연구모임 회원
11:55~12:00	5'	○ 마무리 및 폐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도의회)

* 12:00 ~ 중식 및 기타협의

2023년 의원정책개발(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 최종보고 요약

제6차 모임 회의록

★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과제: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 지역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마련)

□ 모임 개요

- ▶ 일시: 2023. 10. 5.(목) 11:00 ~ 12:00
- ▶ 장소: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별관 세미나실
- ▶ 참석자: 편삼범(대표) 의원 외 연구모임 회원 9명(미참석 4명)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외 2명,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성근 전문위원 외 1명
- ▶ 회의내용: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자유토론



●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발제자)

1. 폐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2.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

● 김영아 박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중점 요약)

○ 폐교 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협력

- 그동안 현황 조사를 포함한 시사점 도출, 모델에 대한 구상까지 발표를 하고 올해 최종 보고회에서는 최종 도출된 결과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둠
- 상생 협력적인 활용 모델에 대한 구상은 3개의 큰 틀의 추진 방향을 확정함
- 공익적인 활용, 선제적인 폐교 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잡음

○ 폐교 위기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 섬의 모델은 3개 정도의 모델로 구성을 하면 적절하겠다고 판단함
- 폐교의 위기가 와 있는 학교들이나 폐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모델은 좀 더 세분화해서 유지나 관리의 형태도 구체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
- 폐교 연구의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폐교 위기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그 구성에 대한 도에서의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다음 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해봤음

○ 폐교 자산의 활용 방안

- 공익성과 공적 활용을 늘리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부가적으로 갖춰지게 된다면 지금 제시한 모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결정해 봄
- 폐교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점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사항은 무엇 인지에 대한 내용
- 폐교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임대 기간이 상 위법에 의해서 10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후에 10년을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름
- 섬 학교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세 가지 모델로 볼 수 있음

○ 최종보고서 발행

-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 이후에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출력해서 드림
- 이외에 추가되는 의견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제안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 해서 최종 보고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받고 최종 발행하는 것으로 함

- ▷ 이영란 교수(청운대): 보고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름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마치 연구용역 업체에서 다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각 회차별 회의록과 회원님들의 자문 의견서도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 김영아 박사: 네 알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종 나오는 결정문으로 보지 마시고 보고회를 갖기 위한 결정문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회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발행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책자 11쪽에 충남교육청 추진목표가 필요한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향후 5주년 계획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그리고 또 충남마을교육 하고 폐교하고 연관되어 있지는 않는것 같고, 88쪽을 보면 우리 연구모임에서 섬을 다녀왔는데 사진이 없고, 삼시도를 예를 들면 삼시도내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 방향성이라든지 요점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외국어교육센터나 아미미술관도 어떠한 관점에서 가치가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의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107쪽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 도민참여 네트워크, 교육재정 변화와도 폐교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제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일단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실수를 하신거 같은데 우리가 회의를 했던 내용들은 교육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게 지금 언급되지 않았고 저희가 마지막 회의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폐교가 되기 전에 이미 공동 공유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회의한 내용이 잘 정리된 회의록이 있는데 지금 보면 회의록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참여한 명단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고민하면서 연구모임을 했거든요. 이것이 연구 보고서지만 우리 모임에서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이기 때문에 회의록 그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참석 인원과 사진까지 있으면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목차도 틀렸어요. 과업의 개요에 법령과 연구 논의 내용에 회의록이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

서 발판으로 해서 그다음 연구가 시작돼야지 어떻게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그 모임에 나온 회의안을 기반으로 해서 법령과 그 회의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과업의 개요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선행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연구 순서도 다 바뀌었어요. 분명히 연구 활동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왜 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개요는 이게 왜 시작됐는지거든요. 관련 법령과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회의록도 다 잘라먹고 뒤에 살짝 현황이라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연구용역업체의 현황이지 우리 현황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이 중요한 핵심을 지금 빠뜨렸어요. 그래서 아니 4차 때인가 그때 내용이 참 좋았는데 방향이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네요.

▷ 김영아 박사: 이 보고서를 교수님께서도 검토하신게 맞는지요?

▷ 이영란 교수(청운대): 제가 못 봤어요. 미안하게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지금 제가 마지막 최종 본을 보고 나서 조금 당황해서 아니 왜 이렇게 싹 바뀌어버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모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의 예산을 받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폐교를 살려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계획에도 공유 공간 활용 등 우리가 말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의 의도를 많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 김영아 박사: 일단 이러한 목차가 나오게 된 것은 발주처의 과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영란 교수(청운대): 지난번 3차 회의때 그래서 언쟁이 좀 있었는데 그후로 모임을 주체로한 보고서가 진행되었고 연구모임 회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성이 전달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책만 봤을 때는 연구개발협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참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 김영아 박사: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란 교수(청운대): 그리고 발행인은 모임회의 대표이신 위원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김영아 박사: 지금 이 보고서의 1차적 목적은 발주부서인 도의회 사무처에 완성본 납품을 목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모임에서 승인이 나면 폐교활용 연구모임 모델로 발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처에서 정리하실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일부로 들어가고 전체 말씀하셨던 회의록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유장식 전 교육장: 언뜻 생각나는게 의원 정책 개발이라고 앞에다가 서두에 말을 했고 연구용역을 받아서 의원 정책 개발을 했다는 측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연구모임 위원장님이 의원으로서 이 정책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정책 개발을 했다. 그런 선입견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교수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한 용역보고서이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연구모임의 보고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책자가 나올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연구모임의 회원들과 함께한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연구용역비 들여서 개발한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과 우리들이 함께 했다는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김영아 박사: 도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 사실은 용역사를 두고 용역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용역사가 이 용역을 하는 과정속에는 회원님들이 회의를 하거나 논의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포함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나오는 의원 정책 개발 보고서는 그 정책 개발 내용에 그 회의 주제 모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데 저희들 연구용역이 일부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 ▷ 임정은 주필(디지털미디어):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 보고서와 별개로 저희 연구모임의 보고서가 만들어 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양형우 간사: 지금 이 연구모임 회의가 마지막 6회차입니다. 제가 1회부터 정리한 회의록과 모임자료와 연구용역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연구용역 보고서와 우리 연구모임 자체 보고서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연구개발의 목적과 우리 회원님들의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용역 보고서에는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 김영아 박사: 의회 사무처에서 최종 정책 개발 보고서라는 걸 쓰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가 되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들 이름은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 용역을 한 기업만 나올 뿐이고 거기에는 모든 자문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나오고 저희들 자료는 첨부 서류로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 보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이 정책을 했고 어떤 회원들과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모델화하고 구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시켰고 그래서 저희 용역업체를 시킨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의 형태를 제시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방식 자체가 일반 용역 보고서에 우리가 연구 용역의 기준의 틀에 맞춘 것입니다. 나중에 정책 보고서가 의회 사무처에서 발행이 될 때는 당연히 연구모임 회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용역보고서는 납품하는 저희가 주가 되고 의회 정책보고서에는 회원님들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 이영란 교수(청운대): 하신 말씀은 다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회의한 내용들이 기본 스토리인데 그것이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편향대로 줄여 가지고 편집하여 집어넣는 보고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류장식 회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스토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잘 앞에다가 표현을 좀 해주시고 법령도 표현을 좀 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실체가 없는 상태로 저 뒤쪽으로 현황 조금 나오고 나서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의 수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업체에서 개발한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배경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아 박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정해서 결과 보고서에 담고 정리해서 파일로 드려서 마지막 검토후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계획이 아닌 5주년 계획으로 바꾸어 주세요.

▷ 이영란 교수(청운대): 거버넌스 구축 관련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 주민의 독려를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공유 공간 이것이 핵심입니다.

▷ 김영아 박사: 저희들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사례들의 폐교활용 주민 동력은 거버넌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 영역의 확대를 보고서에 언급하였습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평생교육의 공유 공간, 물적, 인적 자원 공간 공유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거버넌스가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거버넌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거버넌스는 이것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영역이에요. 일본 사례도 들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왜 그렇게 mpo가 지역에서 활성화됐는지 그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들어갔다. 시민 교육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리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논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 ▷ 김영아 박사: 그래서 저희 모델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폐교의 위기나 폐교의 예정 학교들을 지자체 또는 공익단체들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해서 매각이나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게 하자는 게 저희들 모델입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도교육청의 5주년 계획을 보면 우리 회의록과 비교해 보면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 김영아 박사: 네. 말씀하신 부분들 추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 책자는 연구모임의 마지막 보고회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고생스럽지만은 지금 회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김 박사님께서 잘 정리하시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방면에 연구용역도 있고 또 선제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교는 지금 가장 심각한 때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적정 규모 학교를 하다 보니까 보령 8개 학교가 되고 부여는 열몇 개 된다고 하던데, 충남 전제가 80몇 개인가 적정규모 학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과 교육청이 서로 지자체 간 같이 협조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법령 개정도 돼야 되겠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사가 언급하셨듯이 이런 저런 쪽에도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교 자꾸 생기면 윤병숙 팀장님은 고민이 많으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윤병숙 행정팀장(보령교육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생기면 활용 방안이 없으면 결국은 보령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충남교육청에 하나의 재원의 부담이거든요. 협력체의 지원으로 미

활용 폐교의 유지보수의 비용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노후가 진행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면 건물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몇 개 나오지만 외연도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등교화가 되니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큰 학교에 교직원 14명의 숙소를 지어놨는데 딱 두세 칸만 사용합니다. 저희가 가끔 가보면 이래서 정말 건물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와서 촬영을 합니다. 철새 도래지나 관광산업 쪽 이런 걸로 오는데 외연도 지역 주민들은 관광을 위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관광의 수입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자체가 활용을 해서 하나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관리를 해주면서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 한다든지 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폐교 건물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장으로 사용한다면 민박을 운영하는 지역민에게 피해도 가지 않으면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폐교가 된다는 것은 그 대책 없이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교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서부터라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저기 t팀을 만들든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적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사가 6칸이 있다고 보면 선생님 딱 둘이예요, 그럼 4칸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 된다고 하면 참 좋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건물이라는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감가상각도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이 없으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골의 노인분들이야 하루아침에도 고인이 되어 빈자리가 생기고 하지만 학생들의 빈자리는 1년~3년은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휴 교실이 생겼을 때 지역민과 지자체가 함께 사용할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받침이 되고 활용할 때 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폐교전에 공동으로 공유, 활용하여 좋은 결과물이 생길 것입니다.

▷ 김영아 박사: 지금 이 상위법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를테면 학교에 현재 다니는 인구는 충분히 폐교의 대상인데 그 공간이 지역사회에 임대나 일부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나서 그들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과연 이걸 폐교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는 해당의 논의 대상이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요, 아무리 활성화돼 있다 하더라도 원래 학교의 취지가 아니니까 이거는 교육청 범주입니다. 농산어촌 종합개발이나 어촌 뉴딜 사업들의 핵심이 먼저 부지 확보의 개념이다 보니 이미 폐교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안군이 인수했을 때는 그럼 평생학습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지역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있는데 아직 인수 전인 학교들의 경우 혹은 폐교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농산어촌 종합개발이 마을 단위로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마을 주체자들이 저 학교를 활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역에 마을 단위에 가보면 10억, 20억, 많게는 27억, 30억까지 들어간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공통적으로 그 안에 교육 공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촌 주민들한테는 사실 활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공간하고 세미나실을 주로 다 만들어버리다 보니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또 활용해야 하는 중복의 문제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폐교가 일찍 이루어져서 그걸 공공임대 형식으로 먼저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 한상화 의원(당진시의원): 농어촌 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면 단위에 큰 건물을 짓고 10억 20억씩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면 운영비는 안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농촌이 가장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체험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4인 가구가 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여건 마련, 이걸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 거여서 의원님께서 도에서 의원 발의를 하시면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시 조례를 재정하고 그 조례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의 안은 이렇게 굉장히 좋고 하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협업이 되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주기적인 모임을 해서 교육 경비 같은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의 재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설은 교육청 재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려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하든 뭐를 하든 법이 있어야 만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 제정이 도에서부터 하면은 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폐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자체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어주겠느냐, 거대한 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라도 공급을 하고 공고를 내서 취학 가능 학생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몇 세대라도 입주가 되면 그 학교가 살아나갈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까 관사가 남아 논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관사를 활용해서 주는 거예요. 이주해 올 때 가장 어려운게 주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사든, 소규모 아파트든 협업을 해서 제공이 된다면 폐교 발생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지금은 평생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거점 사업하면 다 거기다 평생교육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운영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교를 활용하면 거점사업은 안해도 돼요. 그 운영비를 폐교 활용하면서 운영비로 투입하면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폐교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가 또 나몰라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합니다.

- ▷ 이영란 교수(청운대): 그래서 그걸 제안할 수 있는 시민들로 지역 주민들을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도교육청이나 시청에 제안할 수 있는 지역민 양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교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폐교를 줄이는 방법중에 지역에 어머니들, 어르신들을 학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야간이나 평생학교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낮에 생업이나 일과를 하고 야간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입학 기준이라든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인정을 안해 주니까 무법을 고쳐주면 당분간은 폐교 학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주면 내 학교를 우리 동네 학교를 살리려고 다니게 돼요.
- ▷ 김영아 박사: 현재 전라도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또 말씀 아직 다 못하신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문 의견서는 그대로 담고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처하고 논의를 해서 이영란 교수님이 요청한 부분을 반영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편삼범 위원장(교육위원회): 그런데 적정 규모 학교는 이런 학생 수를 안 쳐주니까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회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시고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연구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I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1. 교육정책의 여건
 2. 이적지·폐교 발생 현황조사
-

II.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1. 교육정책의 여건

가. 교육정책

1) 대·내외 정책환경의 급변

- 현재 우리 교육은 급격한 기술진보, 코로나19,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표 2-1] 대내외 정책환경의 급변

	What	How	Who
특징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 등	디지털 기술 발달, 팬데믹 경험 등	알파세대, 3050세대 등
	↓	↓	↓
요구	핵심역량 필요수준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변화 요구	온라인교육, AI 기술도입 등 교육방식 전환 요구	디지털기술을 통한 개별화 교육, 향상(up-skilling)교육 등 요구

※ 자료: 미래교육정책방향과 과제(교육부)

2) 우리 교육을 향한 사회적 요청

- 우리 사회는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

[표 2-2] 우리 교육을 향한 사회적 요청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기술경쟁 심화, 산업구조 변화
지표	기초학력 미달 비율(고2, 수학) '17. 9.9% → '21. 14.2% (교육부, 통계청, 2022)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05개(46.1%) (한국고용정보원, 2020)	교육의 사회요구부합(63개국) 초·중등 37위, 고등 46위 (IMD, 2022)
	↓	↓	↓
현장 목소리	“교육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돌봄 부담을 덜어줘야”	“학교(대학)가 지역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교육이 사회,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야”

※ 자료: 미래교육정책방향과 과제(교육부)

[표 2-3]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 자료: 미래교육정책 방향과 과제(교육부)

3) 미래교육 정책 방향 제안

가)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비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중심은 학생에,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실 지원에 두어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소망을 담고 있음

지표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

충남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민주시민의 삶을 추구한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구생태계와 공존·공생하는 생태시민의 의미를 포괄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자 함

5대 정책



나) 2023 추진 목표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

다) 2023 추진 방향



라) 2023 중점 추진과제 20



[그림 2-1] 2030 중점 추진과제 20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마) 충남마을교육공동체

■ 운영

- (1)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육청과 ‘마을학교’를 지정(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마을교사’를 위촉(역량 있는 학부모, 주민을 발굴하여 연수)하여, 다양한 학습과 돌봄(예체능, 정보, 기초학습, 생태환경, 마을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지원함.
- (2)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기에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과정 위계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재구성을 하여, 체계적인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학교와 마을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경청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함.
- (3) ‘마을로 찾아가는 수업’, ‘학교로 찾아오는 수업’ 등 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목적, 학습 내용, 교수 방법, 참여 대상, 안전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이 되도록 유의해야 함.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마을의 상호 연계가 용이하도록 누리집 운영, 운영비 지원 등 긴밀한 연결고리와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바) 주요 내용

- (1) 단위학교 마을연계 교육과정 수립과 실천
 - 1월 중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별 연간 계획수립 안내 완료
 - 2월 마을연계 교육과정 내용 반영(초등 2개 학년, 중등 1개 학년)
 - 3~4월 중 교육지원청별 학교마을축제,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교 선정, 운영비 지원(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마을교육과정 집중 운영교 선정)
- (2) 마을학교, 마을교사 정보제공과 학교 연결망 구축
 - 학교 수요에 맞는 마을학교, 마을교사 등 교육자원 정보제공
 - 전용 누리집, 신속 예약, 승인 연결 지원으로 학교업무 경감 제고
 - 마을교육의 질적 담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사의 협력 지도
 - 1회성 단순 체험보다 다회차 프로젝트로 유의미 학습경험 제공
- (3) 교육공론장 구축으로 학교-마을-교육지원청 유기적인 소통
 - 학교 교사연구회, 마을학교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담당자 간 수시 소통을 통한 마을교육 관련 정보 교류와 학습, 성장 노력 필요
 - 지역별 포럼(연구회) 운영으로 주제 중심 마을 교육 토의 문화확산

사)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과정 지원

■ 운영

- (1)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2)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려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지원
- (3)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또래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인적·물적자원의 공유와 협력으로 교육적 효과 증대

■ 주요 내용

- (1) 단위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맞는 유형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178교)
 - (나) 성장형 작은학교 지속 지원(30교)
 - 작은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2회
- (2) 함께 성장하는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가) 교육지원청 중심 작은학교 통합 지원(14개 교육지원청)
 - (나) 작은학교 간 연계·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학교 간 협력형)
 - (다) 미래교육 구축을 위한 작은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 (3) 마을의 교육자원이 함께하는 ‘마을 담은 작은학교’
 - (가) 학교 단위 맞춤형 연수 지원(초6, 중4)
 - (나)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 (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14개 교육지원청)

나. 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공간 수요 전망

1) 미래와 교육

-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으로 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임.

-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있어 교육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개인 잠재력의 실현과 사회의 발전 모두를 지향해야 함.

■ 미래 교육의 변화

가) OECD 학습나침반 2030

- (1) OECD 국가 간 공동연구교육 혁신 프로젝트
- (1)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인 2030년 무렵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핵심역량에 대한 고민
- (2) 하나의 정답을 구하기보다 방향성을 탐색한다는 의미로 나침반을 상징으로 사용
- (3) 교육의 광범위한 목표를 학업성취에서 삶의 질 향상 확대로 제시
- (4)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학습 유형을 정교화하여 본래의 학습 가치를 인정
- (5) 학습나침반이 지향하는 교육의 최종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학습과 삶의 질 균형)
- (6)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학생의 모습을 학생 행위주 체성(Student Agency)이라는 개념으로 제시

나) OECD 미래학교 4가지 시나리오

[표 2-4] OECD 미래학교 4가지 시나리오

기존 학교교육의 확대	교육의 아웃소싱	학습허브로서의 학교	일상의 삶 속에서 학습
전통적 학교들을 유지하면서 정규 교육에 대한 참여는 계속 확대되며 국제적 협업과 기술의 발전은 개별화된 학습지원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학교시스템이 약화되며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라 교육은 보다 다양화, 민간화, 유연화	학교는 존속하나 다양성, 실험적인 교육방법론이 시도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과 참여는 학습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킴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며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의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자료 : 충남교육발전계획(2022)

2)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 유네스코 2050 교육비전

- 가)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으로 지구와 함께하는 배움의 7가지 비전을 제시
- 나) 지구와 함께 생태적 역량을 지닌 지구인(earthling)을 양성하는 교육이자 지구(생태계)와 하나가 되는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
 - 인간 존재의 근거이자 터전인 지구와의 불가분한 관계를 인식하고 지구와의 공존을 실천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 지구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통해 공존을 목적으로 지구공동체 내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 교육부 미래교육 정책

[표 2-5] 교육부 미래교육 정책

창의력 · 변화대응역량 중요성 확대	미래사회 불확실성 증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상당수의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 -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더욱 긴요	
교육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디지털기술 본격 활용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환경 구현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학습 확대 등 새로운 교수·학습의 획기적 확산 기반 마련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학습자 성향 다양화
- 디지털 친화적·도전적 특성 갖는 Z세대 및 알파세대 등장 - 기존 학급단위 집합식 교육에서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 -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체제 변화 필요	
미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초저출생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 진행 - 학령인구 감소, 출산 및 가족 구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 변화,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정책 필요	

※ 자료 : 충남교육발전계획(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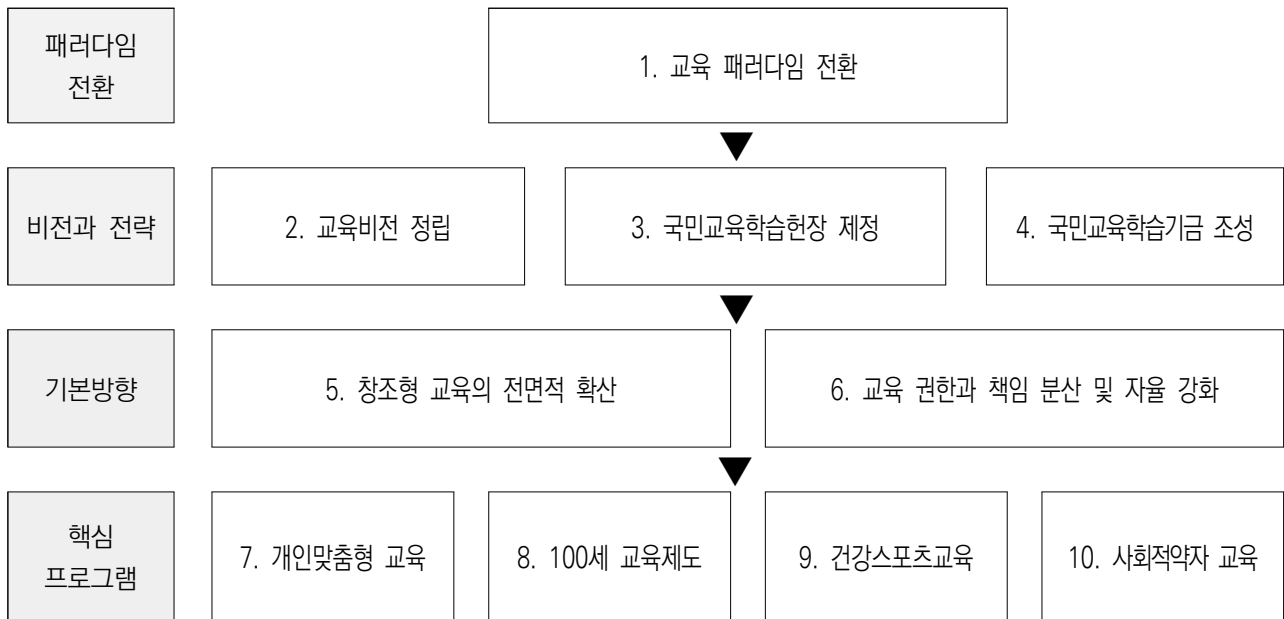
3) 대한민국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 국민의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측면에서

-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임.
- 현재대로 간다면 지식중심, 정답중심의 교육도 향후 크게 변함이 없을 듯하며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어 왔지만 지금대로라면 미래에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도 문제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도 열악하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받고 학습하도록 지원해야 함.

4) 미래를 위한 교육아젠다 10선

[표 2-6] 미래를 위한 교육아젠다 10선



※ 자료: 국가미래전략

○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학생만의 교육에서 전 국민 교육, 어릴 때에 국한된 교육에서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일부를 위한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평균 교육에서 개인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지식주입 교육에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 지식습득 교육에서 문제해결 중심 교육, 정답을 고르는 교육에서 질문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교육, 모방형 교육에서 창조형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대한민국 교육비전 2052 정립

-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내용에 기초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상을 제시하고 30년 이상에 걸쳐 지속가능한 교육비전 확립

○ 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

- 새로운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민선언문제정

○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

-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새 교육비전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국민교육학습기금을 조성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

○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 모방형 인적자원에서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 학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조형 교육을 전면 확산
- 초중고, 대학, 성인대상 교육별로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모델화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해서 널리 신속하게 확산

○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수직적 거버넌스를 탈피하여 각 학교 단위로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자율운영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기업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

○ 전 국민을 위한 개인맞춤형 교육 실현

- 모든 학생을 포함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교사·코치의 확대,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맞춤형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 확립

- 현행 6-3-3-4 학제를 넘어 성인을 위한 의무교육제도,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를 국가차원에서 새롭게 확립
- 예를 들어, 30세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모든 성인이 1~3개월간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국민평생학습제도 수립

○ 전 국민을 위한 건강·스포츠교육 365 도입

- 전 국민을 위한 건강·스포츠교육을 공식적인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도입. 학교교육에서는 현재의 6-3-3-4 학제에 건강·스포츠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성인들을 위한 건강·스포츠교육도 제도화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맞춤형의 더 나은 교육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기본소득 대신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평생학습비계좌’를 개설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

※ 자료: 국가미래전략

다. 인구구조의 변화

1) 학교 수의 변화

- 교육부 발표 2022년 교육기본 통계에 의하면 2022년도 전체 학교(유·초·중·고) 수는 2021년 대비 76개소 감소함.
- 유치원은 8,562개원으로 전년 대비 98개원 감소, 초등학교는 6,163개교로 6개교 증가, 중학교는 3,258개교로 13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73개교로 2개교 감소함.



[그림 2-2] 유·초·중·고등학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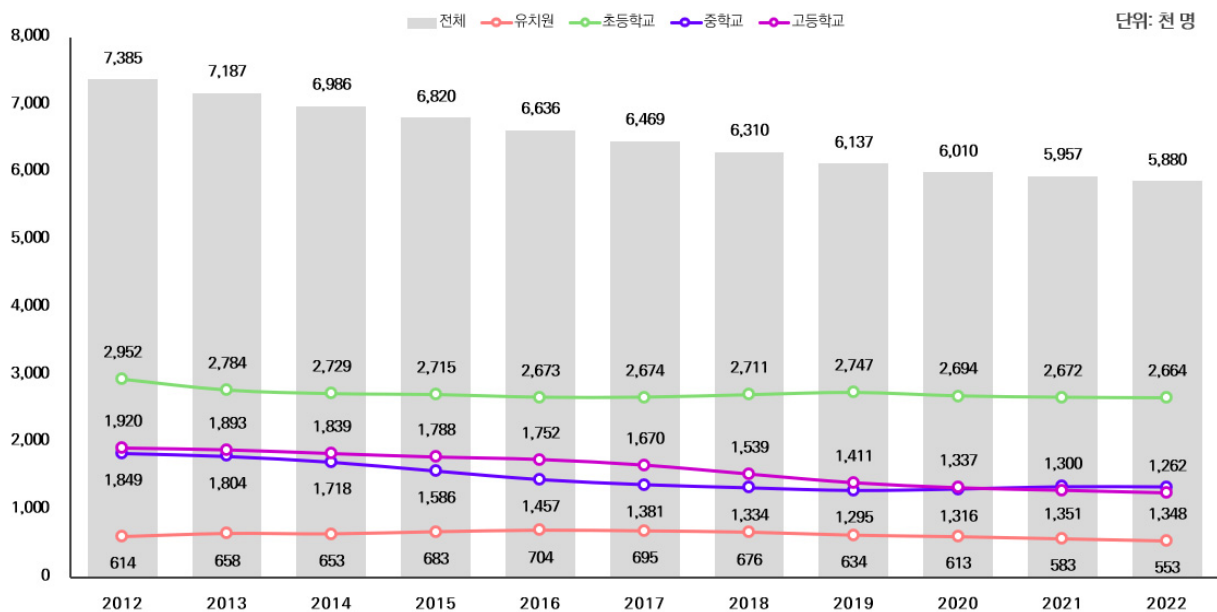
[표 2-7] 유·초·중·고등학교 수 변화

연도	전체 (개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22년	20,696	8,562	6,163	3,258	2,373	1,645	487	161	80	-	-	340
2021년	20,772	8,660	6,157	3,245	2,375	1,616	488	161	110	-	-	335
2020년	20,740	8,705	6,120	3,223	2,367	1,573	489	160	145	-	-	325
2019년	20,809	8,837	6,087	3,214	2,356	1,555	489	158	154	-	-	315
2018년	20,967	9,021	6,064	3,214	2,358	1,556	490	157	155	-	-	310
2017년	20,938	9,029	6,040	3,213	2,360	1,556	491	155	158	-	-	296
2016년	20,835	8,987	6,001	3,209	2,353	1,545	497	152	159	-	-	285
2015년	20,729	8,930	5,978	3,204	2,344	1,537	498	148	161	-	-	273
2014년	20,540	8,826	5,934	3,186	2,326	1,520	499	143	164	-	-	268
2013년	20,336	8,678	5,913	3,173	2,322	1,525	494	138	165	-	-	250
2012년	20,137	8,538	5,895	3,162	2,303	1,529	499	128	147	-	-	239

※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 통계(2022)

2) 학생 수의 변화

- 교육부 발표 2022년 교육기본 통계에 의하면 22년도 전체 학교(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22년 5,879,768명으로 전년 대비 77,350명(1.3% ↓) 감소
- 2022년 유치원생 수는 552,812명으로 전년 대비 29,760명(5.1% ↓) 감소, 초등학생 수는 2,664,278명으로 8,062명(0.3% ↓) 감소, 중학생 수는 1,348,428명으로 2,342명(0.2% ↓) 감소, 고등학생 수는 1,262,348명으로 37,617명(2.9% ↓) 감소



[그림 2-3]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표 2-8]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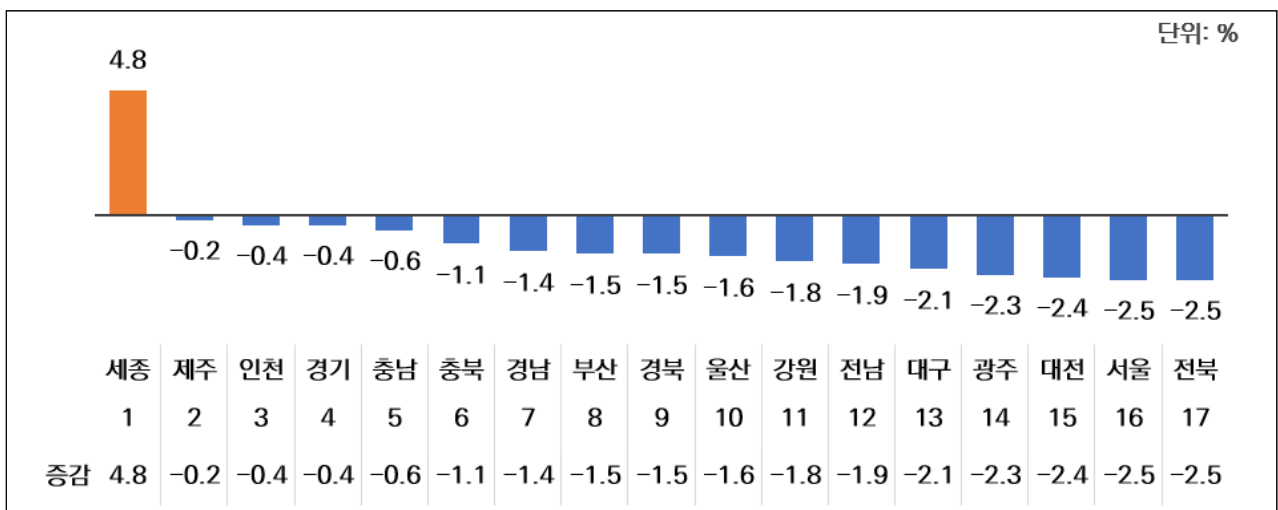
연도	전체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22년	5,879,768	552,812	2,664,278	1,348,428	1,262,348	961,714	182,801	61,424	56,409	-	-	51,902
2021년	5,957,118	582,572	2,672,340	1,350,770	1,299,965	961,275	198,663	63,181	76,846	-	-	51,471
2020년	6,010,006	612,538	2,693,716	1,315,846	1,337,312	958,108	212,294	64,493	102,417	-	-	50,594
2019년	6,136,794	633,913	2,747,219	1,294,559	1,411,027	1,001,756	230,098	65,244	113,929	-	-	50,076
2018년	6,309,723	675,998	2,711,385	1,334,288	1,538,576	1,096,331	252,260	6,693	123,292	-	-	49,476
2017년	6,468,629	694,631	2,674,227	1,381,334	1,669,699	1,193,562	274,281	67,960	133,896	-	-	48,738
2016년	6,635,784	704,138	2,672,843	1,457,490	1,752,457	1,256,108	290,632	67,607	138,110	-	-	48,856
2015년	6,819,927	682,553	2,714,610	1,585,951	1,788,266	1,278,008	302,021	67,529	140,708	-	-	48,547
2014년	6,986,116	652,546	2,728,509	1,717,911	1,839,372	1,314,073	313,449	66,928	144,922	-	-	47,778
2013년	7,187,384	658,188	2,784,000	1,804,189	1,893,303	1,356,070	320,374	67,099	149,760	-	-	47,704
2012년	7,384,788	613,749	2,951,995	1,849,094	1,920,087	1,381,130	330,797	64,468	143,692	-	-	49,863

주 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가 포함됨

※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 통계(2022)

3) 시도별 학생 수 변화

- 2022년 전년 대비 시도별 학생 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학생 수의 증가세를 보인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4.8% ↑)가 유일하며 다른 모든 시도는 감소세를 보임.
- 서울(2.5% ↓)과 전북(2.5% ↓)이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충남(0.6% ↓)의 감소로 17개 시도 중 5위로 나타남.



[그림 2-4] 시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

[표 2-9] 시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지역	계(명,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총계	5,957,118	5,879,768	△1.3	582,572	552,812	△5.1	2,672,340	2,664,278	△0.3	1,350,770	1,348,428	△0.2	1,299,955	1,262,348	△2.9	51,471	51,902	0.8
서울	904,851	882,073	△2.5	69,958	66,524	△4.9	399,435	393,565	△1.5	209,749	205,387	△2.1	216,319	207,388	△4.1	9,390	9,209	△1.9
부산	344,197	339,069	△1.5	38,651	36,308	△6.1	153,921	154,858	0.6	75,357	74,941	△0.6	73,499	70,161	△4.5	2,769	2,801	1.2
대구	283,893	277,954	△2.1	33,958	32,272	△5.0	121,308	121,485	0.1	62,755	61,975	△1.2	63,074	59,373	△5.9	2,798	2,849	1.8
인천	345,817	344,432	△0.4	36,170	35,427	△2.1	155,271	155,906	0.4	78,333	78,827	0.6	73,573	71,760	△2.5	2,470	2,512	1.7
광주	197,286	192,707	△2.3	22,198	20,998	△5.4	84,998	83,929	△1.3	43,942	43,586	△0.8	43,694	41,693	△4.6	2,454	2,501	1.9
대전	182,924	178,583	△2.4	21,276	20,405	△4.1	77,884	76,960	△1.2	41,158	40,303	△2.1	40,840	39,153	△4.1	1,766	1,762	△0.2
울산	147,189	144,874	△1.6	15,871	14,779	△6.9	66,919	66,450	△0.7	32,766	32,966	0.6	30,535	29,557	△3.2	1,098	1,122	2.2
세종	62,141	65,131	4.8	6,600	6,422	△2.7	30,726	32,230	4.9	13,822	14,809	7.1	10,818	11,484	6.2	175	186	6.3
경기	1,659,182	1,651,850	△0.4	161,980	153,149	△5.5	763,912	767,346	0.4	378,472	380,345	0.5	345,024	340,895	△1.2	9,794	10,115	3.3
강원	164,869	161,900	△1.8	13,684	13,168	△3.8	72,373	71,530	△1.2	37,887	37,922	0.1	38,374	36,821	△4.0	2,551	2,459	△3.6
충북	184,982	182,929	△1.1	15,576	14,993	△3.7	84,263	83,827	△0.5	42,438	42,601	0.4	40,246	39,112	△2.8	2,459	2,396	△2.6
충남	261,563	260,037	△0.6	24,556	23,647	△3.7	118,771	118,228	△0.5	59,514	59,883	0.6	56,671	56,081	△1.0	2,051	2,198	7.2
전북	214,486	209,040	△2.5	20,022	18,740	△6.4	92,914	91,290	△1.7	49,347	49,084	△0.5	50,532	48,265	△4.5	1,671	1,661	△0.6
전남	204,291	200,333	△1.9	17,276	16,285	△5.7	91,229	90,238	△1.1	46,971	46,826	△0.3	46,781	44,913	△4.0	2,034	2,071	1.8
경북	293,763	289,290	△1.5	33,375	31,365	△6.0	127,912	127,385	△0.4	63,732	63,810	0.1	64,967	62,986	△3.0	3,777	3,744	△0.9
경남	418,685	412,749	△1.4	45,144	42,385	△6.1	189,176	187,423	△0.9	94,538	95,037	0.5	86,627	84,613	△2.3	3,200	3,291	2.8
제주	86,999	86,817	△0.2	6,277	5,945	△5.3	41,328	41,628	0.7	19,989	20,126	0.7	18,391	18,093	△1.6	1,014	1,025	1.1

주 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가 포함됨

※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 통계(2022)

4) 충청남도 학생 수 변화

- 충청남도의 학생 수 증감을 살펴보면 2022년 260,037명으로 전년 대비 1,526명(0.6 ↓) 감소
- 유치원은 23,647명으로 909명(3.7% ↓) 감소, 초등학교는 118,228명으로 504명(0.5% ↓) 감소, 중학교는 59,883명으로 369명(0.6% ↑) 증가, 고등학교는 56,081명으로 590명(1.0% ↓) 감소

[표 2-10] 충청남도 연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연도	전체(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2022년	260,037	23,647	118,228	59,883	56,081	2,198
2021년	261,563	24,556	118,771	59,514	56,671	2,051
2020년	262,955	25,594	120,115	57,541	57,791	1,914
2019년	267,386	26,671	122,424	56,031	60,433	1,827
2018년	271,956	27,991	120,152	56,595	65,509	1,709
2017년	273,154	28,242	116,963	57,544	74,045	
2016년	276,832	28,288	115,309	60,196	79,039	
2015년	281,411	27,141	115,484	65,223	73,563	
2014년	260,168		115,056	70,209	74,903	
2013년	264,920		116,216	72,867	75,837	

주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가 포함됨

주2) 2017년 이전 자료는 기타학교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음

주3) 2015년 이전 자료는 유치원 수는 포함되지 않음

※ 자료: 교육부 교육 기본통계(2013~2022)를 근거로 재작성

[표 2-11] 충청남도 시군 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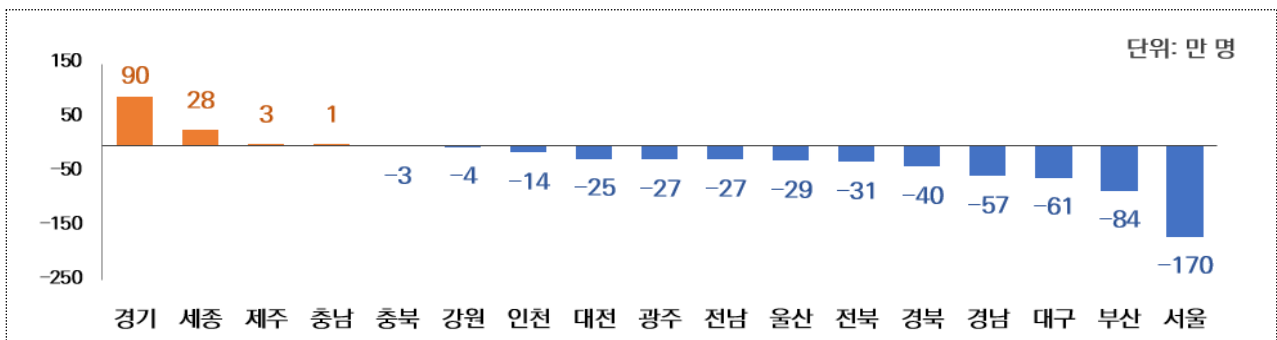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합계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천안	9,475	9,044	8,278	41,538	41,685	40,611	20,132	20,264	19,989	19,060	18,936	19,334	956	953	969	91,161	90,882	89,181
공주	1,020	878	696	4,176	4,038	3,791	2,276	2,163	2,099	3,632	3,481	3,389	70	75	77	11,174	10,635	10,052
보령	897	867	842	4,325	4,131	3,916	2,286	2,233	2,191	1,901	1,824	1,791	81	69	73	9,490	9,124	8,813
아산	5,238	5,401	5,188	22,522	23,525	23,805	10,637	11,230	11,677	8,940	9,135	9,846	222	216	235	47,559	49,507	50,751
서산	1,854	1,757	1,644	10,377	10,402	10,120	5,062	5,148	5,106	4,012	4,034	4,214	127	146	145	21,432	21,487	21,229
논산	610	549	492	5,213	5,117	4,869	2,904	2,763	2,581	3,957	3,797	3,699	113	133	135	12,797	12,359	11,776
계룡	678	678	607	2,869	2,806	2,786	1,875	1,859	1,801	1,350	1,375	1,435	-	-	-	6,772	6,718	6,629
당진	1,444	1,378	1,276	10,540	10,483	10,294	4,737	4,842	4,969	3,686	3,799	3,937	95	120	138	20,502	20,622	20,614
금산	271	254	256	1,983	1,845	1,718	1,115	1,137	1,106	933	899	973	-	-	-	4,302	4,135	4,053
부여	421	367	324	2,163	2,087	1,962	1,268	1,210	1,163	1,205	1,096	1,087	-	-	-	5,057	4,760	4,536
서천	182	176	164	1,691	1,647	1,525	887	862	863	1,282	1,253	1,233	-	-	-	4,042	3,938	3,785
청양	172	141	127	911	885	818	489	488	499	593	581	563	-	-	-	2,165	2,095	2,007
홍성	1,436	1,400	1,327	5,469	5,327	5,152	2,666	2,657	2,531	2,656	2,560	2,528	415	434	435	12,642	12,378	11,973
예산	479	432	429	2,764	2,718	2,750	1,849	1,871	1,865	2,345	2,301	2,334	-	85	119	7,437	7,407	7,497
태안	331	307	268	2,178	2,075	2,047	1,256	1,237	1,124	1,176	1,094	1,082	-	-	-	4,941	4,713	4,521
합계	24,508	23,629	21,918	118,719	118,771	116,164	59,439	59,964	59,564	56,728	56,165	57,445	2,079	2,231	2,326	261,473	260,760	257,417

※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현황을 근거로 재작성

5) 인구 추이

○ 시도별 총인구 증감

- 통계청의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 시도별 인구는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을 제외하고 13개 시도는 감소
- 인구성장률은 2020년 12개 도(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 2040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2045년 이후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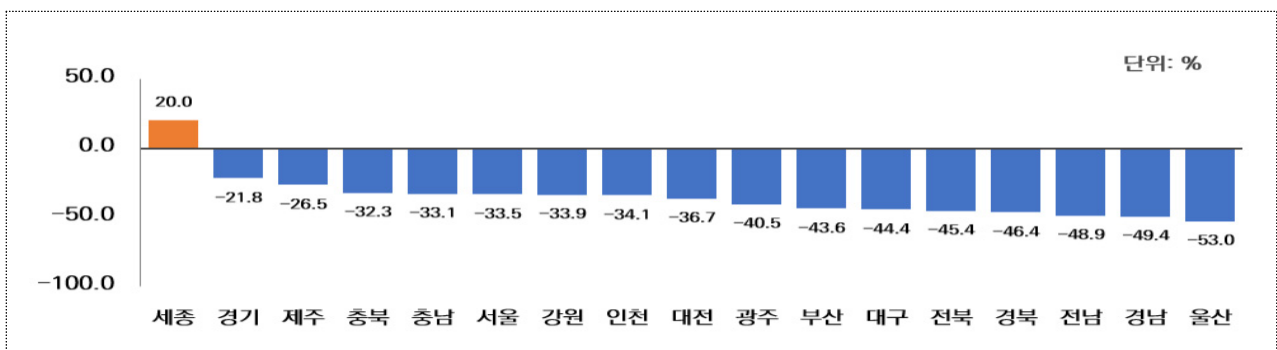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50년, 2022.5

[그림 2-5] 시도별 유·초·중·고등학생 수 변화(2020년 대비 2050년)

○ 유소년인구

- 전국의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631만 명(12.2%)에서 2035년 414만 명(8.1%)으로 감소, 2050년에는 417만 명(8.8%)에 이를 전망.
- 시도별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시도별 유소년인구 비중은 세종이 19.9%로 가장 높고, 서울이 10.3%로 가장 낮았으며 2050년 유소년인구 비중은 세종과 제주가 10%대를 유지, 나머지 15개 시도는 1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
- 2020년 대비 2050년 유소년인구는 세종이 20.0%(1만 명) 증가했지만, 울산(-53.0%), 경남(-49.4%), 전남(-48.9%) 등 8개 시도는 40% 이상 감소.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50년, 2022.5

[그림 2-6] 시도별 유소년인구 수 변화(2020년 대비 2050년)

[표 2-12] 시도별 유소년인구 및 구성비, 2020~2050년

지역	0~14세 인구(만 명)							구성비(%)					
	'20	'25	'35	'45	'50	2020년 대비 2050년		'20	'25	'35	'45	'50	2020년 대비 2050년 증감 (%)
						증감	증감률(%)						
전국	631	525	414	445	417	-214	-33.9	12.2	10.2	8.1	9.1	8.8	-3.4
서울	99	77	62	70	66	-33	-33.5	10.3	8.3	7.1	8.5	8.3	-2.0
부산	36	30	21	22	20	-16	-43.6	10.7	9.3	7.1	8.2	8.1	-2.6
대구	29	23	17	17	16	-13	-44.4	11.8	10.1	7.9	9.0	8.8	-3.0
인천	37	31	24	26	24	-13	-34.1	12.5	10.3	8.0	8.9	8.6	-3.9
광주	20	16	12	13	12	-8	-40.5	13.3	11.2	9.1	10.0	9.7	-3.6
대전	19	15	12	13	12	-7	-36.7	12.5	10.4	8.7	9.8	9.5	-3.0
울산	16	13	8	8	7	-8	-53.0	13.7	11.6	8.4	8.8	8.7	-5.0
세종	7	7	7	9	8	1	20.0	19.9	17.4	13.7	14.1	13.2	-6.7
경기	180	157	133	149	141	-39	-21.8	13.4	11.2	9.1	10.2	9.8	-3.6
강원	17	14	11	12	11	-6	-33.9	11.2	9.4	7.4	7.9	7.6	-3.6
충북	20	17	14	14	13	-6	-32.3	12.1	10.2	8.2	8.7	8.3	-3.8
충남	28	23	19	20	19	-9	-33.1	12.7	10.6	8.4	8.9	8.5	-4.3
전북	21	17	12	13	12	-10	-45.4	11.7	9.7	7.5	8.1	7.7	-4.0
전남	21	17	12	12	11	-10	-48.9	11.7	9.9	7.2	7.4	7.1	-4.7
경북	30	25	18	17	16	-14	-46.4	11.3	9.5	7.0	7.4	7.1	-4.2
경남	43	35	24	24	22	-21	-49.4	13.0	10.8	7.7	8.1	7.9	-5.1
제주	10	9	7	8	7	-3	-26.5	14.4	12.6	9.8	10.6	10.1	-4.3
수도권	316	264	220	245	231	-85	-26.9	12.1	10.1	8.3	9.5	9.2	-2.9
중부권	90	77	63	68	63	-27	-29.7	12.5	10.6	8.6	9.3	8.8	-3.7
호남권	71	59	44	45	41	-30	-42.5	12.4	10.5	8.1	8.7	8.3	-4.1
영남권	153	125	87	88	81	-72	-46.9	11.9	10.1	7.5	8.2	8.0	-3.9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25년, 2022.5

○ 학령인구

-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35년 495만 명으로 294만 명이 급감한 후 2050년 481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

- 시도별 학령인구는 2020년 대비 2050년 학령인구는 세종이 40.1%(3만 명) 증가했지만, 울산(-53.7%), 전북(-51.6%), 전남(-50.8%) 등 5개 시도는 50% 이상 감소할 전망
- 권역별 학령인구는 향후 30년간 학령인구는 수도권 127만 명(-32.7%), 영남권 96만 명(-50.0%), 호남권 43만 명(-47.0%), 중부권 42만 명(-35.9%) 순으로 감소할 전망

[표 2-13] 시도 학교급별 학령인구(6~21세), 2020~2050년

전국	학령(6세~21세) 인구(만 명)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2020년 대비 2050년	
						증감	증감률(%)
서울	789	694	495	465	481	-308	-39.1
부산	129	107	73	70	74	-55	-42.8
대구	46	40	27	23	24	-23	-48.7
인천	38	32	21	18	19	-19	-50.1
광주	45	40	28	27	28	-17	-37.8
대전	26	22	15	14	14	-12	-47.0
울산	26	20	14	13	14	-12	-47.4
세종	18	16	11	9	8	-10	-53.7
경기	7	9	9	9	10	3	40.1
강원	215	200	153	152	160	-55	-25.6
충북	23	19	14	13	13	-9	-40.9
충남	26	22	16	15	16	-10	-38.6
전북	35	30	22	21	22	-13	-37.7
전남	29	24	15	14	14	-15	-51.6
경북	26	23	15	13	13	-13	-50.8
경남	38	33	22	19	19	-19	-49.6
제주	52	47	31	26	26	-26	-50.3
수도권	11	11	8	8	8	-3	-26.6
중부권	389	347	254	250	262	-127	-32.7
호남권	115	100	75	72	74	-42	-35.9
영남권	92	79	54	48	49	-43	-47.0
영남권	192	167	112	95	96	-96	-50.0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25년, 2022.5

[표 2-14]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 2020~2050년

전국	초등학교 학령(6세~11세) 인구 (만 명)					2020년 대비 2050년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증감	증감률(%)
서울	272	234	152	186	169	-104	-38.0
부산	42	34	21	28	26	-16	-38.4
대구	16	14	8	9	8	-7	-47.2
인천	12	11	6	7	7	-6	-47.4
광주	16	14	9	11	10	-6	-38.3
대전	9	7	5	5	5	-4	-44.4
울산	8	7	4	5	5	-3	-41.2
세종	7	6	3	3	3	-4	-56.1
경기	3	3	3	4	3	1	17.3
강원	78	70	49	63	57	-20	-26.1
충북	7	6	4	5	5	-3	-37.3
충남	9	7	5	6	5	-3	-36.3
전북	12	10	7	8	8	-5	-37.5
전남	9	7	5	5	5	-5	-49.4
경북	9	8	5	5	4	-5	-52.1
경남	13	11	7	7	7	-6	-49.7
제주	19	16	9	10	9	-10	-53.1
수도권	4	4	3	3	3	-1	-29.9
중부권	135	117	79	102	93	-42	-31.3
호남권	39	34	24	28	26	-13	-33.8
영남권	31	26	16	19	17	-15	-46.2
영남권	67	57	33	37	33	-34	-50.3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25년, 2022.5

[표 2-15]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 2020~2050년

전국	중학교 학령(12세~14세) 인구(만 명)					2020년 대비 2050년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증감	증감률(%)
서울	136	140	76	92	93	-44	-31.9
부산	22	21	10	14	14	-8	-35.7
대구	8	8	4	5	5	-3	-40.0
인천	6	6	3	4	4	-3	-43.2
광주	8	8	4	5	5	-3	-32.1
대전	4	4	2	3	3	-2	-40.4
울산	4	4	2	3	3	-2	-39.0
세종	3	3	2	2	2	-2	-50.2
경기	1	2	1	2	2	1	50.0
강원	38	41	24	31	31	-7	-17.7
충북	4	4	2	3	3	-1	-33.4
충남	4	4	3	3	3	-1	-29.9
전북	6	6	3	4	4	-2	-30.6
전남	5	5	2	3	3	-2	-45.1
경북	5	5	2	3	2	-2	-46.2
경남	6	7	3	4	4	-3	-43.8
제주	9	10	5	5	5	-4	-46.6
수도권	2	2	1	2	2	-0	-21.0
중부권	68	69	39	50	51	-17	-25.1
호남권	20	20	12	14	14	-5	-27.3
영남권	16	16	9	10	9	-7	-41.0
영남권	33	34	17	19	18	-15	-44.3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25년, 2022.5

[표 2-16]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2020~2050년

전국	고등학교 학령(15세~17세) 인구(만 명)					2020년 대비 2050년	
	'20년	'25년	'35년	'45년	'50년	증감	증감률(%)
서울	139	136	95	85	95	-44	-31.4
부산	23	21	13	12	14	-8	-36.5
대구	8	8	5	4	5	-3	-41.7
인천	7	6	4	3	4	-3	-45.2
광주	8	8	5	5	6	-2	-30.4
대전	5	4	3	2	3	-2	-41.0
울산	4	4	3	2	3	-2	-40.3
세종	3	3	2	2	2	-2	-47.9
경기	1	2	2	2	2	1	85.2
강원	38	39	29	28	32	-6	-15.4
충북	4	4	3	2	3	-1	-34.9
충남	4	4	3	3	3	-1	-28.8
전북	6	6	4	4	4	-2	-28.7
전남	5	5	3	3	3	-2	-46.8
경북	5	5	3	2	3	-2	-46.6
경남	7	7	4	4	4	-3	-43.0
제주	9	10	6	5	5	-4	-44.0
수도권	2	2	2	1	2	-0	-19.3
중부권	68	68	48	45	52	-16	-24.1
호남권	20	20	14	13	15	-5	-26.3
영남권	17	16	10	9	10	-7	-41.8
영남권	34	33	22	18	19	-15	-43.8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25년, 2022.5

[표 2-17] 충청남도 시군별 학령인구 및 증감률

지역	전체(6~21세) 학령인구(명)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20년 대비 '40년	
						증감	증감률(%)
충 남	345,882	304,221	263,701	222,371	203,110	-142,772	-41.3
천안시	120,897	103,894	92,483	80,706	76,100	-44,197	-36.7
공주시	16,524	11,787	9,231	7,591	6,738	-9,786	-59.2
보령시	12,570	10,648	8,614	6,749	5,959	-6,611	-52.6
아산시	60,954	59,948	53,691	45,676	41,898	-19,056	-31.3
서산시	27,612	25,856	22,470	18,921	17,221	-10,391	-37.6
논산시	17,030	13,343	10,697	8,824	7,892	-9,138	-53.7
계룡시	8,755	8,650	7,329	5,994	5,368	-3,387	-38.7
당진시	25,800	24,496	21,201	17,331	15,224	-10,576	-41.0
금산군	8,034	5,474	4,481	3,595	3,139	-4,895	-60.9
부여군	7,251	5,661	4,548	3,631	3,127	-4,124	-56.9
서천군	5,282	4,362	3,486	2,686	2,281	-3,001	-56.8
청양군	3,154	2,832	2,443	2,015	1,709	-1,445	-45.8
홍성군	16,658	13,998	11,850	9,693	8,616	-8,042	-48.3
예산군	9,264	7,689	6,510	5,227	4,530	-4,734	-51.1
태안군	6,697	5,583	4,667	3,732	3,308	-3,389	-50.6

※ 자료 :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보고서.(2020~2024)

2. 이적지·폐교 발생 현황조사

가. 개념 정리

1) 폐교의 개념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하며,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의 활용촉진으로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폐지 학교’를 줄여서 사용한 폐교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폐교가 발생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임.
- 폐교를 ‘Closed School’이라고 하여 다시 열게 될 학교로 보는 관점도 있음(권호, 2008).
- 폐교활용법은 1999년 8월에 제정되었으나 1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펼친 1982년부터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였으나,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됨(전북교육정책연구소, 2017).
-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발생원인임.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아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촌의 쇠퇴와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함.
- 농촌 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교 수가 급격히 증가함(전북교육정책연구소, 2017).
-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매각 등 활용계획과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폐교재산의 특성

- ‘재산’은 개인 또는 법인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화의 집합으로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이며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개념임.

-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하고, 사유재산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일종인 폐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받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정의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종물,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용사업에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규정.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4가지로 구분됨.
-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과, 매각하여 처분이 가능하며 재산으로서 대부, 매각, 양여, 교환, 사권(私權)의 설정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사유재산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음.
- 학교재산이 원래 목적인 교육용일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 폐지가 결정되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던 학교재산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통과와 지방의회에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기존의 폐지된 학교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폐지된 학교재산은 절차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일반재산은 대부나 매각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의하여야 함.
- 공유재산의 관련 법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두며 처분, 관리 등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임.
- 폐지된 학교재산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극적 관리와 유지에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음(박은순, 2018).

3) 학교 이적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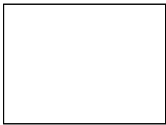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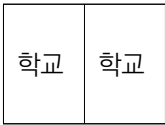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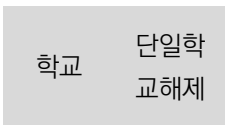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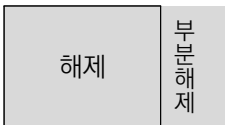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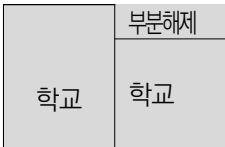
- 학교 이적지란 통상적으로 학교가 이전한 부지로 신문기사 및 정책보도 자료에 사용되어 온 용어임. 그러나 사전적 정의를 검토하면 ‘이적’보다는 ‘이전’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학교 이적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

또는 도시 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이적지 개발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음.

4) 학교 이적지 적용대상 검토

가) 학교 이적지 적용대상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학교 이적지는 학교 전체가 이전하는 부지를 그 대상으로 함. 따라서 학교 이적지는 단일학교 부지의 경우는 학교 전체가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둘 이상의 학교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학교라도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부지를 학교 이적지로 적용함. 단 학교시설의 일부가 해제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해제된 대상지는 학교 이적지로 간주하지 않음. 학교 이적지 적용대상의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단일학교	복수학교(2개교)
결정현황			
학교 이적지 적용 예	①		
	②	-	
	③		

※ 자료 : 서울시(2015)

[그림 2-7] 학교 이적지 적용예시

나) 학교 이적지 구분

- 학교 이적지는 그 생성배경에 따라 신규 이적지와 기존 이적지로 구분되며 기존 이적지는 개발 완료된 이적지와 미개발 이적지로 구분.

- (1) 신규 이적지 : 현재 학교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 재배치 등의 사유로 학교가 해체될 예정인 대상지
- (2) 기존 이적지 : 과거에 학교시설이 이전 완료되어 현재 학교시설이 아닌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지, 개발 완료 이적지는 기존 학교시설이 신규 시설로 개발이 완료된 대상지이며 미개발 이적지는 기존 학교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현재에도 이용하고 있는 대상지를 의미함

나. 저이용 학교 부지 발생 추이

1) 폐교의 발생원인

- 출산율 감소와 도시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농어촌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취학아동 수가 줄어듦.
-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청·장년층 인구가 취업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인구가 유출된 농산어촌은 청·장년층의 인구감소만 아니라 유·소년층의 인구도 함께 단위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짐.
- 도농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격차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도시의 인구 과밀과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 교육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의 인구감소는 학령아동의 감소로 이어져 학교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교육효과의 질적 하락, 재정 투자의 소외, 시설투자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됨.
- 1982년부터 시행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통해 폐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정부는 소규모학교가 국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음.

2)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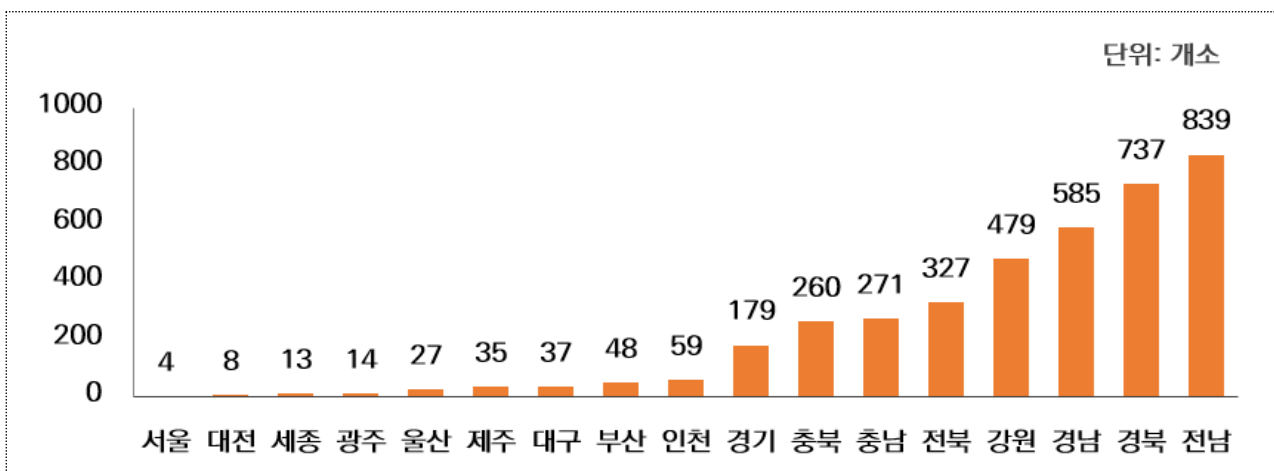
- 농촌폐교 발생과 활용현황은 교육부의 ‘폐교재산 활용현황(2023.03)’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17개 시도 현재 폐교된 학교는 3,922교이며 이중 매각된 폐교는 2,587(66%)교이며 1,335(34%)교가 활용되고 있거나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

-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총 1,335교이고, 이 중 358(26.8%)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 현재 활용 중인 폐교 977교 중 566(58%)교는 대부(임대)이며, 교육청 자체활용으로 이용되는 폐교는 411(42%)개소가 있음.
- 전국 폐교 3,922교를 기준으로 전남교육청으로 839(21.4%)교가 폐교되어 순위가 가장 높고 충남은 271(10.4%)교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임.

[표 2-18]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시도 교육청	폐교 학교 수 (개소)	매각	활용							미활용
			대부(임대)						자체 활용	
			교육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득 증대 시설	기타		
합계	3,922	2,587	194	30	78	15	204	45	411	358
비율(%)	100.0	66.0	4.9	0.8	2.0	0.4	5.2	1.1	10.5	9.1
서울	4	1	-	-	-	-	-	-	-	3
부산	48	20	2	-	-	-	-	-	24	2
대구	37	20	1	-	-	-	-	1	15	-
인천	59	40	3	1	-	-	-	-	8	7
광주	14	8	1	-	2	-	-	-	3	-
대전	8	5	1	-	-	-	-	-	1	1
울산	27	10	-	1	-	-	1	-	11	4
세종	13	12	-	-	-	-	-	-	1	-
경기	179	58	36	2	8	3	10	3	42	17
강원	479	276	24	2	11	1	78	5	27	55
충북	260	131	19	7	8	-	45	1	28	21
충남	271	216	8	-	1	2	2	-	24	18
전북	327	272	2	2	4	1	1	-	39	7
전남	839	658	15	2	4	1	14	2	61	83
경북	737	496	45	5	21	4	17	28	67	54
경남	585	360	36	8	16	4	26	4	56	75
제주	35	4	1	-	3	1	10	1	4	11

※ 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리(<http://eduinfo.go.kr/>) 2023.03.01.



[그림 2-8] 시도교육청 폐교 순위(2023.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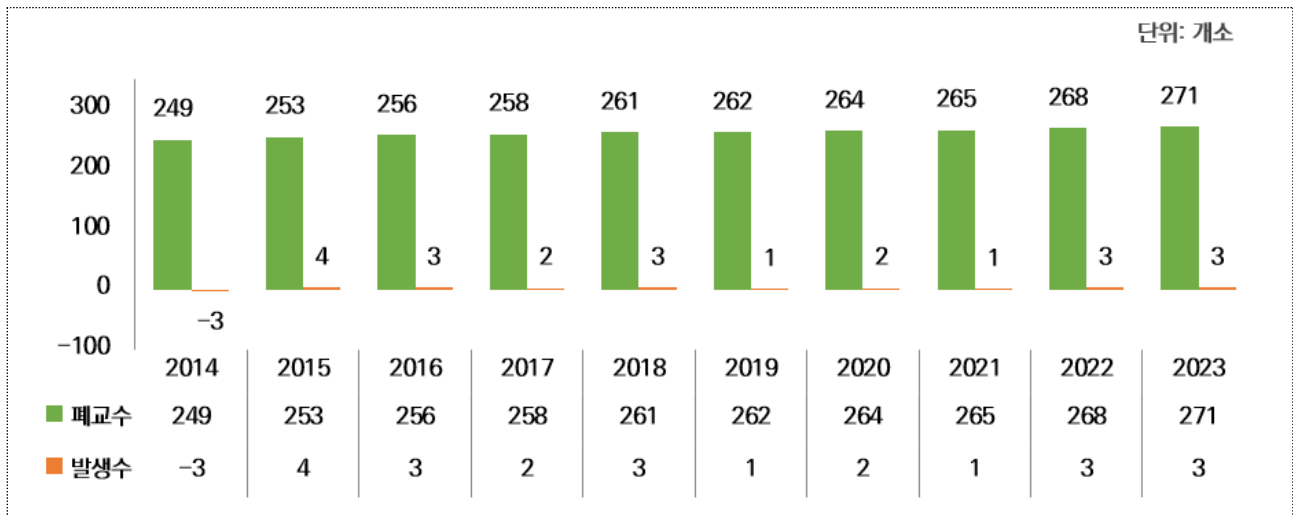
3)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현황

- 충청남도 폐교 수는 2014년 세종시 출범으로 2013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249교를 기준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1교로 총 22교가 늘어남

[표 2-1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재산 연도별 발생 및 활용

기준일	폐교 학교수 (A=B+C)	전년대 비변동	매각 완료 (B)	보유 (C=D+E)	활용현황									미활용 (E)
					대부(임대)							자체 활용	계 (D)	
					교육 시설	시책 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득 증대 시설	기타	소계			
2023	271	3	216	55	8	0	1	2	2	0	13	24	37	18
2022	268	3	215	53	7	0	2	1	4	0	14	22	36	17
2021	265	1	210	55	7	1	1	0	4	0	13	15	28	27
2020	264	2	209	55	6	1	1	0	3	0	11	14	25	30
2019	262	1	201	61	6	1	1	0	4	2	14	16	30	31
2018	261	3	198	63	6	1	1	0	5	2	15	16	31	32
2027	258	2	191	67	7	1	1	0	5	3	17	17	34	33
2016	256	3	191	65	10	1	0	0	5	3	19	17	36	29
2015	253	4	189	64	10	2	4	0	3	0	19	17	36	28
2014	249	-3	182	67	11	5	3	0	3	0	22	16	38	29

※ 자료 : 위 자료는 교육부 연도별 폐교재산 활용현황을 근거로 재작성



[그림 2-9] 충청남도 연도별 폐교 발생 추이(2023.3.1. 기준)

- 충청남도 시군별 폐교재산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7교로 가장 적으며 부여군이 29교로 가장 많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총 271교 중 초등학교 262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교이며, 중학교는 금산(1교) 부여(2교) 청양(2교) 태안(1교) 홍성(2교), 고등학교는 청양(1교) 순임

-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18교이며 공주(2교) 금산(1교) 논산계룡(3교) 부여(1교) 서산(2교) 예산(2교) 천안(1교) 태안(3교) 홍성(3교)이며, 나머지 5시도(당진, 보령, 서천, 아산, 청양)는 미활용 폐교재산이 없음.
- 활용되고 있는 폐교재산은 매각(216교) > 자체활용(24교) > 대부(13교) 순으로 나타남.

[표 2-20] 충청남도 시군별 폐교 현황

지역	급별				활용현황				기타
	계	초	중	고	매각	대부	자체활용	미활용	
공주	27	27	0	0	21	1	3	2	
금산	19	18	1	0	16	0	2	1	
논산계룡	22	22	0	0	12	4	3	3	
당진	14	14	0	0	11	1	2	0	
보령	22	22	0	0	19	0	3	0	
부여	29	27	2	0	27	1	0	1	
서산	22	22	0	0	18	1	1	2	
서천	20	20	0	0	18	0	2	0	
아산	8	8	0	0	7	0	1	0	
예산	16	16	0	0	12	1	1	2	
천안	7	7	0	0	5	1	0	1	
청양	21	18	2	1	20	0	1	0	
태안	27	26	1	0	23	0	1	3	
홍성	17	15	2	0	7	3	4	3	
계	271	262	8	1	216	13	24	18	

※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eduinfo.go.kr/>) 2023.03.01. 시도교육청_폐교 목록 재작성

나. 기부지 활용방안 분석

1) 폐교활용 근거

- 199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이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1999년 신규 제정 이후 폐교활용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폐교활용에 대한 신규 용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 농어업법인 등 다양한 운영 주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을 해왔음.
- (2002.12월 개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업무가 증폭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법 제2조에 추가함.

- (2007.1월 개정)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관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해 대부 감액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대부 조건을 개선함.
- (2012.3월 개정) 지역 기부로 설립한 폐교에 대해 그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기부한 자가 사용하거나, 폐교재산 소재 지역의 주민이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하도록 개정함.
- (2019.8월 개정) 폐교재산 사용 시설 범위에 교육용 시설인 야영장과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특례(수의계약, 무상대부, 사용료 감액 등) 적용대상에 지역 소재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촌계까지 확대함.
- 2016년 7월 5일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폐교 학교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 폐교활용법을 보완하는 법령

- 폐교활용법과 함께 폐교활용에 관련된 법령 중 하나로 공유재산법이 있음.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 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6.1월 제정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의 활용성 제고 및 청년 인재들이 찾아오는 문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4년부터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폐교 활용범위

- 폐교재산 사용범위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임대하여 활용 및 활용될 수 있음.
-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의 용도는 신설 학교의 용지, 학생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학생 체육시설, 대안 교육시설, 교직원 사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매각된 폐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에 매각되고, 매각한 폐교는 주로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2-21] 폐교활용 유형 및 세부 사례

활용 유형		활용 사례
매각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자체 또는 민간에 매각되며, 매각된 폐교는 주로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
대부	교육용 시설	체험학습장,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을정보화센터
	문화 시설	문화·예술작업장, 주민 문화 체험장, 공예품 전시장 등
	공공체육 시설	주민체육시설, 야구 연습장, 수상 레포츠 교육 등
	소득증대 시설	지역특산물 가공장, 농촌 체험 시설, 경작지 등
	기타	캠핑장, 도서관, 태양광연구소, 고시원, 창고, 주차장 등
자체 활용		신설 학교용지, 학생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학생 체육시설, 대안 교육 시설, 교직원 사택

4) 충청남도 폐교재산 활용

- 2023.3.1.자 기준, 충청남도교육청 폐교자산은 271교이며, 매각 및 교육기관 설립 등 232교 처리 완료, 관리 중인 폐교 39교(대부 13교, 자체활용 8교, 미활용 18교)는 보존관리 중임.
- 교육부 통계자료 자체활용 24개교 중 16개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 설립 등으로 활용으로 구분하고 있어 매각 및 교육기관이 232개로 나타남.

가) 기관설립 등으로 활용 처리 완료 폐교 재산(16교)

[표 2-22] 기관설립 등으로 자체활용 처리 완료 폐교 현황(16교)

연번	지역	폐교명	폐교년도	자체활용 용도(기관명)	활용연도	비고
1	공주	반포초 마암분교	1991년	충남과학고등학교	1994년	고등학교
2	공주	장기초 송선분교	1998년	공주학생수영장	2000년	수영장
3	보령	정곡초	1992년	상상이룸교육센터	1992년	체험학습장
4	보령	창미초	1999년	창미특기적성센터, 보령창미유치원	1999, 2014	체험학습장, 유치원
5	아산	백석포초	2007년	아산한돌유치원	2012년	유치원
6	서산	명봉초	1998년	서산성봉학교(특수학교)	1999년	특수학교
7	논산	시묘초	1997년	충남학생롤러스케이팅장	1997년	체육시설
8	논산	성광초	2011년	성광온누리학교	2018년	특수학교
9	논산	동산초	2015년	놀이종합체험학습장	2015년	체험학습장
10	당진	면천초 죽동분교	1994년	당진외국어교육센터	2005년	교육기관
11	당진	용연초	2000년	당진용연유치원	2003년	유치원
12	금산	금류초	1992년	학생수영장	1994년	수영장
13	금산	부리초 부동분교	1998년	비단골체험학습장	2007년	체험학습장
14	서천	월성초	1994년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유아교육원	2022년	교육기관
15	홍성	산수초	2007년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2010년	교육기관
16	홍성	광천여중	2014년	충남드론항공공 드론교육 및 실습장	2020년	체험학습장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이전재산(2023)

나) 보존관리 중 폐교재산 지역별 현황 및 활용현황(39교)

(7) 대부시설은 교육시설(8), 문화시설(1), 공공체육시설(2), 소득증대시설(2)로 활용되고 있음.

(8) 자체활용은 교육시설 설립, 교육시설 및 교육용으로 활용 중

(9) 보존관리 중인 폐교는 매각 및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계획 중

(10) 건물 면적이 없는 폐교는 철거된 폐교임.



[그림 2-10] 보존관리 중 폐교재산 분포(39교)(2023.3.1. 기준)

[표 2-23] 지역별 폐교재산 활용 및 활용현황(39교)

연번	지역	학교명	폐교연도	위치	면적	활용현황	특장점
1	천안	병천초등학교 봉성분교장	2007년(주건물 건축 1970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253	부지 10,290㎡, 건물 878㎡	보존관리 (장래 교육행정 수요 대비)	면소재지 내 위치, 목천 IC 14.8km 접근성 용이
2	천안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	2000년(주건물 건축 1988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남안리 86	부지 11,935㎡, 건물 1,195㎡	대부중 (교육용시설)	목천 IC 14.9km 접근성 용이
3	당진	도성초등학교	2014년(주건물 건축 1985년)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35-9	부지 11,510㎡, 건물 1,301㎡	대부중 (드론교육)	면소재지 내 위치, 당진-대산 고속도로 개통시 접근성 용이(국유지8,756㎡별도)

4	서산	삼포초등학교	1999년(주건물 건축 1993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부지 14,580㎡, 건물 1,110㎡	보존관리 (장래 교육행정 수요 대비)	면소재지 내 위치, 해미IC 10.6km로 접근성 용이
5	서산	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2009년(주건물 건축 1972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부지 8,966㎡, 건물 1,361㎡	대부중 (문화예술체험학교)	면소재지 내 위치, 해미IC 20.8km로 접근성 용이
6	서산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	2023년(주건물 건축 2020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159	부지 1,322㎡, 건물 287㎡	보존관리 (자체활용 검토)	섬지역 위치
7	태안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장	2021년(주건물 건축 1972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202	부지 7,256㎡, 건물 877㎡	보존관리 (토지정화 필요)	도로 옆으로 접근성 우수
8	태안	고남초등학교 영향분교장	1999년(건물 철거)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96-4	부지 12,797㎡	보존관리 (장래 교육행정 수요 대비)	해안가에 위치하여 보령 원산도 안면도 영목간 연륙교 건설
9	태안	원이중학교 이원분교장	2022년(주건물 건축 1985년)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291-1	부지 1,646㎡, 건물 1,195㎡	자체활용 (이원초 관동분교 학습장)	벗꽃 관광명소(가재산) 인근 위치
10	태안	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2023년(주건물 건축 1971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337	부지 5,974㎡, 건물 736㎡	보존관리 (자체활용 방안 검토)	해안가 위치
11	홍성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	2015년(주건물 건축 1970년)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28	부지 11,648㎡, 건물 1,197㎡	매각추진 (공개경쟁 입찰)	면소재지 위치, 광천IC 10km로 접근성 용이
12	홍성	광남초등학교	2014년(주건물 건축 1970년)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353-2	부지 10,201㎡, 건물 1,867㎡	대부 (교육연수시설)	읍소재지 위치, 광천IC 4.3km로 접근성 용이
13	홍성	대평초등학교	2014년(주건물 건축 1970년)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318	부지 9,258㎡, 건물 1,697㎡	매각추진	읍소재지 위치, 광천IC 7.7km로 접근성 용이
14	홍성	광성초등학교	2015년(주건물 건축 1976년)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부지 14,451㎡, 건물 1,364㎡	대부중 (박물관 및 도서관)	면소재지 위치, 홍성IC 7.6km로 접근성 용이
15	홍성	결성중학교	2018년(주건물 건축 1965년)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29	부지 25,620㎡, 건물 1,851㎡	대부중 (공공체육시설 등)	대부기간 중 홍성군에 매각 예정
16	홍성	덕명초등학교	2019년(주건물 건축 1991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2	부지 11,596㎡, 건물 3,965㎡	자체활용 (덕명학습장)	읍소재지 위치, 광천IC 3.8km로 접근성 용이

17	홍성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2017년(주건물 건축 1971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630-5	부지 23,889㎡, 건물 1,636㎡	자체 매각협의 (돌봄마을 조성)	면소재지 위치, 광천IC 17.5km로 접근성 용이
18	홍성	학계초등학교	1992년(건물 철거)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부지 13,671㎡	자체활용 (양궁 연습장)	읍소재지 위치, 광천IC 12.2km, 홍성IC 13km로 접근성 용이
19	예산	대룡초등학교	1999년(건물 예산군 매각)	예산군 대룡리 476-1	부지 21,583㎡	자체활용 (기록원 설립 중)	
20	예산	장신초등학교	1999년(건물 철거)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490	부지 9,988㎡	매각추진 (공개경쟁 입찰)	예당저수지 인근(10분이내)
21	예산	광시초등학교	1999년(주건물 건축 1981년)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7	부지 28,379㎡, 건물 900㎡	지자체 매각협의 (농촌가족캠핑장)	예당저수지 인근(10분이내)
22	예산	만사초등학교	1999년(건물 철거)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44-2	부지 7,773㎡	대부중 (지역주민 소득 증대)	신양IC 1.5km로 접근성 용이, 건물 없음
23	공주	대룡초등학교	2007년(주건물 건축 1970년)	공주시 신풍면 대룡리 407-2	부지 9,433㎡, 건물 1,164㎡	대부중 (공주치즈스쿨)	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 우수
24	공주	탄천초등학교 가척분교장	1999년(건물 철거)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491	부지 7,346㎡	매각추진 (공개경쟁입찰)	부여군과 경계 위치
25	공주	주봉초등학교	2017년(주건물 건축 1972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50-4	부지 17,307㎡, 건물 2,254㎡	지자체 매각협의 (청년농촌보금자리)	공주 시내와 가까우며, 남공주IC 4.4km로 접근성 용이
26	공주	우성초등학교 봉현분교장	1999년(건물 철거)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62-1	부지 10,666㎡	자체활용 (교육가족체험장 설립 중)	공주교육지원청에서 23km, 면소재지에서 10km에 위치
27	청양	장평중학교	2020년(건물 철거)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14	부지 19,427㎡	자체활용 (건강증진교육체험 관 설립 중)	면소재지 내 위치, 부여군 경계, 청양IC 7.5km로 접근성 용이
28	보령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장	2023년(주건물 건축 1984년)	오천면 녹도리 360	부지 3,372㎡, 건물 517㎡	자체활용 (외연도분교(유) 호도학습장)	섬지역 위치
29	서천	종천초등학교	1998년(건물철거)	종천면 화산리 191-2	부지 11,025㎡	자체활용 (서천미래교육지원 센터 설립 중)	서천군에서 3.4km에 위치 접근성 용이

30	부여	임주초등학교	1995년(건물 철거)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521-1	부지 13,600㎡	보존관리 (향후 교육용 활용 예정)	
31	부여	인세초등학교	2018년(주건물 건축 1964년)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503	부지 6,726㎡, 건물 2,538㎡	대부중 (부여군, 세도노인대학)	운동장 자체 활용(교육가족체험장)
32	논산계룡	함산초등학교	2002년(주건물 건축 1964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508-4	부지 22,294㎡, 건물 1,252,77㎡	운동장 대부 (파크골프, 경작)	면소재지 위치, 논산IC 6.9km로 접근성 용이, 주변에 탐정호 있음
33	논산계룡	호암초등학교 삼동분교장	1994년(주건물 건축 1967년)	논산시 노성면 노티리 205-1	부지 7,070㎡, 건물 752㎡	대부중 (도에 체험장)	면소재지 위치, 공주시 경계, 탄천IC 5.km, 공주역 3.12km 위치
34	논산계룡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장	1997년(주건물 건축 1973년)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566-2	부지 9,444㎡, 건물 1,055㎡	보존관리 (자체활용, 매각 등 검토)	면소재지 위치, 양촌IC 1.37km로 접근성 용이, 주변에 대둔산 있음
35	논산계룡	호암초등학교	2012년(주건물 건축 1985년)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312	부지 14,324㎡, 건물 2,074㎡	대부중 (문화예술체험 학습장)	면소재지 위치, 공주시 경계, 탄천IC 2.57km, 공주역 5.73km 위치
36	논산계룡	부적초등학교 부남분교장	2007년(주건물 건축 1964년)	논산시 부적면 탐정리 256-3	부지 9,431㎡, 건물 967㎡	대부중 (목공예 체험장)	부적면소재지 위치, 주변에 탐정호 저수지와 백제군사박물관이 있음
37	논산계룡	대명초등학교	2022년(주건물 건축 1967년)	논산시 상원면 대촌리 268	부지 16,847㎡, 건물 2,128㎡	보존관리 (자체활용, 매각 등 검토)	면소재지 위치, 탄천 IC 14km, 공주역 10km
38	논산계룡	황화초등학교	2022년(주건물 건축1971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1390	부지 38,928㎡, 건물 2,644㎡	보존관리 (자체활용, 매각 등 검토)	읍소재지 위치, 연무대고속버스터미널 6.9km
39	금산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	2011년(주건물 건축 1971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05-1	부지 10,368㎡, 건물 1,063㎡	지자체 매각협의 (농촌주거개선)	면소재지 내 위치, 대전과 경계, 추부IC 6.3km로 접근성 용이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폐교재산 이렇게 활용합니다!」 (2023발간)를 근거로 재작성

III 국내·외 사례 검토 분석

1. 선행연구 조사·분석
 2. 국내·외 사례분석
 3.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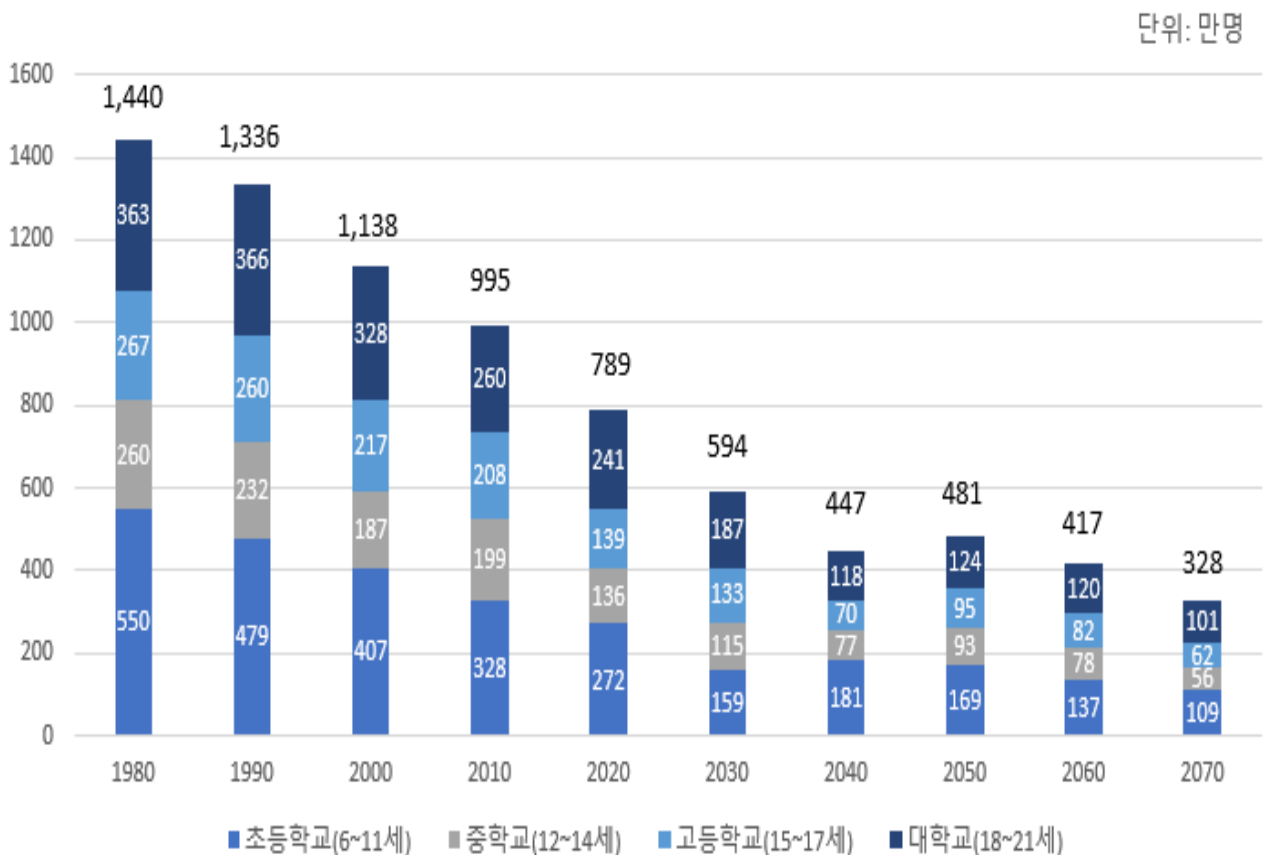
Ⅲ. 국내·외 사례 검토 분석

1. 선행연구 조사·분석

가.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폐교 증가에 따른 지역 활력 감소

-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산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폐교위기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자료 : 통계청

[그림 3-1] 전국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 또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학교 통폐합 추진 결과로 폐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적·경제적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학생의 학습권, 복지, 지역사회의 인구이동과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

-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이 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주민참여 연계성 강화방안 도출 필요

2) 폐교 자원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체

- 농산어촌의 폐교는 대체로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충분한 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경우 신축에 비해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폐교 주변의 토지까지 활용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그러나, 폐교활용에 있어 제도상 미비 또는 장애요인으로 외지인이나 기업체에 임대·매각되어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농촌의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 및 청소년 일탈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폐교의 활용은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민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지원금 또는 지자체의 혜택에 의존할 경우 경영 부실의 연속으로 자생적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임.
- ➡ 사례를 통해 매각·활용·미활용 등 폐교 자원 처리방식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폐교 자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확보한 관리방안 및 활용 강화계획 필요

3) 충남 폐교 현황

- 도시 중심 산업화 정책에 따라 농촌과 도시 간 경제·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격차가 늘어나며 대도시의 인구 과밀현상과 함께 농·산·어촌 및 구(舊)도심 지역의 폐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충남의 폐교 학교 수는 2023년 3월 기준 271개소이며 216개소 매각, 55개소 활용 및 활용계획 대상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최초 학교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고 대부분 (80%) 매각 처리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물리적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정서적 활동 공간로서의 활용가치를 배재하는 것으로 폐교활용 및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자산의 유기적·적극적 활용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접근이 용이한 이점이 있는 지역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주민 생활 특성에 맞는 시설로 재편성 필요

- ➡ 조직차원에서 폐교 위기극복 사례분석을 통해 학교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위기극복에 대한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출 필요

4)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분담 필요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의 제2조 폐교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에 근거하여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지역소득증대, 귀농어·귀촌지원(기타)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지역성을 고려한 활용가치를 구상하여야 함.
-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발맞추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의 타당성, 합리성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준비,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폐교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폐교위기 학교의 재생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교의 처리방식과 향후 사용 목적에 따라 학교의 정체성, 지역에 기여 등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성과 각 지자체의 발전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자원 및 정체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충남형 폐교활용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주도하는 운영방식 모색을 통해 주체별 역할의 확립,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의 대응 계획 마련, 자문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근거의 제도적 마련을 목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나. 선행연구 검토

1) 공간의 사회적 역할

- 학교는 전통적으로 교육기관의 역할로 한 사회의 존속, 유지,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과 지혜를 전수하는 장소로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산업·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창식(1999)은 ‘농촌폐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폐교의 교육 목적 외의 활용은 주민 반발, 생활중심지의 소멸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폐교의 처리는 임대나 매각보다

교육청 자체활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폐교를 관리·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임선빈(2015)은 ‘학교 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살펴본 학교 역할)’ 연구에서 상징적 역할과 관련된 교육정책은 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을 돕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서울연구원(2020)은 정규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이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인 학교가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활용 검토가 필요하며 폐교활용 외 학생 감소 등으로 생기는 여유 교실도 여러 용도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폐교활용뿐만 아니라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공간활용의 목적에 있어서도 교육적 역할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연계될 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르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2) 폐교 관련 선행연구 경향

- 농촌폐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폐교의 활용방안 및 특정 활용 용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 그리고 구성원 인식, 계획 방향 제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활용의 형태는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시설, 복합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나타남.

[표 3-1] 폐교활용 방안 선행연구 경향성

선행연구	요약
농촌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조사(김정은 외, 2023)	농촌폐교가 본래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시설활용이 도농공존 거점 공간을 위한 활성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며 ‘농촌’과 ‘학교’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도농의 문화복지 거점 공간으로의 인식 개선과 지원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폐교활용에 관한 연구 - 연기군 지역 폐교 사례를 중심으로(송병하, 2012)	도시와 인접한 폐교는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연수원, 문화체험시설 등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설활용이 바람직하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용하여야 함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폐교 시설 활용방안(유진이 외, 2017)	청소년활동 및 수학여행의 소규모화는 청소년수련원의 소규모화를 가져와 앞으로 소규모 형태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으로 효율성과 효과 측면에서 폐교시설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폐교를 리모델링한 노인시설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나가와구 리모델링 사례를 중심으로(김성룡, 2020)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으로 늘어나는 폐교 시설을 고령자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음

농촌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김정은 외, 2022)	농촌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촌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과 환경,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것은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만이 갖는 강점이자 고유한 정체성으로 도농공존 차원에서 유의미성이 앞으로도 기대됨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 시설 활용계획(최재필 외, 2010)	지역 컨텍스트에 기반한 용도변경 프로그램 개발, 건물증축, 공원화, 주차장 설치 등 학교운동장 개발계획에 근거한 리모델링 공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위한 농촌 지역 폐교의 리모델링 계획(박경옥 외, 2006)	폐교를 농촌지역의 노령화, 저소득, 기초생활시설의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계획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증진에 도움을 줄 것
지역커뮤니티 중심시설로의 농촌폐교 활용에 관한 연구(조현주 외, 2004)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지역과 유리된 시설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고령자를 위한 시설 필요

- 최근 10년간 ‘폐교활용법’에 따른 폐교활용은 소득증대시설 활용이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공공체육시설 활용이 가장 적으며(구희동, 2022) 힐링산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자연자원과 농산물을 활용하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와 휴양을 위한 농촌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도농공존거점공간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휴양치유공간으로 정의되며 최근 시도교육청 및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폐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표 3-2] 폐교위기 극복방안 선행연구 경향성

선행연구	요약
학교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 폐교 위기 극복과정에서 살펴본 학교 역할(임선빈, 2015)	위기기론에 따르면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동기가 성장발달의 계기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조직구성원에게 학교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이유로 폐교를 반대하는지 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위기 극복과정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도출함.
농어촌마을 연계를 통한 폐교위기 초등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복합계획에 관한 연구(노화동 외, 2015)	농어촌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유휴교실을 통해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복합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와 연구가 필요
폐교위기를 극복한 농촌의 한 작은 학교에 대한 질적연구(박승배, 2014)	농산촌의 작은 학교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귀농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자연친화적이고 학생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근 도시지역 학습의 유입을 제시
학교 변화의 새로운 요인 탐색 : 폐교 위기를 극복한 J초등학교 D분교 사례를 중심으로(진동섭 외, 2014)	인적 요인 :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교사의 노력 사회환경적 요인 : 지역사회, 즉 이장의 마을운영 철학과 리더십 물적 요인 : 외부기업의 개입(광고촬영지)으로 예술성, 상징성 확보

3) 주체별 역할과 정책지원

- 충남발전연구원(2012)은 ‘충남 농산어촌 폐교의 실태와 활용성 제고 방안’에서 관의 역할로서 관은 직접적인 관여가 아닌 서포터 역할의 수행,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을 제기함. 또한 경영적 측면에서 개인 단독 운영보다는 마을 공동운영 방식이나 지자체가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장점을 도출함.
 - 서울연구원(2020)은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일반 행정 영역과 긴밀한 사무 연관성을 갖음에도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로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행정적 편의를 위한 관리·운영보다는 도·교육청·지역사회 역할이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음.
 - 류진석 외 3인(2023)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지역의 전문 경력과 활동 역량을 갖춘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농촌 폐교재산 활용의 문화복지시설에서 강사나 봉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농촌 폐교재산 활용 시설장이나 종사자들 대상의 컨설팅 사업 지원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정책추진 방안으로 폐교관리 주체의 조정과 공동협력, 상생발전 협력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지역과의 공생 및 협력체계, 제도의 보완 및 계약제한 완화 등으로 자율적 책임성 부여, 적극적인 사업계획 및 투자 기반 마련이 제기됨**

2. 국내·외 사례분석

가. 국내 사례

- 국내 사례는 폐교활용의 경우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한 용도의 전환이 있으며, 폐교위기 극복 사례의 경우 규모의 축소를 통한 특성화 기관으로의 변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복지·정책서비스 등의 제공 등으로 나타남.

1) 폐교활용 사례

가) 문화·관광 자원화 유형

영덕오토캠핑장			
구 분	폐교활용 - 캠핑장	운영주체	경상북도교육청 (자체활용)
지역/폐교명	경북/ 구)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	시 설	25개 데크, 잔디광장 등 편의시설

※ 영덕오토캠핑장은 이용객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캠핑사이트 추가 증설로 2023년 현재 10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확충되었으며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활용해 포항, 김천, 영덕 3곳에 오토캠핑장을 운영.



KT&G 상상마당 논산			
구 분	폐교활용 - 문화예술체험	운영주체	KT&G (대부)
지역/폐교명	논산/ 구)한천초등학교	시 설	캠핑빌리지, 숙박시설, 공연전시실, 미디어실, 포토라운지, 미니수영장 등

※ KT&G 상상마당 논산은 서울 도심의 홍대 앞 문화공간에 이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 체험교육의 장과 일상에서도 특별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충남 논산의 구)한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교외형 복합문화공간임.

- 주요 콘텐츠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3D 디자인, 상상레이블(음반제작 체험), 상상랩박스(랩 스토리텔링 체험), 이미지투어링, 모듈북 체험,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한 반사되는 빛을 촬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소야랑(Soya-Rang) /추진 중			
구 분	폐교활용 - 복합 커뮤니티 시설	운영주체	웅진군청 (자체활용)
지역/폐교명	인천/ 구)소야초등학교	시 설	전시공간, 체험공간, 공유주방, 휴식공간 등

※ 소야랑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5천만 원(국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군비 25억 5천만 원)이며, 기존 소야도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총 3개 동 규모로 건립.

- 체험공간에는 도자기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전통가마를 설치하기 위해 문경시와 도자기 체험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자기협동조합과 업무 교류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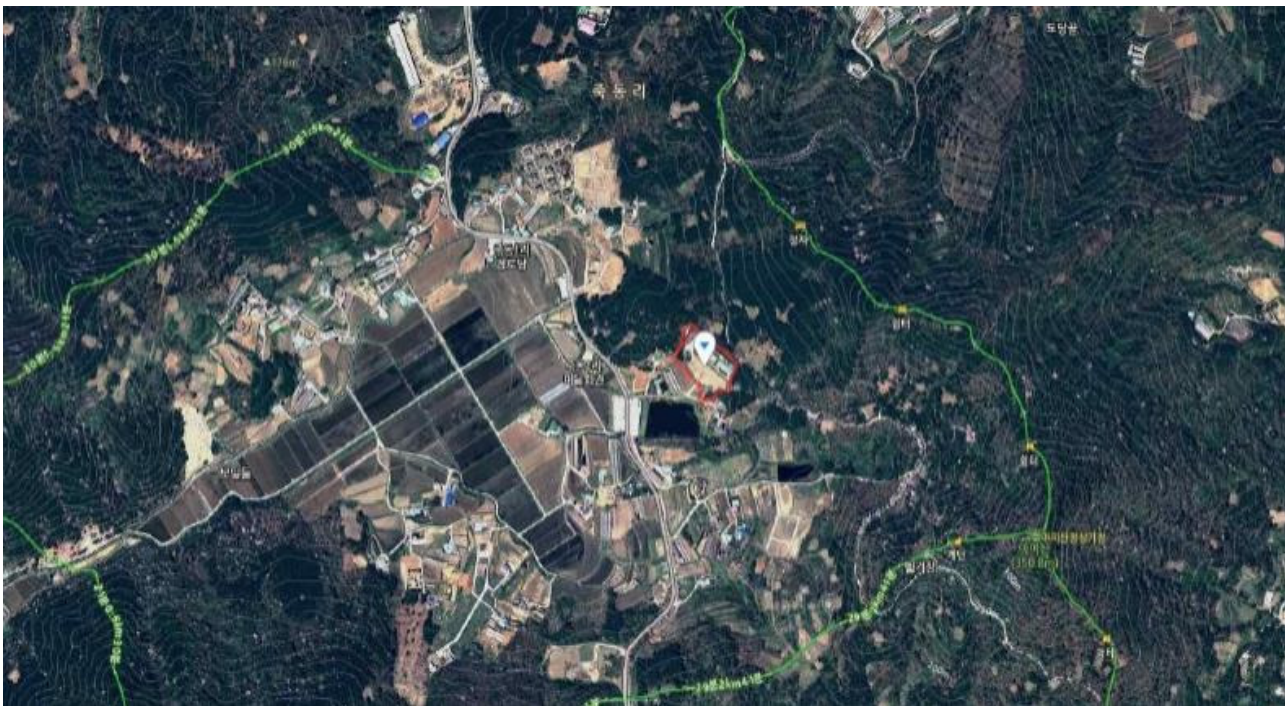
- 교육시설의 기능에서 용도가 전환된 사례들은 도농공존거점 공간으로서 농촌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휴양치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및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폐교를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로 되살린 사례는 젊은 작가를 위한 창작공간 ‘가창 창작 스튜디오 & 스페이스 가창’, 제주를 사랑한 사진작가의 갤러리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미술관 교육공간 ‘시안미술관’ 등 그 형태와 용도가 다양함.

나) 교육기능특성화 유형

당진외국어교육센터			
구 분	폐교활용 -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주체	당진교육지원청 (자체활용)
지역/폐교명	당진/ 구)면천초등학교 죽동분교	시 설	교육장, 안전체험센터 등

※ 당진외국어교육센터는 당진 농어촌 지역의 침체된 교육력을 신장하기 위해 10,702㎡ 부지에 조성. 영어체험과 더불어 전통문화체험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외국어 교육인프라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및 교육문화 조성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접근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시키고 있음.

-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국제이해 마인드를 확대할 예정.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에코스쿨’			
구 분	폐교활용 - 환경체험관	운영주체	환경부·부산시·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청 (자체활용)
지역/폐교명	부산/ 구)반여초등학교	시 설	환경테마관(전시체험), 옥상정원, XR시나리오관, 환경도서관, 생태놀이터 등의 복합문화시설

※ 해운대구는 ‘폐교활용 국가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기후·환경교육 거점인 에코스쿨 사업을 위해 환경부,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환경교육 관련 행정·재정 지원과 협력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7억 원을 투자해 제로에너지 최신기술을 활용한 생태체험과 놀이공간, 시민쉼터로 조성할 계획.

- 또한, 반여 2·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옛 반여초 별관을 리모델링해 반여플러스스쿨로 조성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생활체육관, 작은영화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문화·공동체 거점으로 활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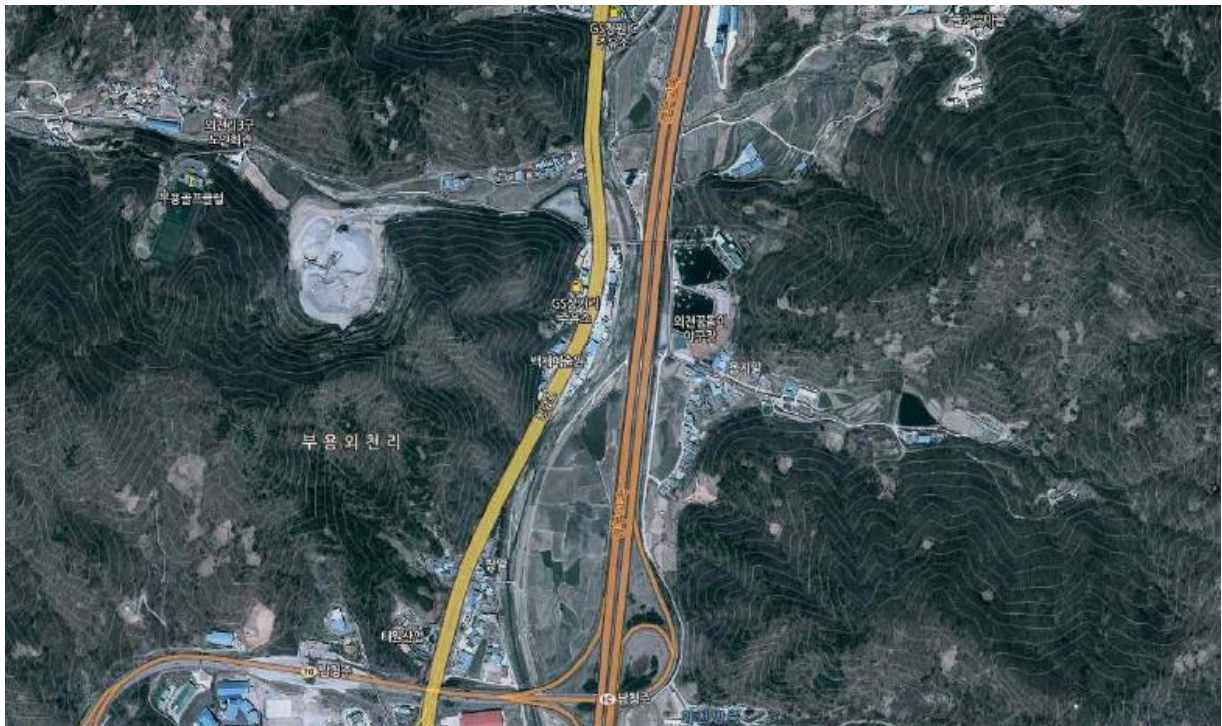
-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환경체험을 위한 방문객 및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경제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대부형태로 포천자연마을 서울캠핑장, 임실파주N치즈스쿨, 엄니의 장독대 등이 있고 교육청 자체활용은 고양교육지원청 Wee센터, 꿈나무훈련장(충북) 등이 있으며 지역재단 매각의 형태로 생물방재센터(전남) 등이 있음.

다) 주민생활체육공간 활용 유형

꿈나무 훈련장(충북학생체육센터)			
구 분	폐교활용 - 체육센터	운영주체	충청북도교육청 (자체활용)
지역/폐교명	청주/ 구)외천초등학교	시 설	리틀야구장, 탁구장, 실내투스연습장, 정구장, 기숙사 등

※ 외천 폐교를 활용한 충북학생체육센터 조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던 학생들에게 전용 경기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체육센터의 야구장은 현재 야구 육성학교인 석교초, 서원초, 우암초, 현도중, 충북사대부고 등 학생 선수들이 이용하며, 탁구장은 오송초, 샛별초, 봉덕초, 남평초, 송절중, 청주고 등 탁구 육성학교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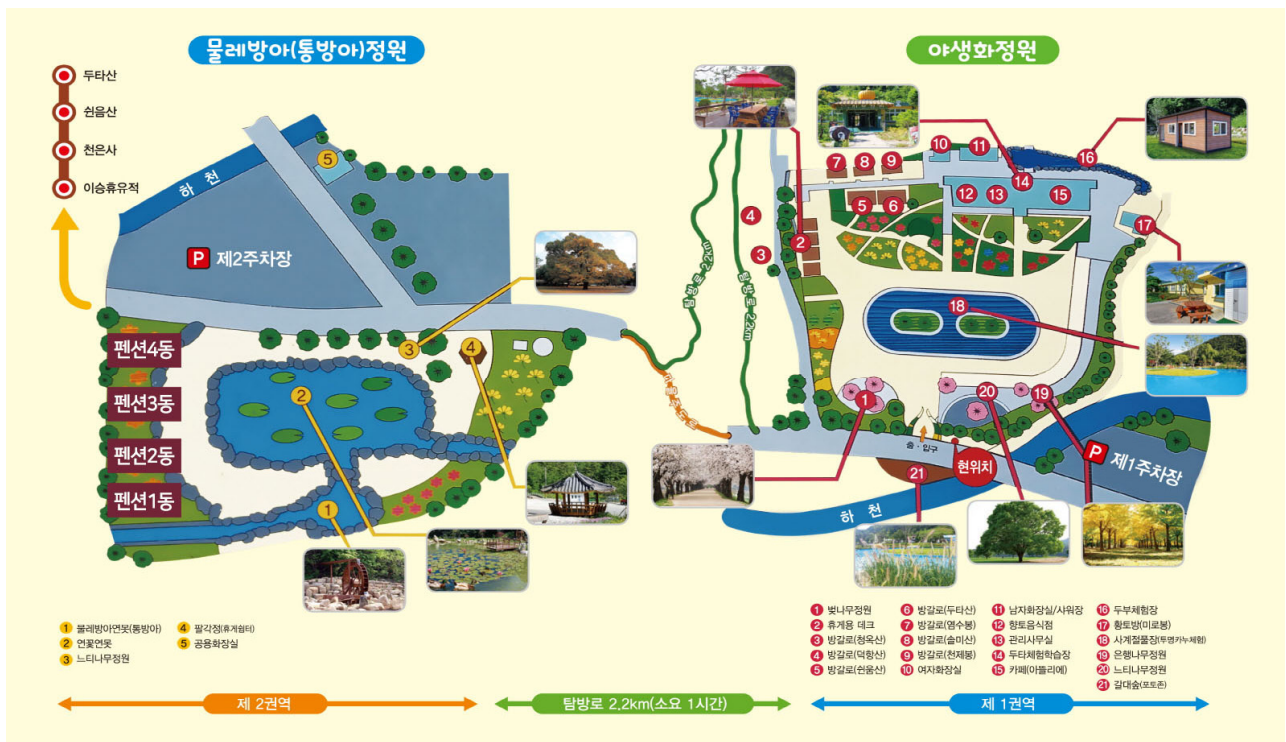


라) 지역주민 소득증대 유형

삼척미로공원			
구 분	폐교활용 - 정원, 리조트	운영주체	구타산영농조합법인 (대부)
지역/폐교명	강원/ 구)미로초교 두타분교	시 설	- 펜션동을 포함한 12개 숙박시설 - 미로주막, 농산물판매장, 정원, 휴게쉼터 등 부대시설

※ 삼척시의 미로정원은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정원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2017.05.31.일 개장. 약 2.2km의 힐링탐방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노곡분교를 리조트로 조성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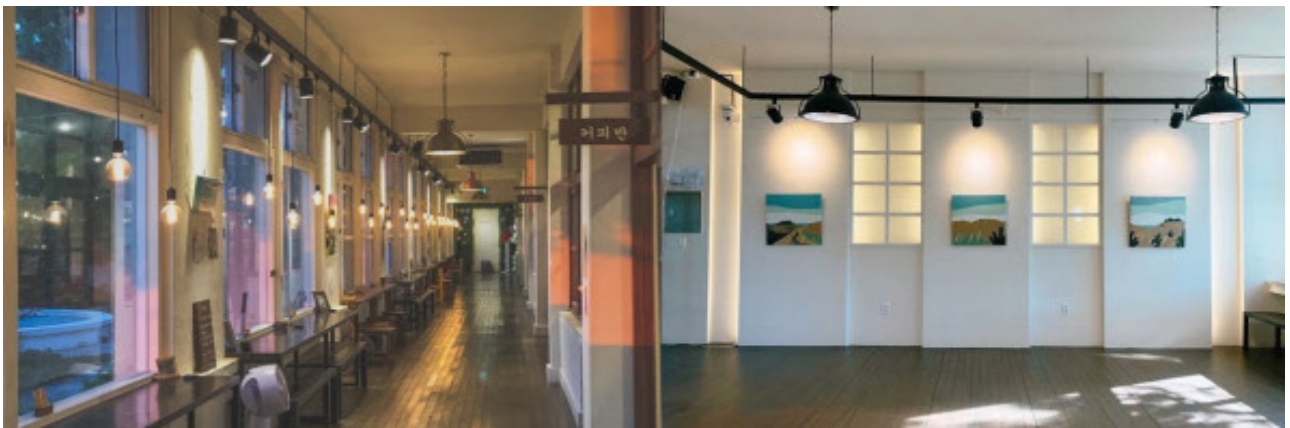
- 소규모 농사로 가계소득을 올리는데 그쳤던 마을에 추가적인 고용 창출과 실버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음은 물론 성공적인 자립형 정원사업 운영모델로 손꼽히고 있음.



명월국민학교			
구 분	폐교활용 - 카페	운영주체	한림읍 명월리 마을청년회 (대부)
지역/폐교명	제주/ 구)명월국민학교	시 설	카페, 전시관 등

※ 2016년 당시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11명이 사업 자금을 모아 명월국민학교에서 웨딩 촬영지 대관사업을 했다.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순항했으나, 교육청에서 상업성이 짙어 운영이 불가하다며 사업중단을 지시. 이후 이장은 운영권을 마을청년회로 넘기면서 2018년 카페로 거듭남. 현재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이 이루어짐.

- 빈 교실을 활용해 갤러리로 활용하여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했으며 핸드메이드 소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 홍보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음.



2) 폐교위기 대응사례

곡성형 농촌유학			
구 분	폐교위기 극복 - 전남지역 작은 학교	운영주체	곡성군·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지역 내 작은 학교

※ 곡성군은 군 차원에서 교육지원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자연에서 즐기는 맞춤형 교육 ‘곡성유학’을 만들었음. 추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곡성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단지를 1개 권역에서 5개 권역까지 확대해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단지인 ‘도담도담 유학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도 함.



(경북)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

구 분	폐교위기 극복 - 경북지역 작은 학교	운영주체	경북교육청·교육공동체 ·지역 내 작은학교
-----	-------------------------	------	---------------------------

※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 공모 추진을 통해 3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공모 대상은 도서벽지 및 면지역 농어촌 초중고 학교로 농어촌 작은학교의 우수사례로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 사례임.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있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 구현이 포커스.



김천 / 조마초등학교

- 우수한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작은학교의 특색을 살린 '조마공 LDW 역량 키우기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조마 교육을 실천해 2018년 5학급 규모의 학교에서 2022년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6학급 규모의 학교로 성장.



문경 / 당포초등학교

- 골프, 도예, 국궁 등 특성화된 11개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모두가 VIP가 되는 '꿈키움 끼돋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결과, 2021학년도 학생 수 24명에서 2022학년도 38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공감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하는 운동회 등 작은학교의 이점을 살려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육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포항 / 청하중학교

- 음악적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으로 1인 1악기 교육과 연계한 관송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 조화로운 인성 함양과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STEAM 프로그램과 관송과학탐구반 활동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 폐교위기 대응사례는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연계,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정책적 지원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세부 사례는 아래와 같음

구분	특성	구분	특성
A	일자리 연계	D	생활 SOC 지원
B	주거 제공	E	특화 콘텐츠 제공
C	기업 협력	F	제한 완화, 정책지원

[표 3-3] 폐교위기 대응 국내 사례

구분	사례	제공 서비스
ABEF	전남 해남군 북일초·중학교	-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모집 캠페인 추진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제공, 장기 LH 임대주택 및 농촌유토피아 입주 - 지역 일자리 알선(고용플러스센터 후원) - 향토 김장김치, 향토미 제공/ 텃밭에서 키우는 ‘초당상추’ 로컬푸드 - 귀농자에게 년 간 60만 원 지원 - 전교생 해외연수, 공부방 꾸미기 비용지원, 온종일 무료 돌봄 등
EF	전남 영광군 묘량중앙초등학교	-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 면 지역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스쿨버스 운영 - 방과후 학교 운영(가야금, 피아노, 바이올린, 컴퓨터 등)
B	제주도 애월읍 애월초등학교 덕력분교	- 임대주택 제공 - 전국을 대상으로 취학아동 모집하는 ‘학교살리기 운동’
E	제주도 애월읍 금악초등학교	- 제주형 자율학교(다훈디배움학교) 운영 - 보물섬 문화확산 - 현이 만드는 아름다운 올림 ‘악기여행’ - 색채로 그리는 감성 ‘그림여행’ - 들엄시민 고람시민 ‘톡톡영어’ 등 다채로운 교과과정 운영 - 학부모 교육과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CE	인천 옹진군 덕적고등학교	- 체육특성화학교 추진 - 야구부 창단 섬주민 서명운동 - 건설업체 1억 후원 + 주민협조
F	전남 신안군 자라분교	- 인구유입정책으로 임자도,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에 햇빛연금 지급 -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햇빛연금 가중치 2배 지급 - 만 18세 미만은 햇빛아동수당 지급
E	경북 상주시 내서중학교	-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정 및 동아리 활동 -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학부모 참여 - 학교 축제(갑골제) 및 인근학교와 통합 체육대회 개최
ABCD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 국토부-농림부 MOU 범부처 협업사업 - 주거플랫폼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 공급 - 학생모심위원회 구성 자체모금 기금조성 - 전기차완성업체 에디슨모터스 협력 6차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주택 공급

BE	충북 옥천군 증악초등학교	- 대정분교와 함께 연합교육과정(꿈프데이) 운영 - 학생 맞춤형(플룻, 피아노, 바이올렛) 무료 교육 - 입학생 전원에게 5만 원이 든 '새싹통장' 지급 - 마을회관 리모델링 후 저렴한 임대료로 전입 유도 등
CEF	충북 제천시 송학중학교	- 송학학교발전위원회 조직 - 발전기금 모금 - 제천시청 입학생 1명당 100만 원 지원, 학교기금 월 50만 원 지원 - 골프연습장, 당구장, 야구장 등 부대시설 마련 - 강천사 주지스님, 아세아시멘트 기업 후원
BE	전남 곡성군 전남지역 작은학교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가족체류형 거주단지 조성 - 생태교육형 농촌유학 - 농가주택 리모델링
E	경북 경북지역 작은학교	- 학교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 협력구조
EF	충남 청양군 가남초등학교	- 전원학교로 지정(17억 원 예산지원) - 교실을 황토방과 편백나무로 꾸미고 운동장도 천연잔디로 교체 - 골프연습장, 첨단 기자재를 갖춘 영어교실, 역사관 등 건립 - 충남다우리 이중언어학교 운영
BE	경남 남해군 삼천포초등학교 신수분교	- 자연생태학습 등 양질의 커리큘럼 도입 -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최신시설을 갖춘 고급주택을 싸게 임대
E	충남 청양군 수정초등학교	- 인성교육,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학교 - 무학년 형제자매 활동 - 국악 프로그램 '예술꽃 씨앗학교' -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핑 활동 등

- 폐교위기 대응사례 분석 결과, 특성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
과 마을공동체의 협조가 성공 요인의 공통요소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연계 시 효과성이
다른 사례에 비해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지원은 지역 기업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학교발전위원회 등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동문들의 후원을 통해 폐교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 ➡ 사례 분석 결과, 폐교 활용에 있어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폐교활용 조성사
업, 기타 공모사업을 통해 폐교를 관광 또는 교육기관의 형태로 개발할 수
있으며 폐교 결정 전 지역사회 연계성 고려 및 재산처분과 활용에 대한 계
획이 수립되어야 함
 - ➡ 폐교위기 극복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개발이 최우
선되어야 하며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의 협력구조로 재정마련의 기틀을 마
련하여야 함



섬마을 폐교 위기 야구가 날려버렸다



● 해 질 무렵 인천 웅진군 덕적도 서포터센터에서 덕적고 야구부원들이 활자에 달려 있다 ● 야구부원들이 코치진의 지도 아래 훈련하고 있다 ● 야구부원들은 점심 식사 후 드루 시를 하치고 훈련에 들어간다 ● 포수 김창현(왼쪽) 투수 김재찬(오른쪽)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박음호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덕적고 3학년 김아진 학생이 운동복에 야구모자를 눌러 쓴 남학생을 가리키며 손을 번쩍 들었다. 목소리는 듯 가까워지며 굴러가며 박음호 학생이 친구를 앞에 섰다. "개미처럼 일하겠습시다. 겹쳐서만 뽑아 주십시오." 박음호 학생의 소견 발표가 끝나자 반 친구들은 갈갈갈 웃었다. 1년 전만 해도 덕적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인천에서 계속선으로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웅진군 덕적도. 육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 하루 세 차례 인천을 오가는 배편이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전 봄으로 떠나 심은 정월 더 나 이 들어 갔다. 학원연구가 줄어들면서 통합 운영되고 있던 덕적초·중·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폐교를 고민했다. 2003년 초·중·고 통합이 학생이 50명에 불과해, 읍면 및 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 통합을 권고 기준인 60명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덕적고 신입생은 1명이었다.

덕적도의 하나뿐인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김학용 전 동국대 야구부 감독의 제안으로 야구부를 창단해 덕적고를 체육 특성화 학교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전 감독은 선수와 지도자 시절 덕적도로 종종 전지훈련을 와 주민들과 인연을 맺었다. 덕적고 경북 안동 일석중학교가 야구부를 창단한 뒤 학생 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들은 '야구부 창단 건의서'를 덕적고에 전달하고, 덕적도 바닷모래를 건설자재로 채취하는 업체가 마을에 제공하는 복지 기금 일부를 야구부 창단 기금으로 마련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해 9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덕적고 야구부 창단 승인을 받았다.

야구부가 생기자 정말 학생 수가 늘었다. 창단 첫째 야구부원 21명이 전학 왔다. 올해도 야구부 신입생 6명이 입학해 총 27명이 됐다. 더불어 덕적초·중·고 학생 수도 81명으로 늘었다. "인천이 고향이라 야구부가 창단된다는 소식에 전학 오게 됐다"는 박음호 학생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김학용 전 감독과 야구부 감독은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전국대회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적고 야구부는 창단 뒤 첫 대회인 지난해 11월 인천시장기 야구대회에서 야구 명문 재물고에 7회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 8대 15로 석패했다.

주민들은 덕적고 야구부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땅을 갈아붙였다. 이번에는 '연간 야구부 운영비 3억원 마련'이 목표다. 올해 초 인천시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부동산개발업체인 넥스플랜이 낸 세금 3천만 원을 야구부에 전달했다. 김아진 학생은 "야구부 친구들이 경기에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며 "야구부가 유명해져서 앞으로 학교가 더 북적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다 위로 뻗어 가는 태양 아래 선수들이 오늘도 팀 자체 달리고 있다.

덕적도(사상) 글 박음호 기자 anaki@han.co.kr

타격 연습하는 주윤환 선수.

※ 자료 : 한겨레. 섬마을 폐교위기 야구가 날려버렸다(2022.03.11.).

[그림 3-2] 웅진군 덕적고 야구단 사례

나. 해외 사례

1) 일본 폐교활용 사례

3331 아트 치요다



-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에 구)렌세중학교는 2010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함
- 민설민영으로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료나 상품 판매수익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아티스트가 상주하여 활동하는 '아트 인 레지던스(AIR)'를 통해 아티스트는 창작활동을 하고 지역민은 갤러리를 즐기며, 건물 옥상에는 농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음

도쿄 장난감 미술관



- 도쿄 신주쿠의 구)요츠야 초등학교는 2008년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장난감 미술관으로 탈바꿈함
- 실내 체험형 플레이그라운드 놀이구성, 장난감 만들기 체험·워크숍, 장난감 큐레이터 양성과정 등의 프로그램
- 도쿄 장난감 미술관은 시민들의 기부로 건립되었으며 지자체의 후원과 NGO의 협력을 통해 노인큐레이터를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세대 간 화합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 특징임

키타노 공방마을



- 고베 효고현의 구)키타노 초등학교는 본래 사용하던 건물과 교실을 그대로 살려 인테리어 쇼핑몰로 활용하고 있음
- 1995년 고베 대지진의 영향으로 폐교위기를 맞았으며 고베시-주민단체-지역기업단체 등이 협력하여 1998년 고베 지역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활용한 다목적 체험형 공방으로 재탄생시켰음
- 고베 지역의 특상품을 판매하고 공방체험(24개 공방 입점), 카페, 박물관, 전시회, 미니콘서트, 발표회, 자선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음

코라콜라 환경하우스



- 북해도의 유바리시의 구)우엔베초초등학교는 2009년 재단법인 「코라콜라 교육환경 재단」과 쿠리야마 마을의 「환경교육사업」이 마을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환경하우스를 설립함
- 공익법인-지자체-NPO(비영리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자연환경교육과 체험형 환경교육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함

IID 세타가야 모노즈쿠리 학교



- 도쿄 세타가야의 구)이케지리중학교를 건축, 예술, 음식 등 제작자와 디자이너들의 공간이자 모두를 위한 마을교육 기관(학교), 창업지원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함
- IID(Ikejiri Institute of Design)는 디자인 교육기관이며 폐교 건물 재생으로 'R'을 키워드로 RE재생을 실현하였으며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디자인 체험·연구, 지역축제 협력, 지역교류 워크숍(연 500회 이상)을 운영함
- 세타가야구와 '산업진흥', '관광거점', '지역교류' 세 가지 수행조건으로 한 콘텐츠산업 활성화가 특징임

노지마 스코라



- 아와지시마 작은 섬의 구)노지마초등학교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등 다양한 복합시설로 탈바꿈하였으며 레스토랑에는 베이커리, 작은 동물원, 잔디광장, 세계의 장난감 체험시설 등을 운영함
- 연간 1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미치노에키 호타초등학교



- 자바현에 있는 구)호타초등학교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으로 운영되며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와 지역음식 제공, 이주체험 및 관광 등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학교시설을 활용해 휴게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숙박시설, 어린이광장, 온천시설, 지역특산물 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국의 폐교 활용사례, 폐교 리뉴얼 50선’이라는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지자체를 독려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폐교 활용사례를 발굴하였음. 더불어 폐교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완화하고 폐교의 효과적인 이용을 제안하면서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운영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폐교시설 재활용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정책기반 및 교육청-지자체-지역공동체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가치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임

가) 일본의 폐교활용 활성화 시스템

○ 일본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 인구감소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학교통폐합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문부과학성(2022)에 따르면 매년 약 450교의 폐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폐교 전국 활용률은 64%로 나타남.

- 폐교 발생 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육아 세대가 교외로 옮겨 가면서 도심에서도 폐교가 발생했으며 이런 학교들은 비즈니스 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재생의 기폭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 3-4] 일본의 폐교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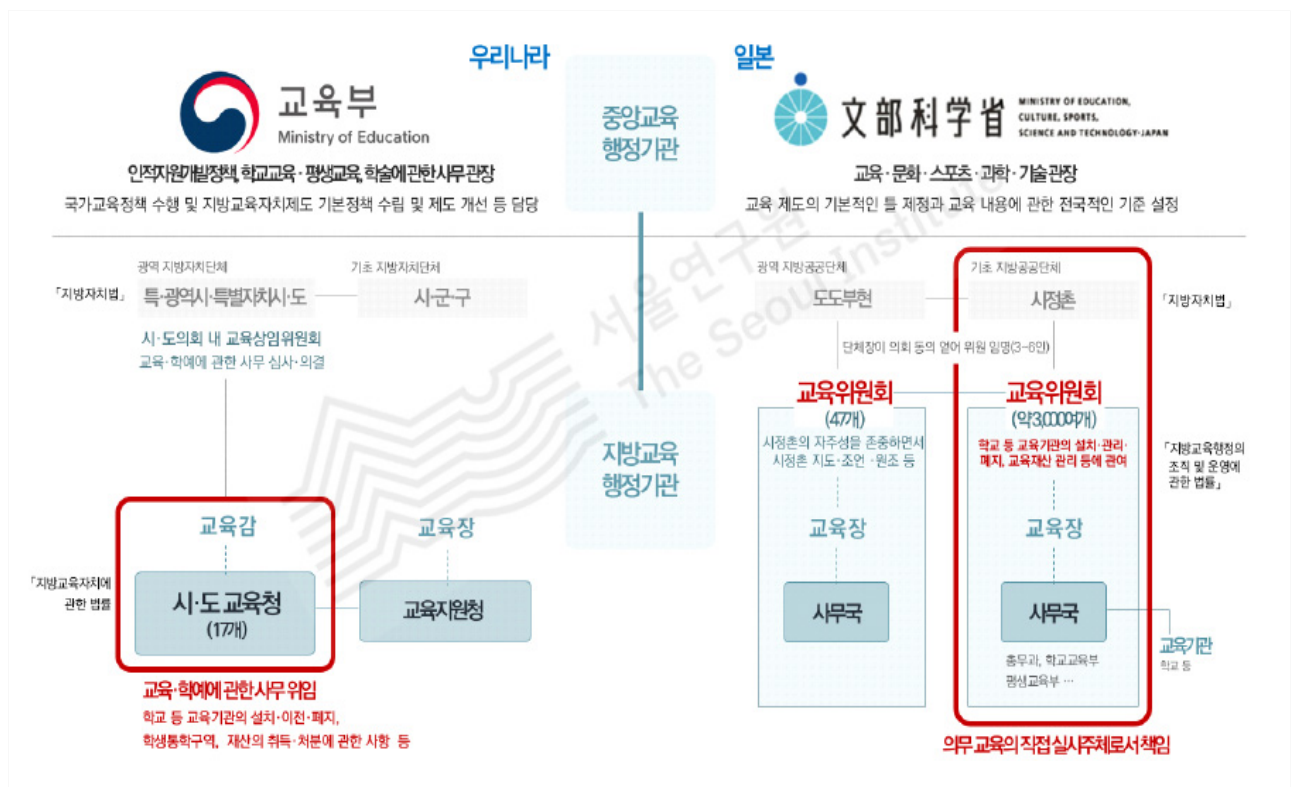
카테고리	지역	이용 사례
육성시설	군마현	쿠라부치 영어마을
	이바라키현	드론 조종사 양성 교습소
비즈니스	아이치현	스타트업 육성시설
	기후현	자동차(EV) 전시장
	구마모토현	일본주 양조장
	아마구치현	물류 관리 거점
주거	도치기현	고령자 주택
	기후현	숙박 시설
	시즈오카현	글램핑장
관광시설	아이치현	레스토랑 및 목공실
	고치현	수족관
	이바라키현	체험형 농업 테마파크

※ 자료 : 각 지역 및 기관 홈페이지,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 위와 같은 적극적인 폐교활용은 2010년 9월 문부과학성이 시행한 모두의 폐교(みんなの廃校) 프로젝트의 결과로 ① 전국 폐교 시설정보(면적, 외관, 평면도, 분양조건 등) 집약 및 게재, 활용희망자를 모집하는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고 ② 지자체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및 증축에 필요한 서류 등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수속 창구를 일원화하는 지원 활동이 기반이 되었음.
- 또한, 활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무관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제공함.
- 우리나라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가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반면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하는데 교육뿐 아니라 문화, 스포츠, 과학, 기술 분야까지 관장함.
- 이러한 교육행정구조 차이로 우리나라는 총 16개 교육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도도부현에만 47개, 시정촌에만 3,000개에 달하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공립학교도 지방공공단체에서 소유하고 있음.



[그림 3-3]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 자료 :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서울연구원(2021)

[그림 3-4]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육행정구조 차이

2) 영국 폐교활용 사례

- SDT(Southmead Development Trus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래된 폐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함

[표 3-5] 영국 그린웨이센터

구분	세부항목	내용
건물개요	폐교연도 / 위치	1985 / Greenway Centre, Doncaster Rd, Bristol BS10 6AH
운영현황	운영주체 / 활용구분	사우스미드개발신탁(SDT) / 임대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폐교활용 문화재생방안 연구 보고서(2022).

- 특이점은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자산화’를 시도한 것이며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말함.
 - 시민들은 1984년 폐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겠다 의지를 표했으며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단체(신탁)를 만들어 지원하였음.
 - 2년 임대로 해당 공간의 운영이 가능한지 실험하였으며 브리스톨시는 시민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 1995년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을 위해 독립적인 시민 SDT를 설립함.
 - 2006년 125년 장기임대를 획득하고 해당지역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으며, 2018년에는 주민들이 도시 재생 계획을 만드는데 주체적으로 나서 안정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며 시민사회를 강화함.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시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 연대하여야 함.

3) 중국 폐교활용 사례

- 중국의 폐교 배경 역시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해 농촌 학생 수 부족 문제로 중국 국무원은 교육자원을 최적화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초중학교를 통폐합함.

[표 3-6] 중국 중경시 폐교재산 재활용 현황

구 분	교육 재활용	매각 및 임대	농촌공공시설	미활용	계
폐교 수	776	461	879	3,795	5,911
비율	13.1	7.8	14.9	64.2	100.0

※ 자료 :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열(2019)

[표 3-7] 중국 농촌폐교 활용사례

유 형	활용 내용
교육 재활용	[소진 센터 향촌소년궁] - 산동성 치박 지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립 청소년 시설로 설치 - 2007년 폐교된 초등학교를 농촌아동의 여가활동 및 방학 후 학습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학생의 회화, 음악, 서예, 체육운동 등 취미를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
농촌공공시설	[해남성 촌급 활동 장소] - 2009년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의료시설, 운동시설, 컴퓨터시설 등을 갖춘 공공문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 - 농촌주민의 다용도(행정, 의료, 운동, 문화, 유치원 등) 공공시설로 2012년 개조된 이후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장소로 활용
매각 및 임대	[광동성 산두시 존심자선 양로원] - 광동성 산두시 지역에 노령인구를 위한 사립 양로시설 - 120개 양로침대를 보유한 양로시설로 설치하여 양로, 의료,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개관 당시 60여 명의 노인이 입주하였고, 2014년 기준 100여 명의 노인 입주

※ 자료 :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렬(2019)

-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전국 폐교 목록 집약 및 시설현황을 공표해 활용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절차에 대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폐교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음으로 지자체와 교육부는 분산되어 있는 폐교 정보 집약 및 폐교활용 지침 등 지역 현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함.
- ➡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 행정의 주체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대응방법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시사점 도출

가. 종합 시사점 도출

- 결과적으로 폐교시설 공간의 연속성, 지속성, 정책적 효율성, 경제적 활용의 기준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각 폐교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성을 도출해야 함.
-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이용방식 및 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상호 간 사회, 문화, 공간적 공통분모를 분석하여 유휴 학교 공간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폐교 예측을 통한 학교공간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폐교위기 극복에 있어 단순히 학교의 기능을 확대하고 외부 학생의 유입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폐교 전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도시민 및 귀촌·귀농 예정자에게 열린 학교의 매력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폐교 결정과 동시에 활용방법의 검토 및 활용자(사업자) 모집, 제안내용의 검토 등을 발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폐교와 동시에 재산처분 또는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함.
- 폐교 및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활용에 있어 염두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지역민의 주인의식 제고 및 갈등완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 설계
 - 유사공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재정적 중복투자 방지
 - 도·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이론적·실무적 지식 습득 및 매뉴얼 개발
 -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다양한 공간 연출 기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
 - 교육적 역사와 정서적 향수가 담긴 보존적 디자인 계획

IV 폐교 관련 법령검토

1. 폐교 관련 법령검토

Ⅳ. 폐교 관련 법령검토 및 연구논의

1. 폐교 관련 법령검토

가. 관련 법률 검토

- 1993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추진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사례들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폐교활용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
 - 각 시·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각종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교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폐교활용에 관한 법적인 제약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와 정부는 1999년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6005호, 1999. 8. 31.)」(이하, 폐교활용법)을 제정하였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제4조).
 -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조).
 -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서는 동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제6조).
 -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제9조).¹⁾
 -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는 자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0조).
 -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이를 교육용(신·증축이 아닌 개축·보수 등에 한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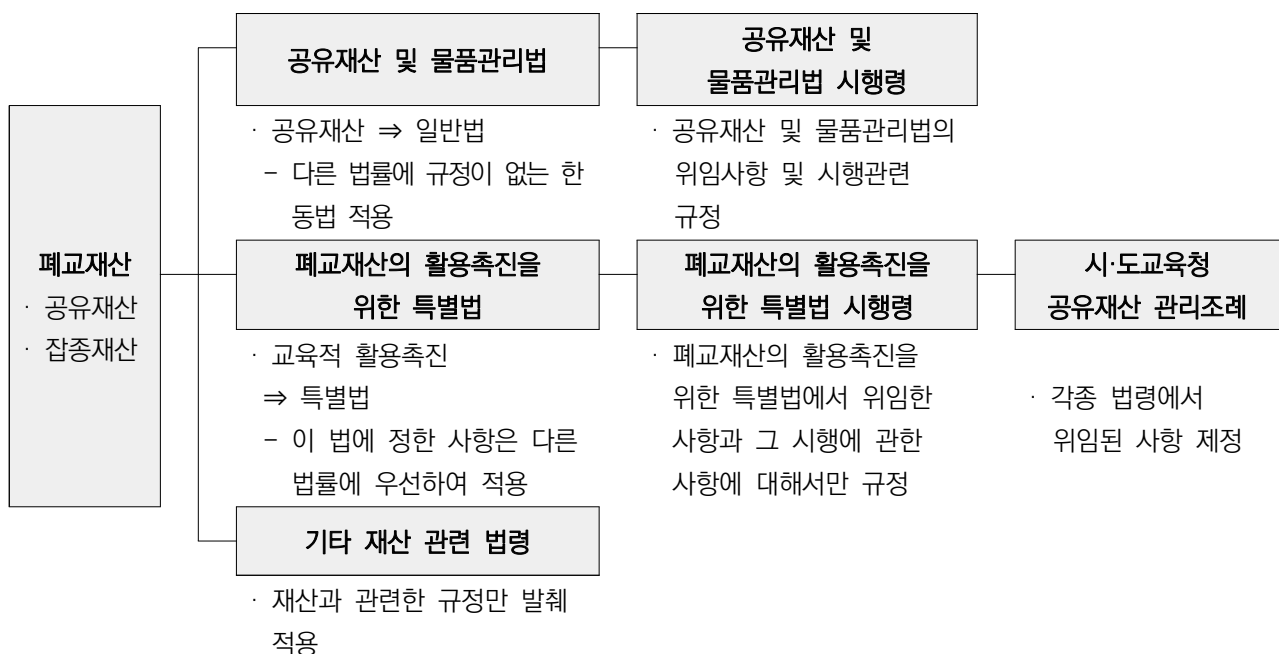
1) 대부기간 ‘10년 이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지정받은 재산에 한하며, 현재 「폐교활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부기간에 대한 별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교 재산의 대부는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31조(대부기간)에 따라 폐교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5년, 그 외 재산의 경우 1년 이내로 대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갱신 시 최대 대부기간도 이 기간 이내에서 설정해야 함(정재룡, 2017)

연공원법」 상의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에 대해 폐교재산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2조).
- 다만,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5794호, 2018. 10. 16.)」의 규정에 따름.

○ 「폐교활용법」은 1999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면 모두 네 번의 개정을 거쳤음.

- 다만, 2011년에 실시된 일부개정은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로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세 번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확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 추가’, ‘폐교재산 활용에 따른 대부금 감액 또는 면제 조건 구체화’ 등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1] 폐교활용 관련 법령 체계

○ 그리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이하, 폐교활용법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대

부료의 감액,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시·도는 「000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폐교활용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제2항에 규정된 연간 대부료율과 동시행령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제1항에 규정된 폐교재산의 감액 대부 시 연간 감액 비율, 동시행령 제3조의3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에 규정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가능 지역 범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4-1] 폐교활용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시기	개정 내용
2002년 12월 5일 일부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7년 1월 3일 일부개정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체화하였음 이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바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을 추가하였음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 폐교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주소: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7. 31)

○ 정부에서는 폐교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폐교활용법」이 가진 한계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에서는 2016년 7월에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행 「폐교활용법」에 제시된 임대 및 매각 용도가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소득증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교육부, 2016.7.5.)

- 이에 정부는 ‘폐교재산 활용 용도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지자체 무상 사용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016년 7월 5일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후 2016년 12월 27일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감액 대부 대상 및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범위 확대 추가)를 반영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표 4-2] 폐교활용법시행령 중 조례 위임 조문

규정 내용	개정 내용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2.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대부료의 감액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폐교 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이하 생략)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주소: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7. 31).

○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2016.12.27.)’ 외에도 5명의 국회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음

- 이를 정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김성찬 의원(안)과 황주홍 의원(안)은 정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농어업법인’을 추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반면, 강창일 의원(안)은 폐교활용 대상에 연수원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폐교재산에 축조·설치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리고 김성태 의원(안)은 폐교 정의의 명확화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와 차이가 있음

[표 4-3] 20대 국회 계류 중인 폐교활용법 의원 개정 법률안

제안자(제안일자)	개정 법률안 내용
김도읍 의원 등 10인 (2019.5.1.)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제2항).
김성찬 의원 등 10인 (2018.9.4.)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3항, 5항).
강창일 의원 등 11인 (2017.6.13.)	교육용 시설에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포함시킴(제2조 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상 대부기간을 30년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에 축조·설치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황주홍 의원 등 10인 (2016.11.14.)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귀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함(제5조 및 제9조).
김성태 의원 등 18인 (2016.9.26.)	폐교의 정의에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만을 제시하고 있어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 바 이를 추가함(제2조 제1호).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2항).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 검색일: 2019. 8. 6.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9년 7월 11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제출안과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31일에 위원회안으로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고, 2019년 8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최종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됨.

- 개정 법률안에는 우선,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의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4-4] 일부 개정 법률안(1)

현 행	개 정(추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제2조 제3호)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신설)	(8호 신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캠핑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 검색일: 2019. 8. 6.

- 폐교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어촌계’까지로 확대했음(안 제5조 제1항).

[표 4-5] 일부 개정 법률안(2)

현 행	개 정(추가)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신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 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 검색일: 2019. 8. 6.

-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폐교를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가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음(안 제5조 제3항).

[표 4-6] 일부 개정 법률안(3)

현 행	개 정(추가)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③ (현행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 검색일: 2019. 8. 6.

-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대상도 확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무상대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음(안 제5조제5항).

[표 4-7] 일부 개정 법률안(4)

현 행	개 정(추가)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 검색일: 2019. 8. 6.

나. 시·도 수준의 조례 및 규칙 분석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이하, 폐교활용법시행령)에서는 수익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대부료의 감액,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시·도는 「000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3조와 제3조의2, 제3조의3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부료 요율과 감액 비율, 무상대부 가능 지역에 대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의 제5항에 따르면 「폐교활용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경우 대부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까지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조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이들 중 교육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은 연간 대부료의 50%까지, 소득증대시설은 연간 대부료의 30% 까지 감액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폐교활용법」의 경우 각 시·도 수준에서의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부산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 충남교육청의 경우 별도의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이들 시·도교육청은 「폐교활용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따른 각 지역 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경기도는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2016년 7월 19일에 관련 조례(경기도조례 제 5270호)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광주시가 2016년 9월 15일(광주광역시조례 제 4758호)에, 부산시가 2017년 6월 7일(부산광역시조례 제5590호)에, 2018년 12월 31일(충청남도조례 제4409호) 차례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우선, 폐교재산 관리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폐교활용법」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광주시, 부산시, 충남의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관련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는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조례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 주기의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광주시 조례에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부산시 조례에서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로, 충남 조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와 광주시, 충남 조례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그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 조례는 의견수렴 또는 반영 여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경기도 조례와 광주시 조례에서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²⁾을 심의하기 위한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실무를 위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충남 조례에서는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위원회와 관리추진단의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 조례에서는 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실무 추진을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단’만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광주시도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도 조례에서는 교육청의 담당 고위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추천 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 조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부교육감, 교육청 직원 및 민간위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충남 조례에서는 충남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충남도청 소속으로 예상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2)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 등임

[표 4-8] 경기도, 광주시, 부산시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교

내용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조례 제5270호, 2016. 7. 19., 제정)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조례 제4758호, 2016.9.15., 제정)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조례 제5590호, 2017.6.7., 제정)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조례 제4409호, 2018.12.31., 제정)
교육감 책무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좌동	좌동	좌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좌동	좌동	좌동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폐교 재산 관리 위원회 구성	폐교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교재산 관리위원회 구성	폐교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교재산 관리위원회 구성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단,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음		
폐교 재산 관리 추진단 구성	폐교재산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해 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	좌동	좌동	폐교재산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추진단은 폐교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주소: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7. 31.

[표 4-9] 폐교재산 관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	개정 내용
대부료의 요율 및 감액	제29조(대부료의 요율) (중략) ⑤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제1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
	제32조(대부료의 감면) (중략)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4.02.10 조례 제3882호>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62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다만, 학생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주소: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7. 31.

○ 그 외에 대부나 매각,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규정은 모두 「폐교활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규정들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부산시 조례의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등)에서 대부계약과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충남 조례의 경우, 제62조에서는 무상대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성인의 경우, 조례 제29조 제5항 및 제32조 2항에도 불구하고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시도별 조례를 비교해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폐교재산의 대부 요율이나 대부료 감액 비율, 무상대부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을 규정한 조항의 위치나 조문의 표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각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지역주민의 규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V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1. 가이드라인 수립
 2. 활용모델 제시
 3. 종합 전망
-

V. 상생·협력적 활용모델 구상

1. 가이드라인 수립

가. 비전 및 목표

1) 충남형 폐교활용방안의 비전 및 기본방향

가) 충남형 폐교활용방안의 비전



차별화된 충남형 폐교 활용방안을 통한
충남의 미래세대와 충남도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활용

나) 충남형 폐교활용방안의 기본방향

- 충청남도 지역의 폐교는 지역의 공익적 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의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충청남도 지역의 폐교 및 폐교위기 학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지역유관기관, 지역단체 및 주민의 협력으로 폐교 발생을 줄여나가고 새로운 지역의 인구 유입 방안으로 접근.
-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접근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계층이 상시간, 장기간 지속가능한 활용과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추진하여 공간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안을 추진.
- 폐교의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지방자치단체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시설운영과 개발과정에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
- 폐교의 유형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교통·경제·문화·개발여건·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추진 가이드라인을 구축.

2) 세부 가이드라인

가) 주요 추진방향 및 전략



■ 목적의 공공성

- 폐교활용의 목적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며 폐교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주민의 활용 등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및 지역 간 격차해소 차원에서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계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 목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직접관리 및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에 의한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 정체성

- 충청남도 지역의 도시근교형, 농촌형, 농어촌형, 산촌형, 어촌 및 섬 지역형에 맞춰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하고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활용을 추진
- 지역주민 및 지역 교육여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

■ 지속가능성

-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및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학교운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중심으로 추진
- 매각 등을 통해 개인,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역사회 주민의 용도와 다른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교자산의 가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및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의한 운영을 우선으로 추진

■ 폐교위기 대응

- 폐교위기 학교 및 기존의 이적지 활용에 있어 교육수요를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 인구소멸을 해소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수요자에 대한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민간-행정-기업-전문가-의회)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구소멸 해소 및 양질의 교육공간 조성, 일자리 제공, 거주지원 등을 통해 폐교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의 접근을 추진

나) 추진방향별 추진모델

■ 목적의 공공성

(1) 문화·교육·어학 체험공간 구성

- 유아·가족체험 및 교원연수, 학부모교육·상담 등 유아교육 거점공간 구성
- 청소년 문화·예술·진로 융합체험 운영 및 문화예술 향유공간 구성
- 기초과학, 해양과학, 미세조류 등 체험과 교육 중심의 종합 놀이·교육·전시·체험 공간 구성
-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교육 활동 및 외국어프로그램 체험공간 구성

(2) 마음·정서 치유공간 구성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심리치유 공간 구성
- 지역연계 마을교육 거점 공간 구성
- 공방, 지역주민 체육센터, 공연장 등 구성

(3) 사회복지·지역복지 공간 구성

- 지역사회 사회복지 공간 구성
- 노인복지 공간 구성
- 다문화 복지 공간 구성

■ 지역 정체성

(1) 지역 문화유산·지역유산 연계 공간 구성

- 근대사 전시관, 지역문화유산 연계 전시공간 및 체험공간 구성
- 문화·예절 학교 구성

■ 지속가능성

(1) 지역 복합문화공간 구성

-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장 구성
- 지역 도시재생 연계 공간 구성
- 농산어촌종합개발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사회 연계 주민 소득사업 공간 구성
- 지역단체, 기관 연계 평생교육 공간 구성

■ 폐교위기 대응

- 폐교위기 학교 및 기존의 이적지 주변 일자리, 거주지원, 소득지원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를 통해 폐교위기 대응
- 교육수요자에 대한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민간-행정-기업-전문가-의회)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구소멸 해소 및 양질의 교육공간 조성으로 폐교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선제적 대응
- 폐교 및 이적지를 활용한 외부 대안교육기관 유치 등

나.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판단 기준

1) 지역의 성장과 포용정책을 지원

- 시설활용의 핵심가치는 ‘지역의 성장’과 ‘포용정책 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민공동체, 지역사회의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평가 필요

2)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중심적 운영

-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화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요소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
- 시설 활용체계의 분리와 장기적·전략적 활용 부족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법률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
-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장기 목표설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

3) 시설의 복합화 및 체계적인 연계

- 시설의 활용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적 용도와 수익성 용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도 필요
- 공공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기능복합을 통해 주민, 지역사회 및 실수요자의 지속적인 유인전략 마련이 필요

4) 폐교재산 활용 관련 법령

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활용용도 : 폐교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6개 시설로 정하고 있음(폐교활용법 제2조)

[표 5-1] 폐교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교육용시설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문화시설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문학관, 복합문화공간, 창작공간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귀농귀촌지원시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 대부, 매각 시 수익계약 특례 적용 가능한 자(폐교활용법 제5조 제1항)

[표 5-2] 대부, 매각 시 수익계약 특례 적용 가능한 자

특례 적용 가능 대상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써 실제 거주 중인 주민
	폐교재산 소재 시·군·구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폐교재산 소재 시·군·구의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나) 폐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대상
-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함, 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대상 충족 시 수익계약으로 대부 가능

-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대상

[표 5-3]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 대상

수익계약 가능 대상	대부료 감면 대상
공공기관 직접 사용	면제
지자체 출연 비영리 법인	지방의회 동의 시 면제
무상 대부자에게 유상 대부 시	-
2회 이상 유찰 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 시설 (지역 거주민 10명 이상 고용)	대부료의 50/100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한 시설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부 시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 시)	대부료의 50/100 감면
창업기업에 창업공간으로 대부 시	대부료의 50/100 감면

다) 폐교재산 대부/매각 수의계약 절차 비교

[표 5-4] 대부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 비교

대부	매각	관련 근거법령
활용 가능 여부 조회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수의계약 해당여부, 지역주민 반대 및 혐오시설 여부 확인		폐교활용법 제5조
주민 의견수렴 폐교 당시 통학구 지역민(동창회) 대상		폐교활용법시행령 제3조의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매각 여부 심의	매각계획 공고 공보/인터넷/신문 등 30일 이상 공고 매각계획 공고 결과 의견 반영 요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경쟁 입찰	폐교활용법 제8조 공유재산법 제16조1항
재산평정가액 작성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그 외) 재산 대상 가액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매각 여부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후 교육위 위원 현장확인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
대부계약 체결 제소전화해 신청	감정 평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의뢰 산술평균 금액	(계약방법결정) 폐교활용법 제5조 폐교활용법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3항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계약 이행 점검 대부목적 이행·전대·불법 건축물 신축여부 등		폐교활용법 제7조

5)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성화 추진 절차

가) 미활용폐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기획단계

- 후보지의 기본 여건 검토
 - 교육청의 자체활용 계획 및 폐교 여부 검토(교육청 재산담당자 확인)
 - 건립연도 및 건물 노후도 체크
- 물리적 현황 검토
 - 시설구조, 건립연도, 폐교연도, 연면적, 건물 동수 등 확인
- 입지 여건 분석
 - 접근성, 주변환경, 인적자원 분석

나) 활용계획의 수립

- 충남형 폐교활용방안 기준으로 폐교의 유형 분류
- 분류된 유형별 폐교의 세부 활용방안의 제시
- 주민 동의 및 추진 주체 및 절차 수립

다) 자체활용 및 매각 검토

-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폐교활용 용도의 확정
- 안전 등 구조검사 시행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타당성 검토
- 기초자료 분석-경제성 분석-정책성 분석-지역균형발전 분석-종합평가 절차 이행

라) 지방재정투자 심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별 심사 대상 분류
 - 시·군·구 자체심사 : 60억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
 - 전년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수가 2년 연속 100만 이상, 총사업비 200억 미만
- 의뢰심사 대상 : 60억 이상~200억 미만-시·도 심사의뢰
- 의뢰심사 대상 : 200억 이상-중앙 심사의뢰

마) 사업 추진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폐산업시설 등 유허공간 문화재생사업’의 경우 균특회계의 시·도 자율편성 사업

○ 모집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합리적 예산산출
- 국비지원금액(50%) 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 확보조건

6) 폐교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 방안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국가 단위 사업공모 시 일정 부분의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정(제13조제2항),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제20조)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각각 배분.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희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제21~제28조)

[표 5-5]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지원 특례

분야	주요 내용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등
교육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학교설립 기준 및 인가 특례, 교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
의료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 등
주거·교통	이주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신축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섬주민 및 섬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 및 요금 지원,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지원 등
문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
외국인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노후·유희시설	노후·유희시설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노후·유희시설 복합적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강구 등
산업	산업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나) 시·군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

- 시·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교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입 가구(학령기 자녀를 둔)에 대하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임대료 지원 등 구체적인 유입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 교육 분야 추진사례
 - 함양 작은학교 살리기-서하초등학교 : 폐교위기 대응을 위해 학생모집프로젝트 추진, 2021년 학생 20명 전·입학, 가구 단위 29가구 104명 이주, 민-관-학 협업을 통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
 - 문제점 : 주거공간 확보 문제 및 의료기관 부재, 중·고등학교 진학시 거주 고민
- 폐교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거나 폐교위기 지역의 민-관-학 협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일자리 지원 : 지역사회 기업, 어촌계, 지역 주민사업자 연계
 - 주거 지원 : 빈집 임대 및 임대료 지원, 저렴한 임대료, 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
 - 교육 지원 : 방과후 프로그램 수준 향상 및 지역연계 지원방안 마련

다)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유학 등 활용

- 지역의 교육청과 서울, 경기 교육청 간 MOU 추진으로 6개월 이상의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폐교위기 공간 활용 체류(곡성 오산초등학교 사례)
 - 농촌유학 체류시설 제공을 위한 모듈러 주택 및 낮은 임대료, 농촌유학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운영 일자리 창출.

라) 지역 유희자원 활용 및 전통산업 현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홍성 젊은협업농장 사례처럼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인큐베이팅 및 청년인구 유입방안 마련, 지역일자리 연계 인구유입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사회혁신 추구, 청년의 일자리 및 학령기 부모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인구유입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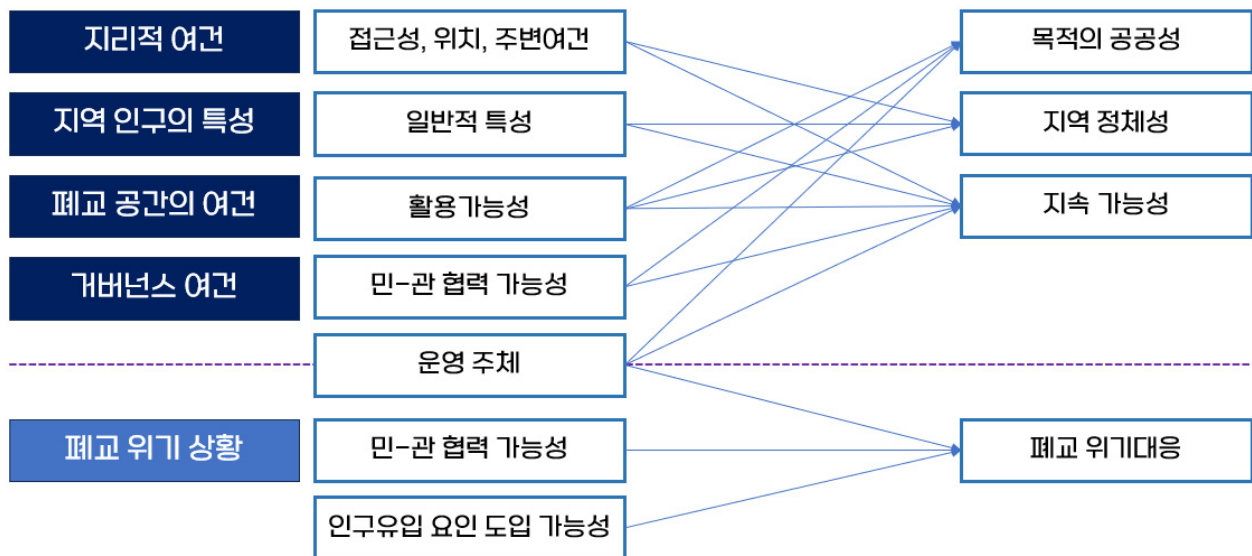
2. 활용모델 제시

가. 세부 지표의 설정

1) 공통요소의 도출

가) 지리적 여건, 지역의 인구 특성 및 폐교 공간 여건, 거버넌스 여건으로 요소를 편성

-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리적 여건, 지역 인구의 특성 및 폐교 공간 여건, 거버넌스 여건을 공통요소로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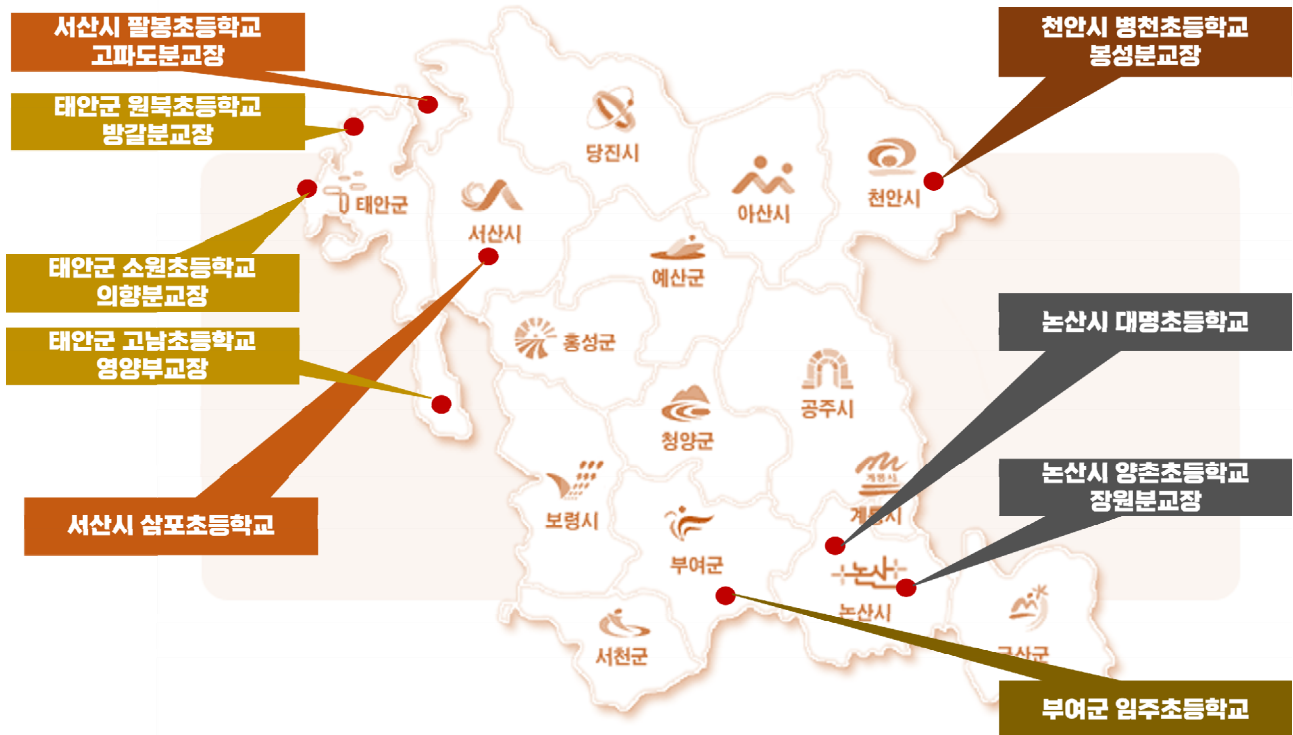
[그림 5-1] 요소별 폐교활용 핵심가치와 연계성

- 지리적 여건은 일반적인 접근성을 의미하며 지역 중심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거리로 구성하고자 하는 활용방안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정체성에 관련성이 높음.
- 지역인구의 특성은 소득수준 등 일반 특성 및 폐교활용의 잠재적 주체들의 규모로 구분할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관련성이 높음.
- 폐교 공간의 여건은 폐교의 자체 노후도, 규모 등을 파악해 활용가능성을 판단하며 목적의 공공성, 지역 정체성, 지속가능성 전반에 관계가 높음.
- 거버넌스 여건은 행정과 민간간의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며 협력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모든 요소에 관계가 높음.
- 폐교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유입요인, 민관협력, 운영주체가 관련성이 높음.

2) 활용구상(안)

가)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 미활용 폐교 보존관리



[그림 5-2] 미활용 폐교 보존관리 대상

[표 5-6] 미활용 폐교 현황(보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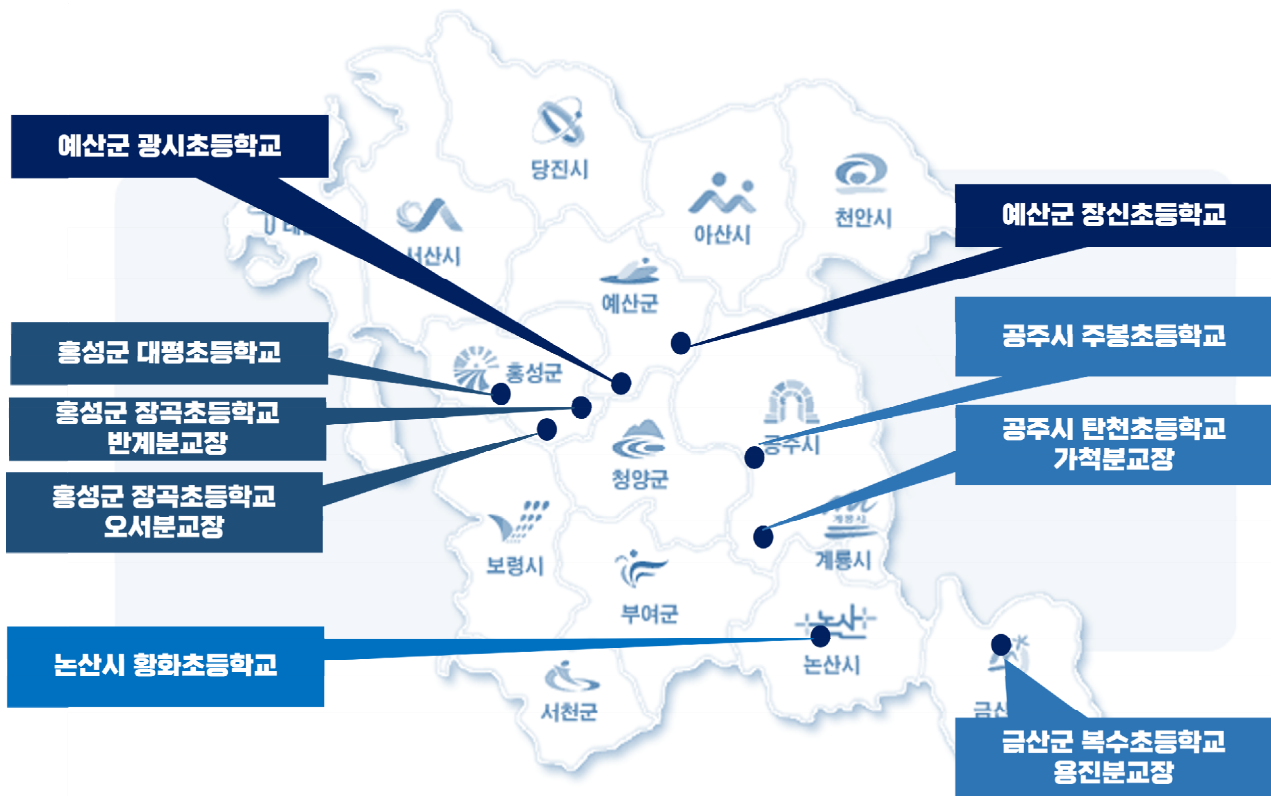
지역	폐 교 명	폐교년도	활용계획
천안 (1)	병천초 봉성분교	2007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서산 (2)	삼포초	1999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팔봉초 고파도분교	2023	섬지역 폐교 장래 학생유입 대비 보존 및 자체활용 추진 검토
논산 (2)	양춘초 장원분교	1997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대명초	2022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부여 (1)	임주초	1995	인근학교 임천초 문화재 발굴 시 이전 대비, 기숙형 학교 설립 검토
태안 (3)	고남초 영향분교	1999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원북초 방갈분교	2021	토지정화 후 매각 등 검토
	소원초 의향분교	2023	자체활용, 매각, 대부 등 활용방안 검토 중
계	9교		

나. 미활용 폐교의 활용방안

[표 5-7] 미활용 폐교 현황(활용계획)

지역	폐 교 명	폐교 년도	현황	활용계획		
				유형분류	활용방안 제시(안)	유사사례
천안 (1)	병천초 봉성분교	2007	파손이나 붕괴의 위험은 낮음 주민들의 매각 반대 공공시설 유치에 대한 희망 면소재지에서 6km 정도 거리 위치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도입이나 천안지역 학생들을 위한 어학교육원,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제주애월초 더덕분교 경북 상주시 내서중학교
서산 (2)	삼포초	1999	2009.5~2014.4 서해천수만수련원으로 사용되었음 2018. 9 대부계약 종료 청소년수련시설이용조건 매각동의 비교적 잘 관리보존 되어 있음	공공성 지속가능성	현 상황에서 보다 빠른 매각이나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충북 옥천군 증악초
	팔봉초 고파도분 교	2023	섬지역 폐교 학생유입을 위한 대비 및 자체활용 가능성에 대한 추진검토	지역정체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위기대응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전시, 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을 활용한 미세조류체험전시관 등의 시설구성	충북 옥천군 증악초 경남 남해군 삼천포초 신수분교
논산 (2)	양촌초 장원분교	1997	미술창작 및 체험시설로 대부 1997년 예술가 무료임대 대지 9,444㎡(건물 1,116㎡) 2019.3~2020.3 대부운영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의 문화예술체험학교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계 예술문화공간으로 추진	제주 애월읍 금악초
	대명초	2022	2022.2.28. 상월초등학교 통폐합 주민의 농산물가공 및 체험전시장 활용의견으로 통합찬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	통폐합의 취지가 농산물가공 및 체험전시장 활용의견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논산시가 매입하거나 지역주민이 매입하여 주민공동소득 시설 구성 및 체험전시장 조성필요	함양군 서하초 곡성군 작은학교
부여 (1)	임주초	1995	임천중학교 옆에 위치 건물철거로 인해 대지만 있음 과거 동헌의 객사자리 기숙학교(중) 설립시 기숙사 활용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정체성	역사유적으로 복원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주변 중학교의 활용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태안 (3)	고남초 영향분교	1999	2020 태안행복교육지구-고남면행복마 을학교사업 : 유채꽃단지조성 마을에서 활용 및 운영하고자 희망	공공성 지역정체성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고남리 마을사업과 연계한 주민복지공간 구성, 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한 태안군의 매입 및 주민활용방안 검토 필요	함양군 서하초
	원북초 방갈분교	2021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로 인해 본교원거리 수업진행 예산문제로 정화사업 추진지연	위기대응	정화 작업 완료 후 검토	-
	소원초 의향분교	2023	전교생 4명, 소원초로 통폐합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대응	지역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어촌계, 일자리 및 거주지원 등을 통한 인구유입을 통한 방안 마련 필요	전라남도 신안군 자라분교 영광군 묘량중초
계	9교					

미활용 폐교 매각추진



[그림 5-3] 미활용 폐교 매각추진 대상

[표 5-8] 미활용 폐교 현황(매각추진)

지역	폐 교 명	폐교년도	매각구분	매각계획
공주 (2)	탄천초 가척분교	1993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주봉초	2017	지자체	공주시 매각 협의(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논산 (1)	황화초	2022	지자체	논산시 매각 협의(농촌리브로 사업)
금산 (1)	복수초 용진분교	2011	지자체	금산군 매각 협의(농촌리브로 사업)
홍성 (3)	대평초	2014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장곡초 오서분교	2015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장곡초 반계분교	2017	지자체	홍성군 매각 협의(돌봄 마을사업)
예산 (2)	장신초	1999	일반	공개매각 추진 예정
	광시초	1999	지자체	예산군 매각 협의(농촌체험 캠핑장)
계	9교			

다.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충남 민관협치 제도기반 조성

가) 민관협치 제도 현황

(1)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충남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하여 '18년 10월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20. 7. 10 개정)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 등 법제도 개선
-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관리 및 관련 업무는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에서 담당

(2) '20년 8월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민관협치 기본조례는 전체 미제정

- '20년 8월 현재 광역 선도지역 가운데 서울시 22개 자치구(25개 중 88.0%)와 경기도 10개 시군(31개 시군 중 32.3%) 기본조례 제·개정

나) 충남 민관협치회의 구성

(1) 충남 민관협치회의는 광역 선도지역의 위원회 대비 차별적인 기능과 민간주도적 구성

- 구체적인 기능과 민관협치 요소 간의 연계성 확보를 전제로 중심적 역할 설계
- 특히,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등 충남 민관협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에 대한 민관협치회의의 심의 자문 기능 명확화

(2) '18년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충남 민관협치회의 구성

(가) 의장 2명으로 공동의장체제(도지사 및 민간공동 의장), 정기회의 년 2회

(나) 위원 30명 이내, 운영위원회 10명 이내, 분과위원회 설치

다) 충남 민관협치 법제도적 연계 검토 대상 조례

(1) 도정 운영방식으로서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치와 연계된 법제도 정비의 연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논리적, 법리적 체제 구축 필요

(2) 민관협치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구성요소와의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충남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는 '15년 제정, '20년 개정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지방분권촉진계획(5개년 단위) 수립 및 시행
- (지방분권 촉진 및 정책과제 추진) 도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해결 촉구
- (도민참여의 확대) 도지사는 아래로부터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마련
- (지방분권 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지방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협의체인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3) 충남 민관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검토 대상 조례 및 해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표 5-9] 충남 및 15개 시군 민관협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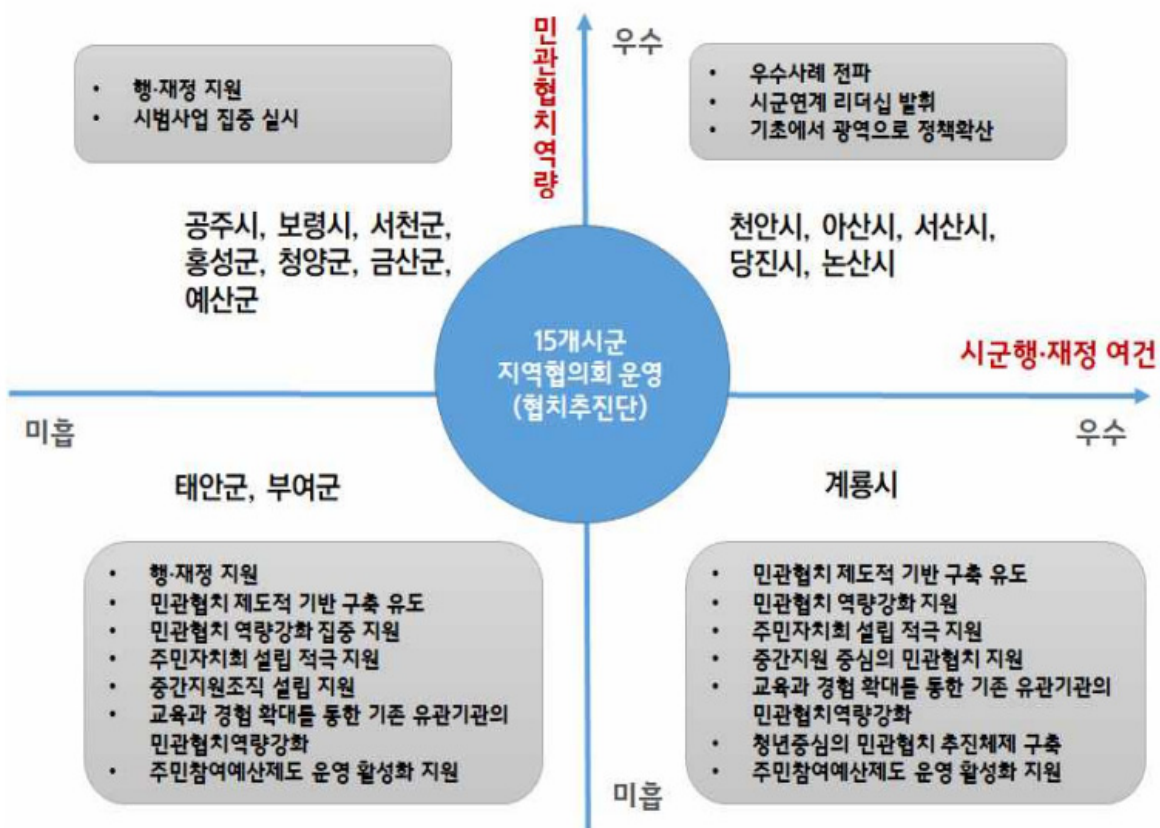
구분	인구수 (‘20.9.기준)	고령화 지수	읍면동수	주민 자치회	주민자치 회 전환 비율	비영리 민간단체 수	인구만명당 단체 수	협치 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개정 년도)	전체예산중 주민참여예산 비율
충남	2,120,559	145%	207	67	32.4%	440	2.075	o	2011/2019	5.0%
천안시	658,670	73%	30	5	16.7%	131	1.989	x	2011/2020	0.5%
공주시	105,192	281%	16	2	12.5%	29	2.757	x	2011/2015	6.7%
보령시	100,415	254%	16	1	6.3%	22	2.191	x	2011/2020	0.4%
아산시	314,282	81%	17	4	23.5%	47	1.495	x	2011/2018	0.3%
서산시	175,330	133%	15	2	13.3%	29	1.654	x	2006/2016	0.8%
논산시	117,226	256%	15	15	100.0%	31	2.644	x	2007/2020	10.8%
계룡시	42,811	71%	4	1	25.0%	6	1.402	x	2011/2019	0.1%
당진시	165,991	129%	14	14	100.0%	37	2.229	x	2012/2015	0.0%
금산군	51,563	336%	10	1	10.0%	23	4.461	x	2011/2017	0.3%
부여군	65,613	439%	16	4	25.0%	11	1.676	x	2011/2018	0.5%
서천군	52,026	485%	13	6	46.2%	19	3.652	x	2011/2020	7.2%
청양군	30,797	514%	10	2	20.0%	5	1.624	x	2011	0.2%
홍성군	99,909	188%	11	6	54.5%	15	1.501	x	2007/2020	12.6%
예산군	78,370	386%	12	3	25.0%	23	2.935	x	2007/2014	0.2%
태안군	62,364	366%	8	1	12.5%	12	1.924	x	2011	0.3%

※ 자료: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 충청남도

[표 5-10] 충남 민관협치 관련 검토 대상 조례 및 위원회

No	법령	위원회(위원수)
1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책자문위원회(150)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위원회(15), 젠더거버넌스
3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지속가능발전위원회(30)
4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
5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정보공개심의회(7)
6	『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주민감사청구심의회(9)
7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활동촉진위원회(14)
8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심의위원회(20)
9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민관협치회의(30)
10	충청남도 공유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11)
1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17)
1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14)
13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위원회(18)
14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광역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15)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15)
15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환경교육정책위원회(14)
16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130)
17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미설치)
18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미설치)
19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적정기술위원회(미설치)
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농정책위원회
21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8)
22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민감사관(70명 이내)
23	충청남도 도민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	
24	충청남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위원회(28)
25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14)
26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민참여예산위원회(39)
27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민주시민교육위원회(14)
28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9)
29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충청남도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추진단 (3농 정책위 분과활동)
30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31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3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
33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	미설치(협의회의 대행 예정)
34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노동정책협의회(15)
35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
36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노사정책협의회(17)
37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인권위원회(17)
38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39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0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안심사위원회(도정조정회의 대행)
41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18)
42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발전운영위(법인 이사회 대행)
43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혁신협의회(20)
44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감사위원회(7, 합의제)
45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도정모니터단
46	충청남도 도민 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민 평가단, 정책서포터즈
47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료: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 - 충청남도

[그림 5-4] 충남 15개 시군 민관협치추진모델(안)

※ 자료: 충청남도 (2020)



[그림 5-5]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도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가) 필요성



※ 자료: 충남 15개 시군 민관협치추진모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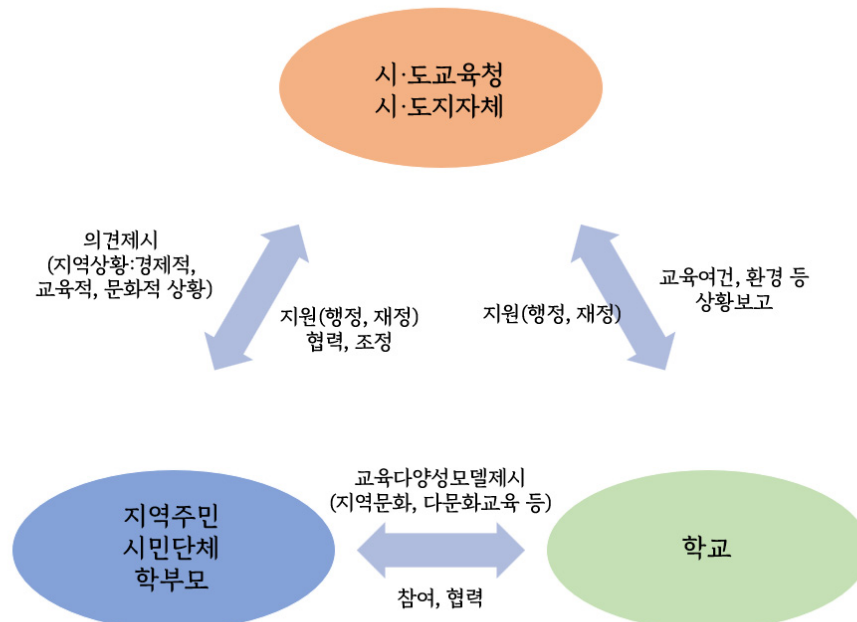
[그림 5-6] 충남 민관협치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구축

- (1) 충남 15개 시군의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행정 재정 조건에 따라 시민사회 지원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 충남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 15개 시군별 편차 심화
- (3) 광역 차원의 시민사회 지원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개별사업의 지속화를 통한 안정적으로 개별지원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군별 수요 대응 및 종합적 접근 미흡
- (4)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 성공사례 분석 결과, 주민의 합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한 잦은 소통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11) 사업 중심의 민관협치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므로, 주체 간의 수평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민관협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숙의와 공론의 기회 공유 필요, 주민이 사업의 주체이자 수혜자일 때 협력기제가 강화됨.
- (12) 또한 일반주민과 활동가 간의 인식과 참여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의 칸막이 해소 필요

나)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목표의 구체적인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함.

비전	민관협치로 혁신하는 행복 충남
가치	공존, 공평, 자율과 책임, 개방성, 혁신, 신뢰, 연대
목표	실 행 과 제
① 충남도정의 민관협치 고도화	1.1. 충남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1.2. 충남 민관협치적 행정의 리더십 향상 1.3. 충남 협치도정 운영 기반 강화
② 충남도정의 협치친화적 제도혁신	2.1. 도정운영의 민관협치 확산을 위한 정보공개제도강화 2.2. 민관협치적 위원회 운영 활성화 2.3. 민관협치적 평가제도 도입
③ 충남의 민관협치 역량강화	3.1. 숙의공론형 주민참여확대 3.2.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3.3. 민관협치형 민간위탁방식의 전환
④ 충남의 네트워크 활성화	4.1. 중간지원조직 융복합 및 네트워크 지원강화 4.2. 정책융복합화 기반 시군 민관협치모델 구축 4.3. 도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그림 5-7]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실행과제



※ 자료 : 지역사회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이현철 외, 2020)

[그림 5-8]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강화모델개발

라. 재원확보 방안

1)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재정 구조

가) 학령인구 감소

- 학령인구가 2015년 6,166천 명에서 2020년 5,457천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교육환경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지점임.
-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어 2040년 4,018천 명, 2050년 3,676천 명, 2060년 3,023천 명이 될 전망이다.

[표 5-11]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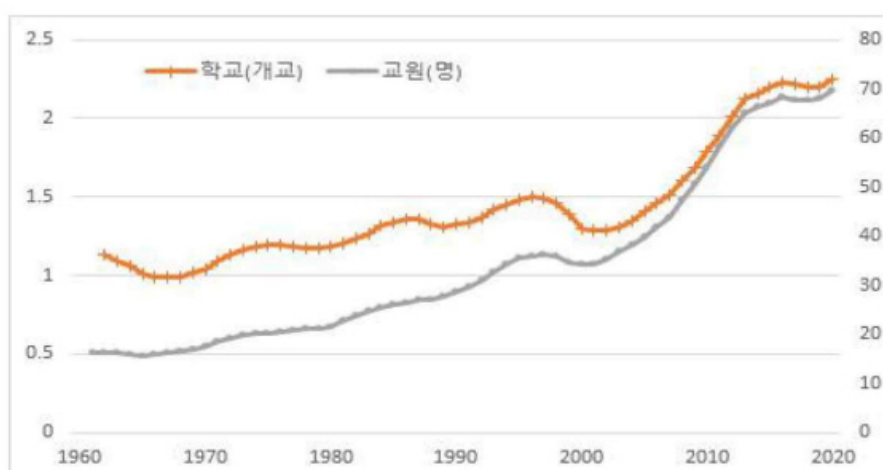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연평균증감률
초등학교	2,720	2,717	1,797	2,085	1,733	1,398	△1.6
중학교	1,578	1,358	1,143	1,017	941	793	△1.3
고등학교	1,868	1,382	1,321	916	1,002	832	△1.3
합 계	6,166	5,457	4,261	4,018	3,676	3,023	

주 : 연평균 증감률은 2020~2060년 기간의 학령인구 연평균 증감률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나) 교원 수 증가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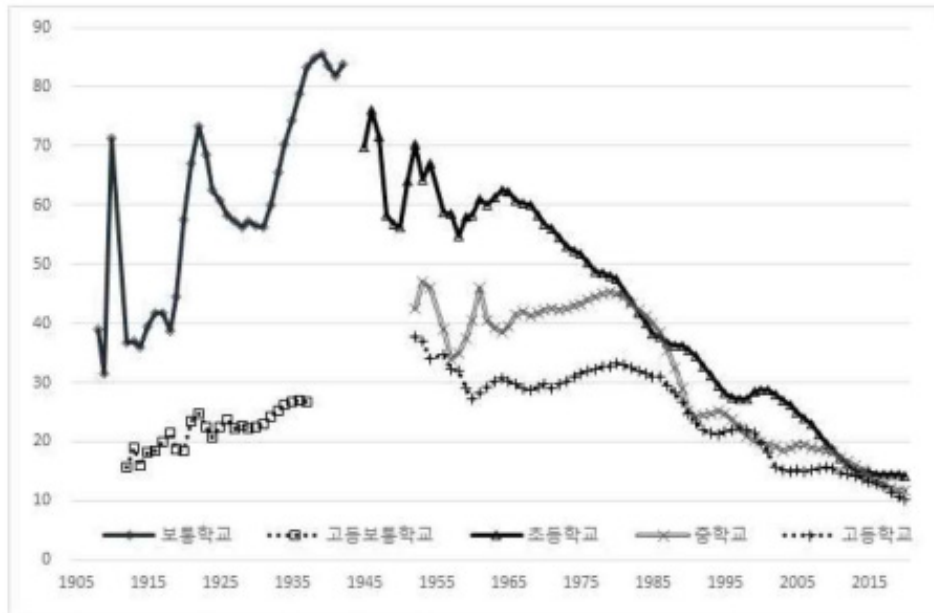
-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
- 1990년대 들어 학교 수와 교원 수가 급격히 증가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
- 교원 1인당 학생 수(2020년)는 초등학교 14.23명, 중학교 11.76명, 고등학교 10.12명



주: 1000명당 학교 수는 왼쪽 축, 교원 명수는 오른쪽 축.

※ 자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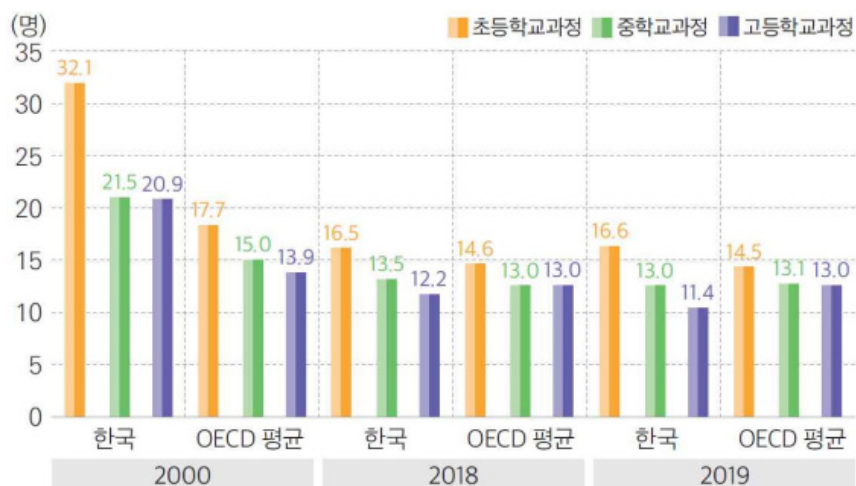
[그림 5-9] 6-11세 인구 천 명당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 1961-2020



※ 자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2021)
[그림 5-10] 교원 1인당 학생 수, 1906-2020

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음

- 2000년대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
-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 31.1명에서 2019년 16.6명으로 감소
- OECD 평균 14.5에 근접해 가고 있는 추세



[그림 5-11]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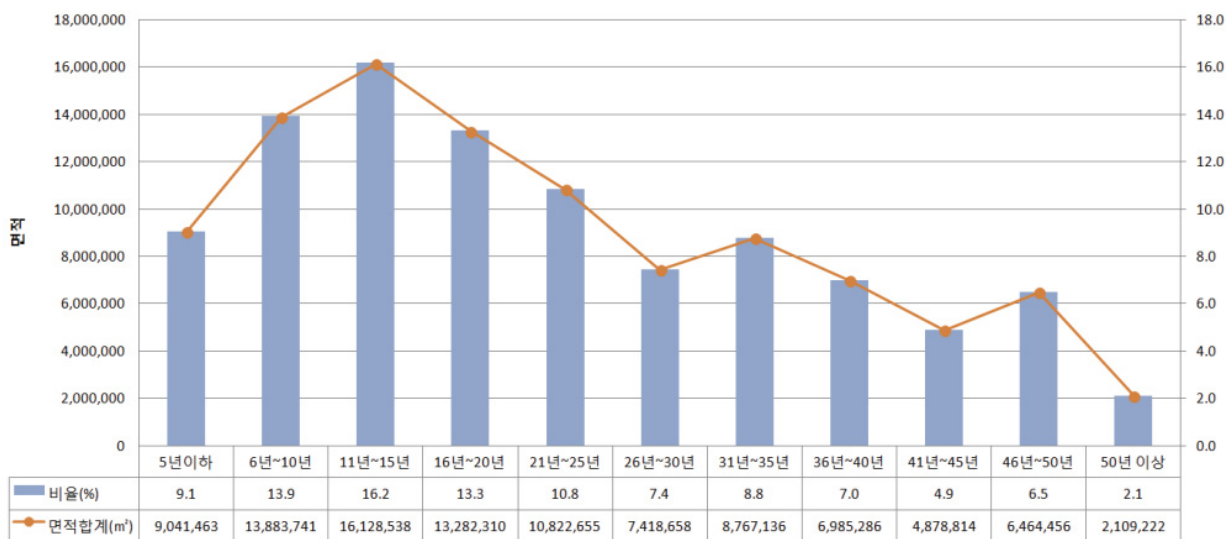
라) 학교 건물 노후 가속화

- 향후 5년 내 건축 연한 40년 이상인 건물 수 급증 예상에 따라 학생 학습권 확보 및 안전 보장 목적의 시설개선 요구에 직면

- 정부와 지자체, 교육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공간 혁신 추진 중. 하지만 근본적인 학습공간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급속한 원격수업 전환에 비해 부족한 교수-학습 인프라의 디지털화

마) 학교 건물의 경과 년 수별 현황

- 전체 학교 건물의 건축 경과 년 수를 보면 건축 후 11~15년 사이 건물이 전체 16.2%(1,612만㎡)로 비중이 가장 높음.



※ 자료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에듀빌(2017.11.27. 인출)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노후학교 시설개선 기준 연구 2017

[그림 5-12] 학교 건물의 경과 년 수 구간별 규모 현황

-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대규모 개보수가 시작되는 건축 경과 년 수 20년 이상 건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7.5%(4천744만㎡) 가량으로 전체 학교 건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2) 교육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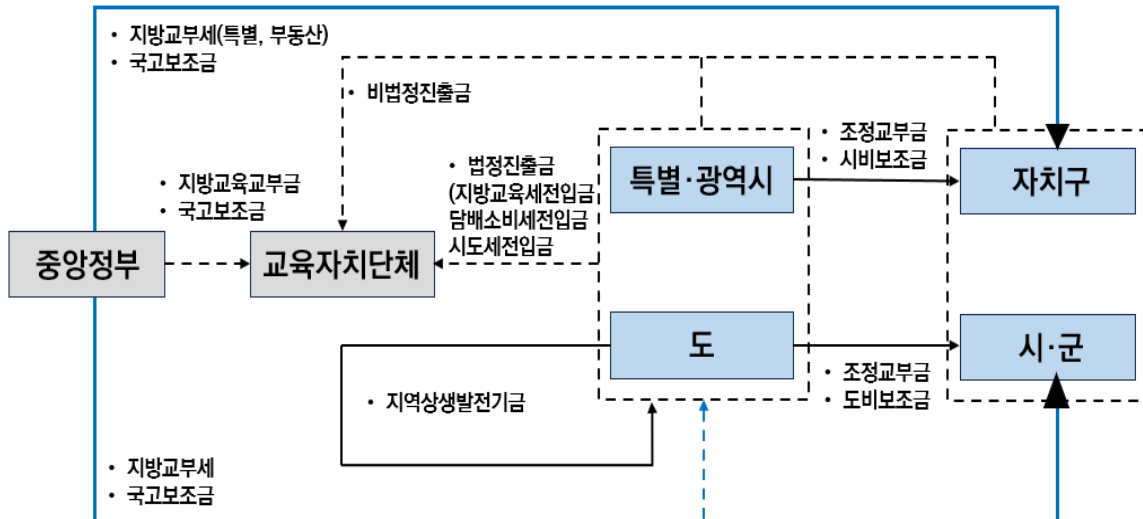
가) 지방재정으로서의 교육재정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이루어짐.
-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과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어 운영함.

나) 교육재정의 이전 흐름

-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단체에 지방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이전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이전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으로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출금을 이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그림 5-13]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다) 교육비특별회계 구조

- 지방 교육재정은 17개 광역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구성은 크게 이전수입과 학생납입금 등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은 교육대상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등으로 나뉜다.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그림 5-14]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본예산 대비 증가율

3) 교육재정의 변화

가) 학생 1인당 중앙정부 이전액 급격히 증가

- 지방교육재정 자원 특성상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 중앙정부 이전 규모는 증가 추세
- 2008년 학생 1인당 중앙정부 이전액은 422만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724만 원으로 연평균 약 7% 증가
- 2018년 유치원 학령인구(만 3-5세)를 반영해 함께 계산하면 중앙정부 재정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798만 원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6.6%

4) 교육재정 구조의 쟁점

가) 교육청 연도말 보유 자원 증가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대비 교부율은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최근 수년간 교육청의 연도말 보유 자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리가 필요

[표 5-12]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

(단위: %)

1972년	1982년	2001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9년	2020년
12.98	11.8	13.0	19.4	20.0	20.27	20.46	20.79

※ 자료: 교육부

5) 교육재정 구조의 변화 방향

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종류와 자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 이외에 증액하는 증액교부금으로 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원은 내국세분과 교육세분을 합산한 금액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제 변화

-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 2000년 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세분화

- 2000년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상향 조정되어 2001년부터 적용. 의무교육기관 교육보급교부금에는 보급과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
- 2004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경상교부금, 보급교부금, 증액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운영. 동시에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9.4%(기존 13%)로 인상
- 2010년 내국세 교부율은 20.27%까지 인상.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줄어든 내국세 규모에 맞춰 인상

※ 자료: 국회사무처, 획기적 미래교육과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재구조화 연구(2022)

마. 적정모델 제시

1) 학교 유희시설의 활용

가) 유희 교육시설 자체활용

(1)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일반 교실의 구조 변화

-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적용되었던 획일적인 일반교실 및 유희교실은 학생 수, 학습 내용, 수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교실로의 변화가 필요함.
- 교실의 3가지 유형으로는 0.5실 규모의 소교실, 1실 규모의 중교실, 2실 규모의 대교실로 재구성하고 학습내용에 따라 개별학습 경우에는 소규모 일반교실을 활용하고 입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습일 경우에는 대규모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하게함으로써 학생 수 변화와 학습내용에 따라 일반교실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일반교실의 구조변경이 용이한 조립식 재료를 선택하고 교실과 교실 사이의 벽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칸막이로의 계획이 필요함(김명렬, 2005).

(2) 특별교실을 확대 활용

- (가) 특별교실은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및 컴퓨터실을 말하며 기존의 기준에서 이들은 법령상 권장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 되어있음.
- (나)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시청각 교실, 도서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는 보통교실 기준만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

- (다) 향후에는 학교 건축에서는 특별교실의 확대 활용이 대두되리라 예상되며 이것은 사회적·교육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당연한 요구임(김승근 외, 2000).

(3) 다목적교실로의 개조 활용

- (가) 다목적실은 단순한 강당의 대용, 체육실 등의 사용을 제외한 개별·단체학습 등의 학습형태와 선택교과의 학습, 비디오, PC 등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학습행동과 생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하며 다목적실의 위치는 교사의 중앙, 교사 양 단부, 또는 별도의 도어에 설치함.
- (나)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교육상 꼭 필요한 교실만 두고 기술실, 미술실, 음악실 등과의 연계사용이 가능한 다목적교실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고 교무실, 소회의실, 교원연구실, 상담실 등과의 연계 활용할 수 있음.
- (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학교, 교사, 학생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크기로 계획할 수 있는 교실의 유형이 될 수 있음(김명렬, 2005).

(4) 학생의 생활·교류를 지원하는 시설

- (가)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학습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생활공간이기도 함.
- (나) 유휴교실의 활용에 있어서 풍부한 학교생활을 가져다 주는 장소로서 학생의 생활 및 교류 공간인 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각종 전시실, 전통 예절실 등의 시설활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신동식 외, 2010).

나) 폐교 및 캠퍼스형 학교 유휴시설 활용

(1) 폐교 유휴시설 활용

- (가) 학교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폐교 유휴시설은 지금까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대부하거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 등 재산관리에 제한적이었음.
- (나) 도심 아파트 지역 폐교의 경우도 재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대부 및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충청남도진로교육원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2) 캠퍼스형 학교 유희시설

- (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 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형 학교운동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나) 캠퍼스형 학교의 경우 저학년만 재학함으로써 기존 고학년이 이용했던 유희교실에 대하여 우선 특별교실, 학생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인근 지역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과 방과 후 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의 지역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다) 학교 유희시설 활용 주요 쟁점

(1) 학교 자체활용의 한계

- (가) 1990년대 설립된 청주시 아파트 지역은 인구 유입으로 대부분 초등학교의 학급 수는 48학급 이상으로 편성·운영되었지만, 2010년도 이후 도시 외곽지역 택지개발로 인하여 도심 아파트 지역의 인구 수평 이동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많은 초등학교가 2020년도 현재 30학급 이내를 유지하고 있음.
- (나)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교실의 경우 자체 활용계획을 통해 특별교실 및 학생 편의시설 등으로 확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2030년도에는 현재보다 30% 이상의 학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활용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남은 유희교실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설활용 연계 부족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2000년도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학교에 공공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
- 대도시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설립 비용 및 유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내 공공 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설 건립 등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학교 내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공공시설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학교장의 책임이 동반됨에 따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사회의 중심인 학교에 각종 공공복합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체 토지 매입 후 건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원화된 행정 운영 및 재산관리 등으로 인하여 활용 연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3)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어 학교 내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주로 실외에 있는 운동장은 대부분 개방하고 있고 공공시설 중 체육관만 일부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 실정임. 평생교육시설인 도서관과 체육시설인 학교 체육관을 제외한 문화·복지·주민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판단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

4) 학교 유휴시설의 학교 복합시설 활용

○ 학교복합시설 법적 근거

- 가)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나) 하지만 2020년 3월 24일 이전까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는 「학교시설 촉진법」 제2조제1항다목에 그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제6항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로써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합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는 근거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음.
- 다)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김한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 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라) 학교복합시설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학교복합시설의 정의를 「학교시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합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였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감독기관과 학교 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소유 및 운영 주체 등을 협의토록 하였음.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로 인하여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바. 학교 복합시설의 유형 및 종류

1) 복합시설 성격에 따른 유형

- 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공동체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크게 학생시설, 공동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학생시설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규정한대로 주 이용자는 학생으로 부수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학생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방과 후나 공휴일에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공동시설은 학생과 주민들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시설의 이용은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만들어 이용시간을 배정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복합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학생들의 학습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는 시설을 말함(이성룡 외, 2011).
- 복합화시설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시설계획에서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학생시설은 교사 외 체육관이나 특별실 등과 같은 시설들이 학생시설에 해당되며, 이들 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방과 후나 공휴일에 지역주민이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임

- 공동시설은 학생과 주민들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시설의 이용은 수영장,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등이 공동시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주차장,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이재림, 2013).
- 복합시설의 성격에 따른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 5-13] 복합화 시설 성격에 따른 유형

시설유형	주이용자	내 용	해당시설
학생시설	학생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명시된 시설 ·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나 학생들의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한 시설	체육관, 특별실, 급식실 등
공동시설	학생+주민	·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을 전제로 건립한 시설 ·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명확한 시설이용 계획수립 필요	수영장,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등
사회기반 시설	주민	· 학생들의 이용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시설 · 학생들의 학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시설	주차장, 장애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 자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이성룡 외, 2011)

- 이용대상 분류에 따른 복합화 시설의 유형
- 학생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인 컴퓨터실, 어학실, 실과실, 음악실 등의 학교시설임.
- 시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며,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과 도서관, 시청각실, 공연장 등과 같은 문화시설, 공원과 같은 녹지 시설이 해당됨.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동 협약을 통해 재정 분담률을 정하고 사업 시행은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전용시설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물리적으로 학교시설과 효과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며 복합화 시설계획 추진 시부터 학교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이재림, 2013).

2) 학교 복합시설 종류

- 학교 복합시설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학교 복합시설 종류 및 기능을 분류할 수 있음.

[표 5-14] 학교 복합시설 종류 및 기능

종류	기 능	주요시설
평생교육 시설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국어, 정보 자료 습득 등	컴퓨터실, 도서실, 정보자료실, 문화 강좌실, 시청각실 등
문화시설	문화, 여가, 관람, 집회 활동 등	미술관, 박물관, 음악실, 전시실, 공연장 등
체육시설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생활 스포츠교육 등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요가실, 에어로빅실, 기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보건시설 등	보육시설, 돌봄교실, 지역복지관, 보건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청소년시설	청소년의 취미 여가 시설	멀티미디어실, 비디오감상실, 인터넷방송제작실, 수공예실, 목공실, 3D과학체험실 등
편의시설	지역주민의 편의 및 커뮤니티 증진	휴게실, 카페, 서점, 편의점 등
기타시설	지역사회 공공, 공용 시설 등	주차장, 공원, 마을공동체사무실 등

가) 학교 복합시설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복합화 수준은 1997년부터 학교공간에 지역사회 문화공간인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공용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학교 공간 내에 배치하고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거의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기초를 이 어온 채 규모의 차이와 종류의 차이는 있으나 주민복지를 위한 기본 시설을 부가적으로 보완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정진주, 2019).
-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 및 복합시설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대도 시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하여 추진 되어 왔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나) 지역사회의 부족한 공공시설로서의 잠재력 내재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지역주민에게 이용가능한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 설 등 공공 복합시설의 부족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 지만 도시지역에서의 적절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초등학교는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교는 일상생활의 중심지인 근린생활권 단위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도보권내에 위치함.
- 지역 사회시설은 모두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리·공간적 측면에서 학교는 지역사회 시설로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신종봉, 2009).
-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교육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 복지시설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족한 공공시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평생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특별교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이용하고 있었음.
- 다만,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체육관, 수영장 등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극적 행정이 주를 이루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체육관 및 수영장을 건립하여 일과 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이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도심 아파트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교실에 대하여 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유휴시설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공복합시설로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해 줄 수 있음.

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평생교육·복지시설 확충 필요

- 1980년대 이후 저출산과 더불어 의학의 발달 등으로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37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함.
- 반면, 저출산으로 2030년 이후에는 학령인구수가 30% 이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하여 학교 유휴시설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학교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구심체이자 학습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센터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김경희, 2015).
- 지역사회에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시설을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보하여 학생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 경로효친 사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이처럼 학교는 평생교육 차원의 지역사회의 센터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서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공공 복합시설 확충 정책 추진이 필요함.

3) 학교 유희시설의 복합시설 활용 과제

- 가)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도 이후 중소도시의 경우 학령인구가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심지역 초등학교의 유희교실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는 폐교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나) 2000년도 이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내 시설복합화 및 복합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하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 내 복합시설 추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지역주민의 이해도가 낮아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다) 이에 도심 아파트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학교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유희교실 등에 대하여 지역 공공 복합시설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임.

※ 자료 : 주병성 (2021) 2030년 이후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에 따른 초등학교 유희시설의 지역공공복합시설활용에 관한 인식 연구

3. 종합 전망

가. 예상 문제점

1) 폐교 발생 후 재원확보의 어려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향후에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법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연계 지원이 있음.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경우 한시적 기금이라 장기사업발굴에 어려움이 따르며 연계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용이한 구조로이는 오히려 한계가 되기도 하나 관련 재원을 통해 폐교의 유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2) 폐교 발생에 따른 유지, 폐교의 활용에 관한 법령 활용의 어려움

- 미활용 폐교의 경우 학교당 연간 관리비가 1천만 원~2천만 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으며 (김동성, 2017), 폐교의 위치가 대부분 도서와 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활용이 쉽지 않아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경관 훼손,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으며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폐교를 개인이 임차한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제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료의 체납, 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 과도한 시설투자 후 사업실패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매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활용,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 폐교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에 대한 매입이나 대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이 없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폐교의 유지, 활용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음.

나. 제도적 한계

1) 관련 법령의 제도적 한계

- 현행 「폐교활용법」 제5조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 관련 법령으로 인해 무상대부 요건이 까다롭게 느껴지고 대부 기간에 있어서도 갱신기간의 어려움이 있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제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무상대부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관련 대부의 갱신기간 및 대부기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대로라면 10년 이내의 갱신이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갱신이므로 이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교활용에는 제도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2) 무상대부 대상 범위의 한계

- 현행법에서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및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 등이 주민교육, 주민공동체 지원, 사회복지, 문화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의 한계가 있음.

다. 개발 잠재력 등 제반 현황

1) 공공적 목적의 활용가능성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하여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의 사회복지, 문화복지, 지역복지 등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교육여건에 적합하게 부족한 인프라를 폐교를 통해 활용하게 된다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소외의 해소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농어촌, 도서 지역에 현재 부족한 교육 인프라는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인프라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름.
- 지역의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의 문화, 예술 관련 공간 및 지역연계 학습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 연계학습 공간의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2) 폐교 위기대응을 통해 외부인구 유입 가능성

-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인구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폐교 발생을 사전에 막고 폐교 유지기간에도 학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의 유입을 위한 장려방안이 필요함.
- 지역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유입인구의 소득원 마련을 위한 지역의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폐교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임.

4.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제시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의 구성이 있어 그 주제는 ‘SUNY’(햇별이 잘 드는)모델로 구성하였으며 크게 4개의 형태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각 3개의 모델과 중심주제로 분류하였음.
- 폐교활용 모델에 있어 충청남도만의 특징을 보다 잘 살려 다양한 형태로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Model의 비전을 설정하였음.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의 주제 : 지역학교의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폐교 발생 상황에 햇별이 드는 폐교활용모델의 제시
- 각 모델의 세부 형태는 주제별 3개의 운영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12개의 세부 모델을 구성하였음.
- 각 모델은 지역사회보장형 S형(save), 지역사회활용형 U형(utilize), 거버넌스협력형 N형(network), 폐교위기대응형 Y형(yet)으로 목적과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의 공공성, 지역 정체성, 지속가능성, 인구유입 요인 도입을 통한 폐교위기 대응으로 분류하였음. 세부적으로 각 모델별 적정 운영, 활용형태를 유지, 임대, 매각의 형태로 구성하여 향후 폐교위기 대응과 폐교 발생 시 제시된 모델의 범주 안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폐교의 상황에 적절하도록 관련 모델을 중심으로 활용, 이용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음.

충남형 폐교활용모델

SUNNY

SAVE UTILIZE NETWORK YET



모델명	세부모델명	방향성	운영 및 활용 형태
지역사회 보장형 S _(save)	S-1 문화/어학/교육 체험공간형 S-2 마음/정서 치유공간형 S-3 사회복지/지역복지/교육복지형	목적의 공공성	교육청 직접 운영:보존형(유지/임대) 지자체/기초단체 운영형(임대/매각) 정부기관/공익법인운영형(임대/매각)
지역사회 활용형 U _(utilize)	U-1 귀농어/귀촌 지원시설형 U-2 생활 SOC 연계 활용형 U-3 노인복지/문화복지 활용형	지역 정체성	기초단체 직접운영형(임대/매각) 지자체/기초단체 운영형(임대/매각) 정부기관/공익법인운영형(임대/매각)
개버넌스 협력형 N _(network)	N-1 지역공공기관 장기 대부형 N-2 지역기업연계 휴양/관광활용형 N-3 지역평생교육 협력형	지속 가능성	지역공공기관 활용형(임대) 기초단체/지역기업 운영형(임대) 정부기관/공익법인운영형(임대/매각)
폐교위기 대응형 Y _(yet)	Y-1 단기 효율적 필요시설 활용형 Y-2 지역주민 개방 기타활용형 Y-3 수요대비 보존형	인구유입 요인 도입 가능성	교육청 직접 운영 : 보존형(유지/임대) 교육청 직접 운영 : 보존형(임대) 교육청 직접 운영 : 보존형(임대)

[그림 5-15] 폐교활용모델 구상안

■ 섬 폐교 활용모델 제시

활용모델명	S-1 문화/어학/교육 체험공간형	U-1 귀농어/귀촌 지원시설형	Y-3 수요대비 보존형 Y-1 지역주민 개방 기타활용형
방향성	목적의 공공성	지역정체성	인구유입 요인 도입 가능성
운영형태	임대/유지형태로 운영 학교연관시설의 활용	지역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어/귀촌시설활용 (지방/기초자치단체 인수형)	유지형 운영의 경우(보존) 개방형태로 활용 수요대비 보존시에도 개방형태로 활용

- 충청남도의 섬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활용모델의 경우 위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목적의 공공성, 지역정체성, 인구유입 요인 도입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4가지 형태로 운영하며 S-1 모델은 임대형태의 운영형태로서 기존 학교의 연계활용 및 학생,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되 장기적 차원에서 매각보다는 임대 형태를 통해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형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서의 U-1형은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임대의 개념보다는 소유권을 넘기는 인수형으로 지역사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모델을 제시함.
- Y-1, Y-3 모델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대 또는 보존의 형태 가운데 가급적 직접 운영(교육청) 형태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폐교의 장기적 운영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보존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운영방식임.
- 섬학교의 학생이 5명 미만의 경우에는 폐교로 유도하여 위의 세 가지 방안으로 적정 운영모델을 선정 운영한 후 다시 학령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S-1, Y모델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성, 지적적 특성, 교육적 가치에 대한 판단 이후 해당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U-1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5. 종합 전망

가. 폐교활용 모델의 세부 제시를 통한 선택 과정 제공

1) 지속적인 폐교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필요성

-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의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및 폐교 발생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학령인구 발생으로 인해 학교의 기능이 다시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응에도 각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폐교의 지속적인 발생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은 당연한 과제이며 중앙정부로부터는 명확한 관리, 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폐교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 및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폐교재산 관리 운용체계의 마련 및 폐교 발생 전 위기 상황에 TF가 구성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사회의 상황과 발전방안에 적합한 대안과 운영방안에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 증대

- 지역의 폐교, 폐교위기 학교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 및 활성화 모델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운영에 대한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폐교 위기와 폐교 발생으로 인한 활용에 있어 주민의 주도적 참여, 주민의견의 체계적 수렴, 주민을 위한 공간 개방 등의 다양한 모델을 사전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폐교위기 학교의 폐교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폐교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체적, 자발적 대안제시 및 제도도입이 있어야 할 것임. 주민과 지역사회 연계기관, 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제 필요를 넘어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임.

3) 관리주체의 조정과 공동협력 강화 필요

-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폐교의 관리 주체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임. 지

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관리 주체의 역할을 맡아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및 자원 마련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관리 주체의 조정과 함께 공동협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상시적 자문기구 운영과 함께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충청남도 폐교활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자문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심도있는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자문위원회의 지원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내륙형, 농촌형, 도서형에 적합한 모델 적용을 ‘폐교활용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하고 적절한 모델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법률 등의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활용여건 마련

- 폐교의 활용에 있어 폐교가 당초 목적 이외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매각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인의 수익시설로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인수 시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폐교를 임대하는 대상에 있어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임대계약의 갱신에도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용료 면제 등의 추가적 지원을 통해 시설 보수와 시설관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6.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폐교 실태를 분석하고 그 활용성 제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충청남도형 폐교위기대응, 폐교활용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기존 폐교활용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폐교 발생과 운영과정에 대한 종단적 분석과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적 조사에 있어 다소 부족하였음.
-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향후 기존 폐교의 활용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 및 폐교활용 형태별 지역주민의 활용도, 만족도, 지역사회 적합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충남의 폐교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 및 위기대응 대안의 적용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의 협력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자문 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 ☐ 사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 작성일시 : 2023. 09. 11
- ☐ 소속 및 직위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자 문 의 견	
1. 각종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교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2.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필요사항은 없는지? 3. 섬학교의 폐교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4. 향후 섬학교의 학생이 1~2명이나 5명미만의 학교의 경우 폐교로 유도하여 경제적, 지역적, 교육적 가치를 판단필요 5. 폐교를 활용한 지역노인주간센터나 충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농수산업 등 활용방안의 문제점은 없는지? 6. 교육청과 지자체간 폐교를 활용할 시 사용료면제 등 없는지? 단, 시설보수 및 파손의 경우는 사용자 책임	
자문위원(서명)	편삼범

자 문 의 건 서

- ☐ 사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 작성일시 : 2023. 09. 12
- ☐ 소속 및 직위 : 전 당진교육청교육장

자 문 의 건

〈자문 의견〉

1. 충남도의원정책 개발로 연구보고된 충남형 폐교활용모델 및 기본구상수립 연구 결과 보고가 발표되도록 참여한 자문위원과 도의회 및 연구개발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앞으로 폐교되거나 폐교된 학교활용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모두의 협력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과제이므로 본 연구 보고가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며, 폐교활용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폐교 전 폐교위기학교에 위기대응의 연구와 위기극복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여 위기의 학교들이 이를 대응하도록 하는 정책과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 보고서에 일부분 수정 했으면 〉

1. p64 1) 일본의 사례 → 1) 일본 폐교 활용사례로 고치고 가) 성공사례는 삭제 (사유: 소제목이 다른 나라 소제목과 맞게)
2. 큰제목을 보면 '폐교활용'과 '폐교위기' 의 생략으로 연계성 부족
3. p13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삽입
 - 충남에 폐교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제시의 보고가 미흡하였는데 앞으로 위기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의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보고 되어야 하겠음

자문위원(서명)

유 장 식

자 문 의 건 서

- 사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작성일시 : 2023. 9. 11.
- 소속 및 직위 : 합덕여자중학교 주무관

자 문 의 건	
1.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령인구감소 예상으로, 수련원, 학업지원 센터 등 자체운영을 우선하고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폐교활용 방법 강구하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조금, 기업체의 기부금 조성으로 폐교 재활용 비용 마련 * 폐교가 되어도 재사용을 위한 유지·보수비 등을 기업체나 지자체에서도 지원 하도록 법적 체계 마련 * 폐교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사용료 감면 혜택에 국유지도 포함하여 폐교 활용의 활성화 추진 - 사례)당진의 도성초는 운동장과 건물의 토지 대부분이 국유지로 일반인의 대부 활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없음 2. (제안사항) 산촌, 농촌, 어촌의 특성화 모델을 제시 * 산촌: 체험형 공방, 미술작업장(판매병행), 치즈만들기, 유제품 가공소(강원도 목장, 지역사업 연계) 활용 * 농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하여 귀촌을 위한 교육장 및 임시숙소로 활용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7142600054?input=1195m * 어촌: 수상펜션, 다이브샵, 수산물 공동작업장, 수련원시설로 활용(야간 해루질, 호핑투어 같은 단시간 배낚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문위원(서명)	양형우

자 문 의 건 서

- 사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작성일시 : 2023년 9월 15일
- 소속 및 직위 : (주)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정소년/ 주필

자 문 의 건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단순히 교육기관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정서적, 문화적인 기능을 포괄하는 마을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역사성을 띠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을 염려하는 현 상황에서 폐교(폐교위기학교 포함) 활용에 관하여 귀농·귀촌활성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체험활동, 관광, 워케이션(worcation. work+vacation) 등으로 그 지역을 찾는 인구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충남은 해양자원 중 최근 집중적 연구와 활용이 진행되고 있는 미세조류와 연계한 체험 공간 및 지역연계 현지 상품 개발의 여지가 높다. 특히 머드(mud) 등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특화된 콘텐츠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콘텐츠로서도 확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의 관심을 귀·어촌으로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연구자들이 지적인 대로 지역사회 적합도 등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심히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충남형 폐교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짧은 기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충남형 폐교활용 명을 『SUNY(햇별이 잘 드는)』로 하여 정리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한다.

자문위원(서명)

임정은

자 문 의 건 서

□ 사업명 :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 작성일시 : 2023년 10월 14일

□ 소속 및 직위 : 청운대학교 이영란 교수

자 문 의 건

최근 4차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경제성장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 3,612명으로 전년(587만 9,768명) 대비 9만 6,156명(1.6%)으로 감소하였으며, 2047년 9.2%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통계청, 2022). 학령기 인구감소로 평생교육과 질적 돌봄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고도화로 인한 지속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학령기 감소로 인한 폐교 활용방안의 선제 대응 마련을 위한 과제로 2023년 3월 제1차~5차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방안 연구모임’을 진행하여, 충청남도의 폐교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폐교 활용 방향에 대해 교육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는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2023년 10월 ‘충남 형 모델 및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이론적·인구 사회학적 배경의 선진사례 중심으로 충남 형 폐교 활용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지원금을 통해 마을의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모델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조금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역의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학령기 인구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는 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폐교가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주인·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교로 지정되기 이전 지역주민들의 교육 공간으로서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및 맞춤형 교육, 문제해결 중심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문위원(서명)

이영란

참고문헌

- 경상북도(2020), 마을문화공간 조성사업 연구보고서.
- 구희동·배승중·김대식(2022), 도농공존거점공간으로의 폐교 활용방안 및 활성화 요인 분석, 농촌계획 28(3), pp. 5-109.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도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부지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 김민교·정재용(2021), 폐교를 활용한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계에 관한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2(1).
- 김정은·류진석·김대식·정여주(2022),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농촌계획, 28(1).
- 김태덕(2021), 폐교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활용방안,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pp. 215-216.
- 김학래(2019),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의 평면유형개발에 관한 연구-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1(1), pp.45-52.
- 남영희·조영미·이순옥(2019),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의 사회적 역할 연구-부산 '놀이마루'와 도교 '3331 아트 치요다'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1, pp. 365-395.
- 박경옥·조현주·이상훈(2006),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위한 농촌지역 폐교의 리모델링 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4).
- 박상균·김대식·Tomita Shigeru·이왕록(2022),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형 문화재생공간 신체활동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 및 수요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1(11). pp. 394-403.
- 박은아·김경숙(2019), 공간재생 마케팅의 전략요소를 활용한 국내외 폐교 사례분석 연구-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8권 3호. pp. 3-12.
- 박해든·여수환·박진영·장성진(2022), 역사적 가치를 가진 폐교의 활용을 위한 리트로핏 제안, 한국생화환 경학회지 29(6), pp. 634-643.
- 변경화·강은정·유창균(2015),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2), pp. 111-119.
-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교육청 폐교활용 사례집
- 성이용(2020), 우리나라 폐교 유형과 활용 현황 연구-국내 폐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7(2).
- 윤서연·윤희림(2021),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서울연구원.
- 유진이·최원혁(2017),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폐교시설 활용방안, 2017(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pp. 91-105.
- 이을규(2018), 폐교를 리모델링한 지역시설 활용사례, 2018 한국농촌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이화룡(2018) 국내 폐교 현황 및 활용사례, 그리고 새로운 목표, 한국교육시설학회 25(5), pp. 9-12.
- 정이랑·권기범·김기수(2017) 농촌지역 폐교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 2017년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 17(1).
- 최준열·김훈호·김은경(2020), 충남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유형 분석, 교육연구 34(2), pp. 1-29.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농산어촌 폐교의 실태와 활용성 제고방안
- 충청남도교육청(2019),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 허일수·유진이(2020), 도심폐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사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5(1). pp. 7-43.

연구보고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보고서

발행일 2023. 10월

발행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수행기관 공익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